

특집 기획 **전문가초청 자상강연**

2020 미국의 선택 - 한반도의 미래

노벨상 시상식이 열릴 즈음이면 사람들은 현재와 미래를 연결짓는 훌륭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을 조명하게 된다. 2020년 노벨 물리학상은 '블랙홀'의 형태를 밝히는 데 기여한 3명의 과학자에게 돌아갔다. 미국, 영국, 독일의 과학자들이 그 영광을 누렸다. 물리학 그리고 화학, 문학, 평화, 경제 분야의 인재들이 그들의 업적을 인정받고 동시에 전세계의 주목을 받는다. 흔히들 아시아가 21세기의 주역이 될 것이라고 해왔다. 이를 증명하듯 중국은 그 엄청난 인구를 등에 업고 전세계의 공장 이 되었고, 더 나아가 세계 최대의 소비시장으로 일어서고 있었다. 지금 우리들이 맞고 있는 세상은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과 신흥강대국인 중국의 패권싸움 중에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서있다. 말 그대로 동서양의 허브가 될 수 있는 위치에 놓여있으며, 경제적인 영향력은 크다. 지난세기동안 일본은 경제적인 호황을 선점 했었지만, 시대에 뒤떨어진 정치와 경제구조로 인해 서서히 몰락해가고 있다. 일본의 지위가 약화되고 미국의 입김이 강해지면서 대한민국, 러시아, 인도, 호주, 브라질의 5개국 이 G7 회의에 합류하게 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미국대통령 선거에 전세계인이 주목하는 이유는 전세계의 질서와 흐름에 관련된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냐의 문제를 넘어서 인류가 가야될 방향성의 문제이기도 하고,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결정이 그 이유이기도 하다.

대한민국은 지금 반도체와 통신기술 그리고 배터리 산업의 융성으로 빛을 발하

고 있다. 아직은 그 규모가 전세계를 커버할 정도가 되진 못하지만 이 추세대로라면 대한민국은 곧 최고의 4차산업 선도국가가 될 것이다.

4차산업 발전에 따라 세계의 패권은 새롭게 정리되고 있다. 이 시대의 파고를 함께 타고넘고 있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이 시대를 잘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변화에 동참할 수 있는 지도자를 선출하고 다

같이 힘을 모아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미주동창회에서는 미 대선을 앞두고 특집기획 <미국 대선과 한반도의 미래>를 준비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생각을 들어보며 이번 대선의 결과를 지켜보길 바란다.

<편집자 주>

<특집칼럼 1, 2, 3, 4, 5면>

미 대선 후 한반도 변화



이채진(문리 55)

2021년 1월20일 워싱턴에서 미국 대통령 취임식이 열릴 예정이다. 재선에 성공한 트럼프 현직 대통령, 아니면 그에 도전한 바이든 전 부통령이 그 행사의 주인공

이 될 것이다. 그는 앞으로 4년동안 미국과 전세계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가 될 것이며 한반도의 미래에도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 할 것이다. 미국과

한반도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의 정책]

만일 트럼프가 코로나-19로 발생한 전대미문의 위기를 극적으로 극복하고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만 있다면 의욕적이고 막강한 지도력을 행사할 것이다. 자신이 코로나19의 확진자 였던 경험을 토대로 코로나의 퇴치를 위한 치료제를 개발하고 백신을 널리 보급하기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는 독감보다 덜 위험하니 두려워 하지 말고 일상생활에 구애 받지 말라고 계속 선전할 것이다. 그는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장군으로 영웅시 되길 기

대하고 있다. 철저한 현실주의자(realist)인 트럼프는 미국제일주의(America First)와 북고주의(Make America Great Again)에 따라 '법 과 질서'를 강력하게 유지하고, 경제의 조속한 부흥을 도모하며 반이민 정책을 지속할 것이다. 그는 견제와 균형을 중시하는 3권분립의 원칙을 초월하고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이용하여 권력을 의기양양하게 확대할 것이다. 그는 이미 "대통령으로써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고 선언한바 있다. 연방하원에서는 민주당이 다수의석을 유지하겠지만 상원에서 공화당이 50석 이상을 차지하게 된다면 트럼프의 영향은 더욱 상승할 것이다. 민주당과의 법적 분쟁이 심화되면 트럼프는 보수주의 대법관들이 다수인 연방 대법원에 도움을 요청할 것이다. <2면에 계속>

특집 칼럼니스트

이채진	클레어몬트맥키나대 국제정치학 석좌교수	P1,2,3
이항렬	전 세퍼드대학 정치학 과장	P2
정태영	현 미주동창회보 논설위원	P3
류재풍	전 로올라대학 사회학과장	P4
김해암	코넬 대학교 의과대학 부교수	P5

NON-PROFIT
US POSTAGE PAID
LANSDALE, PA
PERMIT No. 113

내가 내는 구독료, 든든히 세워지는 동창회

아래의 주소로 동창회비를 납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년: \$75 / 2년: \$150 / 후원금: \$100 ↑

PAYABLE TO SNUAA-USA

SNU ALUMNI ASSOCIATION USA | 158-14 Northern Blvd. 2nd Floor, Suite UL-2 Flushing, NY 11358



류재풍 (법대 60)

2020 미국의 선택 - 한반도의 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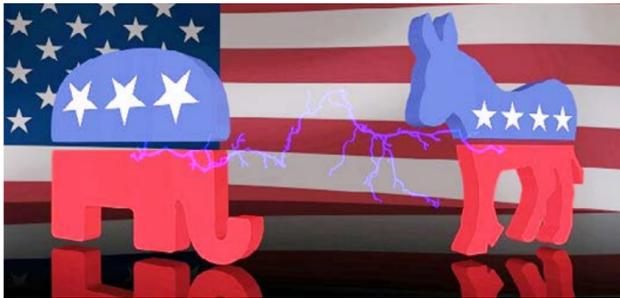
트럼프-바이든 대선의 결과와 의미

미국 대통령선거는 주목할만한 현상이다. 더욱이 금년 11월 선거는 전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전국적, 세계적 관심을 끌고 있다. 바이든 - 트럼프 대결이 눈앞에 왔다. 누구의 승리로 끝날까? 금년선거는 유달리 예측이 어렵다. 양후보의 인기도, 양정당의 선호도 등의 여론조사 숫자들을 믿기 어렵기 때문이다. 4년전 과학적 여론조사 Pollster들이 한목소리로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의 압승을 예보했던 바, 결과가 반대로 나오자 사람들의 신뢰를 많이 잃었다. 금년의 주요인론매체들의 보도유형도 2016과 유사한듯하여, 언론의 신빙도는 하락세를 계속하고 있다. 결국 It will be over when it's over. 투표할 두 경을 열고 나오는 숫자이와 믿음만한 숫자는 별무하다.

언론보도를 제쳐놓고 투표자들의 성향을 들여다보자. 민심을 찾아보자. "민심이 천심"이라면 민심 속에 두 후보의 승패가 달려있는 것이다. 대선을 두 주일 앞두고 오늘 미국의 표심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트럼프 승리 - 바이든 패배쪽으로 향하고 있다. 미국표심이 트럼프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나의 주장에는 다음과 같은 근거가 있다. 첫째근거는 COVID-19 역병의 영향이다. 대선을 앞전에 두고 총체적 난경을 지나가고 있는 보통 미국인들은 요즘 심기가 좋지않다. 비교적 원만하고 낙천적인 사람들로 보였던 보통 미국인들과 다르다. '인심은 곳간에서 나온다'는 한국의 속담처럼, 살림이 어려워 지나가 관망적, 긍정적, 후호적인 모습들은 보기 어렵다. 서글픈 일이나 현실이다. 살림이 어려울때, 알길이 혼란스러울때 사람들은 안녕과 질서를 찾는다. 대공황 그늘아래 또 이차대전후 1년만에 있었던 1940년 선거에서 F. Roosevelt는 전무후무한 3선경쟁에서 승리하였다. 당시의 48개 주에서 38을 석권하였다. 가히 압승이었다. 그당시 민심을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낸 슬로건은 "Don't change horses in the middle of the river". 혼란하고 위험한 시기에 표심은 지도자를 바꾸려 하지 않는다. 앞으로 미국 표심이 트럼프로 향할 것을 시사한다.

지금은 inter War period(1918년 1차대전 종결부터 1939년 2차대전 발단까지21년간)의 세계정세와 비교될만큼 험난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시기에 있고 그 한복판에서 치루는 대선이다. 혼란하고 불안한 세상은 strong man을 지도자로 원한다. 난세의 국민은 지도자가 신사처럼 행동하기를 원치 않는다. 막강한 에너지로 추종자들을 모아 난세를 극복하고 승리를 가져다 줄 투사를 원한다. 예외비라고 올바르게 처신하는 신사 대통령은 평화속에서 한가로운때의 얘기다. 시진핑하고 맞장불어 이길사람이 트럼프 아니면 바이든 인가를 미국의 표심들이 묻고있다. 문명이 발달해 원시사회에서 상

상할수 없는 고매한 인물들도 수없이 많이 나왔고 훌륭한 제도들도 많이 등장해왔던 것이 인류의 역사이다. 그러나 나라와 나라사이의 관계는 정글의 약육강식, 사막의 적자생존의 원칙이 지배한 석기시대와 별다름이 없다. 신사들이 아닌 무사들이 요구되는 때 인것이다. Chamberline을 버리고 Churchill을 부른 영국표심을 보라. 에너지를 과사하고, 투사형의 트럼프가 신사형이고 노인테를 감출수 없는 바이든 보다 유리하다. 둘째 근거는 중국공산당의 위협이다. Virus의 악영향 보다 더 큰 비중의 대외적 요소이다. 근래 수년간에 미국인들이 감지하게된 중국의 위협이 또한 미국시민들을 불안스럽게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 공산당의 위협에 강력한 대중국 정책 필요
중국과의 경쟁에서 승리할 리더는 트럼프가 유리
견고한 한미동맹 유지를 위한 지도자가 승리해야

1970년대 미중 국교정상화되고 1980년대부터 중국이 개혁개방 정책을 수용, 세계시장에 개입한 이래 양국관계가 평화공존, 협력공조 등의 틀속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대다수 사람들이 인식해 왔다. 중국사람들이 잘 살게되면 수많은 중국중산층이 자유민주주의를 추종하게 될 것이라는 낙천적인 논지를 펼쳐 왔다. 이같은 중국관은 오랜기간 여섯정권(Carter-Reagan-Bush41-Clinton-Bush43-Obama)의 대중 외교정책을 망라한 지배적 견해였다. 그러나, 2007-2008 세계금융위기를 지나면서 중국공산당이 의도하는바가 서방세계의 인식과 심각히 다르다는 인식이 대중화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공조협력의 유희한 얼굴을 내세우지만 중국공산당의 진정한 목적은 패권전쟁의 승리, 중국식 국가발전양식의 세계화, 자본주의 세계시장의 멸망, 민주주의/자유주의를 반대하는 중국식 공산주의의 확산에 있다는 것이다. 2016년 트럼프의 집권이래 미국의 대중정책은 180도 전환을 하고 있다. 동반자가 아닌 경쟁자, 지구촌의 이웃으로 더불어 공존

할 수없는 주적으로 중국을 다른 시각에서 보게된 미국인들의 수요가 늘면서 미정부의 정책으로 실현되고 있는것이다. 1914-18년 1차세계대전은 1,300백만의 인명을 앗아갔고, 1939-1945년 2차세계대전에서는 무려 8천5백만의 인명을, 포함 1억의 인명을 앗아가고, 생존자들에게 헤아릴수 없는 손실과 고통을 안겨주었다. 끔찍했던 두번 세계전쟁을 반세기에 치른 세계가 무엇보다 원한 것은 이같은 전쟁이 다시 없어야 하겠다는 것이었다. 이같은 세계적 부름에 응답하여 생겨난 것이 UN, WTO, IMF 등의 세계적 국제기구들과 냉전기간 지역성호를 위해 태어난 NATO, EU, ASIAN, US-ROK Alliance 등이며, 생산/분배/소비과정에서

대통령은 누구 일까? 트럼프vs바이든, 공화당vs민주당 둘중에 어느 편을 미국표심들이 선호할까? 나는 한미동맹을 견고하게 유지, 발전시킬 사람이 미국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다. 나는 한미동맹을 지켜줄 미국지도자를 지지한다. 그사람은 중국과의 대결에서 승리할 인물이라는 것이 나의 견해이다. 근래 수년간 미국인들은 중국과 중국공산당과 시진핑에 대해 많이 배우게 되었고, 결과는 심한 反中輿論, 反共産黨輿論의 등장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인들도 중국과의 경쟁/전쟁/갈등에서 미국에 승리를 가져와 대통령을 원할 것이라고 나는 본다. 이 면에서 트럼프는 바이든을 이긴다. 바이든 지지자들 중에도 이면에서 트럼프가 바이든과의 경쟁에서 전략적 강점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한다. 反中/反共産黨 輿論을 시작한 사람이 트럼프였고, 대통령이 되기 10여년 전부터 중국을 경계하는 발언을 수차례 해 온 전력도 있다. 특히 Huawei 죽이기, 미 대학 중국 유학생정책, 관세부과등으로 반중정책은 이론단계를 넘어 실천행동단계 까지 구체적으로 행정집행을 해온 사람도 트럼프다. 상반되게 바이든의 대중국견해들에 석연치 못한 면이 많고 그아들 Hunter Biden의 수백만달러 수령의혹등으로 대중국공산당, 시진핑과의 대결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잘 해낼지 의문이 가지지 않고 있는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좌파진영이나 중도진영이나, 심지어 공화당 내부에서도 존재하는 Anti-Trump sentiment의 심도를 무시할 수 없다. 트럼프는 막말을 잘 하고, 자기자랑을 너무 많이 하고,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에 무례한 욕설까지한다. 9/29일에 있었던 바이든과의 논쟁에서도, 합의한 절차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인신공격적인 말을 퍼부었다. 미국대통령들이 지금까지 거의 예외없이 보여준 신사적 언행, 관대한 태도들을 제쳐놓고, 조폭대장같은 마구잡이로 보일때가 있고 특히 많은 여성들은 트럼프가 남존여비의 편견에 젖은 사람으로 본다. 트럼프가 재선되면 미국의 민주주의 전통엔 심각한 손상이 있을것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이다. 거짓말 잘하는 비도덕적, 비신사적 트럼프를 미워하는 사람들과 strong anti-Communist로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과의 싸움으로 대선의 성격이 기술할 수 있다. 이 선거는 바이든을 미워하는 사람들과 좋아하는 사람들의간의 경쟁이 아니다. 선거의 초점은 트럼프이다. COVID-19 위기속에서 중국공산당의 위협을 두려워하는 보통 미국인들의 표심이 어디로 가겠는가? 트럼프 쪽으로 갈 것이다. 이것이 나의 답이다.

President Trump와 President Biden을 비교해 보자. 미국의 민주/공화 양당은 대한반도정책은 거의 대동소이하다. 다행이다. 양당의 지도자들은 한결같이 한강의 기적을 찬양하고,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북한의 핵무기개발과 혹독한 인권상황을 개탄해 왔다. 그러나 두 사람 사이에, 두 정당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미국편에서 보면, 한반도상황은 보다 커다란 지정학적자원에서 볼 수밖에 없다. 한반도 정책은 대중정책의 일환이라는 것이다. 중국공산당과의 대결을 미국의 승리로 이끌

미국인들은 중국과 중국공산당과 시진핑에 대해 많이 배우게 되었고, 결과는 심한 反中輿論, 反共産黨輿論의 등장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인들도 중국과의 경쟁/전쟁/갈등에서 미국에 승리를 가져와 대통령을 원할 것이라고 나는 본다. 이 면에서 트럼프는 바이든을 이긴다. 바이든 지지자들 중에도 이면에서 트럼프가 바이든과의 경쟁에서 전략적 강점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한다. 反中/反共産黨 輿論을 시작한 사람이 트럼프였고, 대통령이 되기 10여년 전부터 중국을 경계하는 발언을 수차례 해 온 전력도 있다. 특히 Huawei 죽이기, 미 대학 중국 유학생정책, 관세부과등으로 반중정책은 이론단계를 넘어 실천행동단계 까지 구체적으로 행정집행을 해온 사람도 트럼프다. 상반되게 바이든의 대중국견해들에 석연치 못한 면이 많고 그아들 Hunter Biden의 수백만달러 수령의혹등으로 대중국공산당, 시진핑과의 대결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잘 해낼지 의문이 가지지 않고 있는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좌파진영이나 중도진영이나, 심지어 공화당 내부에서도 존재하는 Anti-Trump sentiment의 심도를 무시할 수 없다. 트럼프는 막말을 잘 하고, 자기자랑을 너무 많이 하고,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에 무례한 욕설까지한다. 9/29일에 있었던 바이든과의 논쟁에서도, 합의한 절차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인신공격적인 말을 퍼부었다. 미국대통령들이 지금까지 거의 예외없이 보여준 신사적 언행, 관대한 태도들을 제쳐놓고, 조폭대장같은 마구잡이로 보일때가 있고 특히 많은 여성들은 트럼프가 남존여비의 편견에 젖은 사람으로 본다. 트럼프가 재선되면 미국의 민주주의 전통엔 심각한 손상이 있을것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이다. 거짓말 잘하는 비도덕적, 비신사적 트럼프를 미워하는 사람들과 strong anti-Communist로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과의 싸움으로 대선의 성격이 기술할 수 있다. 이 선거는 바이든을 미워하는 사람들과 좋아하는 사람들의간의 경쟁이 아니다. 선거의 초점은 트럼프이다. COVID-19 위기속에서 중국공산당의 위협을 두려워하는 보통 미국인들의 표심이 어디로 가겠는가? 트럼프 쪽으로 갈 것이다. 이것이 나의 답이다.

내 능력으로 읽을수 있는 민심과 당선/낙선의 예측을 두고 글로 써본 의견이다. 그러나 앞날에 누가 어떤 정책을 펴갈 것이며, 한반도의 장래에 어떤 여파를 끼칠지에 간접적이거나 언급한것으로 치부하며, 독자들의 비판이나 수정/향상의 제안을 환영한다.

2020 미국의 선택 - 한반도의 미래

미 대선과 한국의 지정학 외교의 위치



김해암(의대 53)

미국의 정치제도와 지정학적 역할이 큰 시련을 겪고 있다. 그 이유는 단순히 노널드 트럼프라는 대통령의 인물 때문이라기 보다는 미국의 정치풍토가 달라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정답이라리라. 미국의 양당정치의 시련이라기 보다는 미국인 전체의 정치 풍토가 달라졌다. 미국인의 정치참여는 1990년대 까지도 미온적이고 "누가되나 대차 없다" 는 태도로 투표율이 60% 정도로 일관되었다. 그 이유는 미 합중국이라는 정치체제가 세습적으로 영국이 선도하는 앵그로 색슨 지파의 구라파인이 아니면 출마할 엄두도 못 내던 세대였다. 특히 20세기 초, 루즈벨트 대통령의 제국주의적 국력의 팽창에서 2차 대전의 승리로 전쟁의 피해를 입지 않고 세계경제 회복의 이권을 홀로 담당할 미국은 경제의 무한정예 가까운 발전을 거듭 하였다. 이렇게 부강해진 미국을 군사적으로 초강대국으로 발돋움 시켜준 것이 한국동란이었다. 핵탄두 경쟁과 더불어 군비생산과 무기판매로 미국은 소련과의 냉전에서 고심하자 미국의 정치는 민주화의 최성기에 다다랐다. 그것이 존 F. 케네디의 대통령 선출이었다. 미국민은 열광했다. 앵그로 영국계가 아닌 구라파 소수국인 애런게 이민자가 영도자로 선출 되었으니 정치 풍토가 바뀐 것이다. 케네디 이후 양당의원 뿐 아니라 지지자들도 이테리, 파란 계통인들이 나오게 되었다. 이런 정치풍토와 함께 문화적 자유분방한 반문화 풍토, 히피사상이 미국을 휩쓸면서 미국민은 정치를 하고 싶어하는 자들에게 맡기고 자본주의 사회의 단일한 자본주의 사회구조를 이루어갔다. 결국에는 흑인계 출신 오바마가 두번 대선을 승리하자 미국민의 정치참여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다. 그 결과가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이다. 지금이야말로 한국 외교가 성패를 다루는 기회가 아닐까, 보다 중원하면서 정보 수

한 지배를 받으면서 경제발전을 자력으로 해내며 북한을 앞질러 경제발전을 이루어 관을 풀어놓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한국은 언제나 불안한 상태를 거듭해 왔고 북한의 핵무기 생산을 계기로 남한도 핵보유국으로 되려는 야욕은 미국의 단호한 제재로 막히지 만 강력한 군사국가로 성장해 왔다. 그러면 한국의 힘이 연합했던 때의 한미 동맹은 무난했으니, 자립한 강대국으로써의 한국의 외교는 고난을 거듭해 왔다고 본다. 북한을 비핵화 하는데 점진적 역할을 시

집과 미국 양당지도자들의 의견, 조인 등을 구하며 정치자금도 양당에 내며 외교관을 풀어놓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시기가 늦은감이 없지 않으나 지금이라도 적극 미국정치 뿐 아니라, 일본, 중국의 생산을 계기로 남한도 핵보유국으로 되려는 야욕은 미국의 단호한 제재로 막히지 만 강력한 군사국가로 성장해 왔다. 그러면 한국의 힘이 연합했던 때의 한미 동맹은 무난했으니, 자립한 강대국으로써의 한국의 외교는 고난을 거듭해 왔다고 본다. 북한을 비핵화 하는데 점진적 역할을 시

5. 남북한의 문제는 남북간의 문제를 지양하거나 뒤로 미루더라도 극동 경제개발의 문제, 시베리아의 개발 등을 들고 나와 남국을 타개하는데 역점을 준다. 6. 러시아는 절대로 중국과 일본을 시베리아 개발에 참여시키지 않는다. 러시아는 북한 보다도 남한을 사용하는 것이 지정학적으로 이익일 뿐 아니라, 일본과 중국의 팽창을 우려 할 필요가 없다. 7. 남한은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으며 제안한 TEIN (Trans Eurasian Information Network) 제안을 동원하여 시진핑 주석이 추가로 주장하는 "일로일대"의 정책을 다음 조치로 대치한다. 8. 러시아-극동 시베리아 철도를 부산까지 확대한다. 9. 일본의 북한에 대한 배상 문제를 해결하는 중계역할을 남한이 해낸다. 10. 미국에 대한 남한의 친척적 외교는 중국을 견제 하려 말고 우호국인 남한을 강대국으로 적극 지원하고 대 북한 정책을 리드하게 하여 중국과의 충돌을 피하게 한다. 남한의 새로운 외교의 국면을 본다면, 1. 남한은 현재 당면한 하늘이 준 지정학적 유리성을 충분히 이차하고 발전시켜야한다. 2. 북한에 대한 약속에 가까웠던 회유책, 경제 발전과 철도 시설등을 비핵화 전에 시도 하도록 미국을 설득 해야한다. 3. 미국이 남한을 통하여 러시아와 일본을 경제적으로 통합하는 대 중국 정책을 펴 내가도록 리드한다. 4. 중국과의 문제를 내 놓고 미국과 타협 하여 미국이 북한을 개발하는것이 비핵화 보다 더 효과적인 대 중국정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 해본다. 5. 남한은 미국선거의 결과를 제쳐 놓고 자신감을 가지고 어떤정부가 미국에 들어서든 남한을 중요하라는 제안을 계속 연발하고 미국의 여론을 남한에 끌여 오도록 선동한다.

문재인 정권 외교정책의 발전, 지금이 기회
대세에 치우치지 말고 냉정한 외교 펼쳐야
미 선거결과를 떠나 미 여론을 끌어들이야

작한 문재인 정권은 놀라운 공지로 일본과의 외교대립을 견지하면서 중국의 시진핑 정권과도 성패를 다루는 외교를 전개해오고 있다. 미국과의 군사적준도를 지양하면서 무기구매로 미군지원 비용을 대치하려하나 미국의 의도는 외교적 교섭 보다는 종래의 지도적 의존 체제를 유지하자 는 일방적 압력이 크지만 한국의 외교 능력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고 본다. 문제는 현 미국정부의 주요 인사들의 정치성을 잘 파악해야할 것이다. 폼페오 국무장관의 힘으로 내오는 외교와 역사는 승리자의 기록으로 일관한다고 보는 윌리엄 바 법무장관을 비롯한 정부와 국회 양당 지도자들의 갈등을 방관하지말고 적극 선도적으로 포착하며 대세에 치우치지 않고 냉정한 외교를 벌려야 한다고 본다. 지금이야말로 한국 외교가 성패를 다루는 기회가 아닐까, 보다 중원하면서 정보 수

국인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고 못하는 것을 일 삼는 것을 지양하고 어떻게 하면 좋은가를 적극논의하고 논쟁해야한다. 한국의 당면한 외교 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룬다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해야 하지 않을까 사료된다. 1.21세기의 외교는 트럼프 미 대통령의 비밀위주의 외교에서 베일을 제치고 재빨리 다른 스타일을 염두에 두고 생각해보자. 2. Kissinger's shuttle diplomacy나 Jim Baker's secret negotiations식의 외교를 twitter 등을 통한 방법을 도입한다. 3. 동북아시아 극동 문제를 한반도를 둘러싼 3대국의 이해관계를 최대한으로 넓히는 방도를 고안하고 제시 할 수 있는 정부는 남한 뿐임을 알리자. 4. 남한과 북한만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지원할 수 있는 각종 언어를(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일본어) 자유롭게 구사 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이 있다.

미주동창회 회보 편집 규정

- 본 회보에 게재된 모든 기고문은 회보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투고된 글의 게재 여부는 편집회의 등을 통하여 결정됩니다.

SNU Alumni Association USA

158-14 Northern Blvd. 2nd Floor, Suite UL-2, Flushing, NY 11358

Tel: 718-463-3131 / Fax: 718-463-6789 / news@snuaa.org

동 . 창 . 회 . 비
온라인납부방법
우측의 QR code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하기환 동문 ‘국민훈장 무궁화장’ 수상

<공대 66>

14회 세계한인의 날 유공자 포상... 한인사회 발전·한인지원 공로 인정

올해로 14회째를 맞는 세계 한인의 날(10월 5일) 기념 유공자에 LA한인상공회의소 회장을 역임한 하기환(공대 66) 이사가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았다.

대한민국 상훈은 훈장과 포장으로 결정되며, 훈장에는 12가지 종류로 구분된다. 그 가운데, 국민훈장은 정치·경제·사회·교육·학술 분야 유공자에게 포상하게 되는데 모두 5등급으로 나뉜다.

가장 높은 등급인 무궁화장(1등급)에 이어 모란장(2등급), 동백장(3등급), 목련장(4등급), 석류장(5등급) 순이다. 이어 국민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이 있다.

하기환 회장은 지난 31년간 LA한인상공회의소 회장, 한인회 회장, 월셔센터 코리아타운 주민의회 의장 등을 역임하면서 한인 동포 사회 발전과 위상 제고에 공헌했으며, 1992년 LA폭동 당시 피해 한인들을 위한 지원 활동, 그리고 한인 노인 커뮤니티센터 신축 지원 노력 등이 공적으로 인정됐다.

하기환 회장은 “한국 정부로부터 기대하지 못했던 훈장을 받게 돼 감사하기도 하지만 그만큼 책임감 또한 느끼고 있다”며 “은퇴할 나이에 이러한 훈장을 받게 되니 더 국가와 한인사회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생각에 격정도 된다”고 밝혔다. 또한, “개인적

으로 훈장을 받게 돼 영광이고 앞으로도 한국과 한인 동포사회의 가교 역할은 물론 동포사회의 발전을 위해 기여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서울대 미주동창회의 중신이사이기도 한 하기환 동문은 66년 서울 공대 전기공학 학사를 졸업 후 위스콘신대 전기공학 석사, UCLA 전기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한국 부동산 관리회사 대표 겸 한남체인 대표로 활동 중이다. 한남체인은 연매출 1억달러 이상 한국 1차 산업의 미주지역 수출전진 기지로 자리매김하며 경제계 및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LA중앙은행 창립 이사, LA새한은행 창립이사, 휴즈 에어 크레프트 EDD Division 수석 연구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인 올림픽 라이온스 클럽 이사, LA 한인상공회

의소 회장(현 이사)을 맡아 다양한 사회활동에도 적극 참여했다. 이외에도 남가주 한인 경제 단체장 협의회장, LA 19분야 한인 경제 단체 협의회 총회장으로서 한인사회의 발전, 경제 및 사회적 이슈에 관하여 미 주류 사회에 한인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이 기구를 통하여 한인 전체 비즈니스의 활성화를 도모했다. LA 한인회 회장, 노인센터 이사장, 미 주한인상공인총연합회 총회장, 민족 화해협력(민화협) LA협의회 대표상임 의장 등도 역임했다.

필하모니아 보스턴 챔버오케스트라

음대 동문 합작 영상연주 ‘고향생각’ 발표



장수인(음대 76)

‘고향생각(Nostalgia)’이란 타이틀로 포스팅한 이번 영상연주회는 제작, 작곡, 연주까지 100% 서울대동문들이 합작으로 만들어진 영상음악회이다.

바이올린 김현정(음02), 이해민(음08), 비올

라 권오현(음12), 첼로 조재형(음02), 피아노 김정림(음03)으로 구성된 5중주단이 ‘아리랑랩소디’와 ‘고향의 봄’을 소개했다.

단원들은 한국방문중에 모여 이번 연주회를 녹음해 최고의 음향으로 아리랑과 고향의 봄을 선사한다. 아리랑랩소디는 현대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 영화음악감독으로 거울연가, 실미도, 올드보이 등 수많은 영화음악 OST를 만들어낸 이지수교수(서울대 작곡과)의 작품으로 아리랑랩소디를 통해서 밀양아리랑이 새롭게 재구성되어 더욱 풍요롭고 화려하며 세련된 분위기를 구현하였다.

작곡가 이지수교수에 따르면 아리랑 랩소디는 전통 아리랑의 변화 가능성을 최대한

시도한 작품으로 한국전통리듬과 서양음악의 다양한 화음진행이 최대한 조화롭게 어우러진 현대판 아리랑의 재현이라 볼 수 있

는 흥미로운 곡이다. 깊어가는 가을과 함께 고향의 음악으로 가을정취를 음미한다.



<아리랑랩소디>와 <고향의 봄>을 연주한 5중주단.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부고/ **고안선미** 동문(농대 65)

2020년 10월 6일, 하늘이 너무나 청명한 초가을에 맑은 하늘처럼 사셨던 사랑하는 안선미(농대 65) 동문이 향년 73세의 나이로 소천하셨습니다.

고안선미 동문은 1965년 서울대학교 농가정학과에 입학, 1967년에 농화학 과로 전공을 바꿨다. 이후, 미국으로 건너와 두 개의 석사 학위를 받고 FDA에서 25년 넘게 근무하다 불과 5-6년 전에 은퇴했다. 슬하에 따님이 한 분 계신데, 그 따님이 아주 어릴 때 안선미 동문이 혼자 되어 어렵게 공부하면서 또 일하면서 single mom으로서 따님을 아주 훌륭하게 잘 키워냈다. 안선미 동문의 따님은 Columbia University에서 학부를 마치고 같은 대학 법대를 졸업한 후 유명 law firm에서 partner로 재직하다가 지금은 로이터 통신의 편집장으로 일하고 있다. 안선미 동문은 서울대 워싱턴 동문회 회장을 역임하면서 ‘사로수’ 모임을 창설하는 등 동문회 성장의 초석을 마련하였고, 그 이외에도 장학회를 비롯한 몇몇 단체에 아끼지 않은 후원으로 큰 공헌이 있었음은 많은 동문들이 기억하고 있다. 은퇴 후의 많은 시간은 사랑하는 손녀와 보내셨는데, 손녀의 작별 인사를 들으며 30분 후에 평안히 눈을 감으셨다고 한다.

언제나 솔선수범해서 동문회와 주변 사람들을 도왔고, 부당한 일을 맞아서 대를 졸업한 후 유명 law firm에서 partner로 재직하다가 지금은 로이터 통신의 편집장으로 일하고 있다. 안선미 동문은 서울대 워싱턴 동문회

각분야전문가초청 ‘온라인세미나’

미네소타 지부, 9월 용정식 교수·10월 이종욱 박사 강연



용정식(농화학 86)



이종욱(인류 99)

미네소타 지부는 코비드 사태를 극복하고 동문 모임을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Zoom 화상회의를 활용한 Virtual Seminar를 통해 동문들과 많은 공감을 할수 있는 기회를 계속 마련하기로 했다.

Virtual Seminar는 매달 1회 실시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미네소타지부 동문들 중에서, 연구결과 및 논문 발표 등의 내용에 대하여 모든 동문 및 가족 지인들과 함께 우선 공유하여 차후 외부 연사 추천을 통해 발표 주

제 분야를 계속 확대해 나가는 것을 추진 중이다. 미네소타 주립대학의 용정식 교수가 지난 9월 “팬데믹: 끝이 보이지 않는 싸움”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는 것을 시작으로 10월에는 하버드 대학 연구원으로 활동중인 이종욱 박사가 “저소득 국가 소외 계층의 보건과 교육”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였다.

용정식 교수의 “팬데믹: 끝이 보이지 않는 싸움” 강연은 코비드 바이러스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향후 백신 개발 방향등의 추이를 발표하여 많은 참가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10월 강연자 이종욱 박사는 베트남과 말라위 등을 방문하면서 “저소득 국가 소외 계층의 보건과 교육”에 대한 연구한 논문과 그동안 직접 체험하면서 분석한 자료들을 발표하여 많은 참석자들로 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11월에는 미네소타 주립대 연구원으로 활동중인 김동관 박사의 “Algebraic Combinatorics and its Applications”를 주제로 강연이 계획 되어 있으며, 명년 1월에는 뉴욕 주립대의 박현아 교수가 Analyzing Stocks in the Digital Economy” 주제로 강연이 계획 되어 있다. 관심 있으신 모든 동문 들의 참여를 바란다.

<기사제공=미네소타 동창회>



새로 제작한 필라델피아 동창회기와 함께한 임원들.

필라델피아 지부 임원회의 개최

연말파티·주소록 업데이트 등 논의

필라델피아 동문회 임원 8명이 지난 10월 16일(금) 식당 두부두부에서 모였다. 코비드-19 팬데믹으로 마스크를 얼굴에 걸치고 식당에 들어서는 모습들이 낯설었다. 그러나 조금 지나자 모두 얼굴가림을 떼어내고 메뉴에서 음식을 고르느라 마스크를 벗으니, 다시 옛날로 돌아가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바꿨다. 이 날의 주요 안건은 연말 파티 모임과 회원 주소록 Up-date 그리고 동창회기 선보이기로 압축되었다.

1. 연말 파티
코비드-19과 더불어 플루가 엄습함에 일단 연말파티는 연기하기로 했다. 내년 4, 5월경 다시모여 일정을 결정한다.

2. 회원 주소록
손재욱 전 회장이 만들어준 주소록을 다시 Up-date한다. 각 임원들은 담당 동문 동향을 조사하여 11월 19일(목) 손재욱 회장이 일하는 Vision Center에 모여서 목록을 통합, 완성한다.

3. 동창회기
필라 동창회는 매년 회장이 바뀔 때마다 ‘신구회장 동창회기 전달식’ 사진을 찍어 필라 로컬 신문에 기사화 해왔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전통이 사라지고 말았다. 이에 민홍식 전 회장의 기부로 새로운 기를 제작했다. 이에 더하여 ‘근조기도 함께 제작, 회원 유고식 화환비를 절약하게 되었다.

<기사제공=필라델피아 동창회>

서울 동창회 소식 |

‘홈커밍데이’ 동문 영상공모

41차 행사, 비대면형식 온라인 진행

올해 41번째를 맞이하는 홈커밍데이 기념행사는, 코로나 19로 인해 예년처럼 모교 캠퍼스에서 동문들이 모일 수 없어, 비대면형식의 온라인행사로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서울대에서는 다양한 순서를 계획중이니 미주동문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행사안내】
 ■ 일 시 : 2020년 11월 2일(월) (상영시간 추후 공지)
 ■ 방송채널 : 총동창회 홈페이지 및 유튜브 채널 * www.youtube.com에서 '서울대학교총동창회' 검색
 ■ 행사내용 : 모교 및 총동창회 현황 보

고, 동문 축하 메시지 및 재능기부 영상, 축하공연, 행운권 추첨 등
 ▶ 동문들이 직접 촬영한 영상 공모.
 ① 입학 또는 졸업 2030405060주년 맞은 동문님의 소감 1분 내외 영상
 ② 모교 또는 동창회에 대한 제언 등의 1분 내외 영상
 ③ 자랑하고 싶은 본인의 재능(노래, 악기연주, 시낭송 등) 3분 내외 영상
 - 응모기간 : 2020년 10월 16일(금)까지
 - 응모방법 : 촬영한 영상을 webmaster@snuu.or.kr로 보내주세요. (이름, 단과대학, 입학연도, 휴대전화번호 표기)
 * 영상이 채택된 동문에게는 개별연락 드리고, 소정의 기념품을 보내 드립니다.

www.snuuaa.org

서울대학교 미주 동창회 차차기 회장 후보추천 공고

제17대 (2023. 7. 1. - 2025. 6. 30) 회장 후보

서울대 미주 동창회는 미주 사회에서 활동하는 동문 회원중 미주 동창회와 모교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실 차차기회장(제 17대 미주 동창 회장: 2023. 7. 1. - 2025. 6. 30.) 후보자 추천을 서울대 미주 동창회 정관 및 인선 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미주 동창회와 모교 발전을 위한 훌륭한 후보를 2020년 12월 31일 까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직전 회장, 현회장, 차기 회장 지역은 제외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접수마감

인선 위원

위원장: 윤상래 978-386-5510	신응남 회장 646-523-9606	노명호 차기회장 626-991-4457
이용락 (시카고)	황호숙 (미네소타)	손재욱 (필라)
		정평희 (워싱턴D.C.)

제 17대 회장 (2023. 7. 1 - 2025. 6. 30) 선거 일정 및 근거규정

선거일정

2020. 12월 31일: 차차기회장추천서 접수마감
- 인선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후보는 회보 등을 통하여 출마공약을 발표
- 2021년 6월: 전국 평의원 회의(정기 총회)에서 투표로 차차기 회장 확정.

근거규정

- 근거규정: 서울대 미주 동창회 정관 및 인선 위원회 규정
- 차차기 회장 후보는 서울대 미주 지역 동창회장을 역임 했거나 동창회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여준 동문 가운데 적임자라고 판단되는 회원으로 한다.

황성주 목사, 뉴욕 할렐루야대회 참석

세미나 초청 강연

뉴욕교협이 주최하는 2020 할렐루야뉴욕 복음화대회에 황성주 목사(의대 77)가 세미나 강사로 초청, '코로나 19와 예배에 관한 강연'을 전했다. 9월 18일부터 사흘간 뉴욕 프라미스교회에서 개최된 이 대회는 뉴욕교협의 최대 연례행사로 지난 40년간 한 번도 빠짐없이 지속되었다. 이 대회에 첫날 저녁강사인 황성주 목사는 이번 집회와 세미나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예배 변화에 주목"해 메시지를 전했다. 전통만 부여잡고 있다는 모든 것 잃을 수 있다며 특히 '의식예배'에서 '삶의 예배'로의 변화를 강조하고 모임들을 소그룹

공동체로 대체하며 성도 각자 '만인 선교사'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언급했다. 또한 디지털스마트 사역으로의 전환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황 목사는 "코로나19를 통해 창조적 사역과 위대한 선교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하나님의 거대한 파도가 파상적으로 지구촌을 뒤흔들고 있다. 중국과 이란, 유럽 전역, 미국, 그리고 중동과 인도권, 중남미를 흔들고 있다. 선교의 문이 열리고 있다"며 "신속한 세계복음화와 하나님나라 완성을 기도한다. 모든 상황을 주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절대 감사하자"고 전했다. 특별히 20일 그레잇넥 교회에서 설교한 황



뉴욕 그레잇넥 교회에서 신영남 미주동창회 회장부가 9월 20일 동교회를 방문한 황성주 목사(가운데)를 다시 만나 반갑게 환영의 인사를 나눴다.

목사는 이 교회에서 장로를 맡고 있는 신영남 미주동창 회장과 만남의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황 목사는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서울대 병원에서 전공의 과정을 수료해 전문의를 취득했으며, 독일 프리덴바일러 암 전문 병

원에서 통합의학과 전인치료의학을 공부했다. 독일에서 시행되던 자연면역요법인 미술요법을 한국에 최초로 도입했다. 이후 지난 22년 동안 현대의학과 면역요법의 강점을 결합한 통합면역치료의학 분야를 개척하여 수만 명의 암환자에게 통합의학적 치료를 시행했다.



연례 장학기금 모금 골프대회

뉴욕동창회 추계골프대회 개최... 미주동창회 장학기금 전달

뉴욕지역 동창회 (회장 조상근)는 10월 7일 (수요일) New Jersey주 Pompton Plains에 위치한 골프장 Sunset Valley Golf Club에서 추계골프대회를 개최하였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동창회 활동이 다소 위축이 되었지만 이번 대회를 계기로 다시 힘을 모아서 서로를 격려하고 아우르는 계기가 되었다. 모두 25명이 참석한 이 모임에서는 사회적거리와 마스크 착용등의 지침을 잘 지켜서 시중 회기에애한 가운데 모

처럼 모인 동문들만의 즐거운 시간이 되었다. 켈러웨이 방식으로 진행된 이 대회에서는 Champion에 김태일 (공대), 1등 박준구(문리) 2등 조승자 (가죽), 3등에 임도혁 (공대)그리고 Medalist에 최병우(공대)등이 수상하였다. Closest는 2홀에서 시상했는데 조달훈(사대), 김창수(사대)가 수상했고 장타상은 손대홍(미대)가 수상했다. 이번대회는 봄에 열릴 계획이었던 장학기금 골프대회가 모이지 못한 관계로 장학기

금골프대회를 겸하여 진행되었다. 이날 조상근(법대) \$5000 광선섭(공대) \$200 민준기(공대) \$200 김창수(사대) \$500등의 모금이 있었고 또 이전구 전 회장이 골프공을 1박스 도네이션 했다. 특히 미주동창회 신영남 회장이 직접 시상식에 참여하여 소정의 장학기금을 전달하였다. 뉴욕동창회에서 해마다 연말파티에 동부지역에서 학문에 정진하는 후배동문들을 선정하여 장학금을 수여해 왔다. <기사제공=뉴욕동창회>



미주동창회 신영남 회장(왼쪽)이 조상근 뉴욕 동창회장에게 장학기금을 전달하고 있다.

종신이사추대



최의필(의대 53)

서울 의대 졸업 후 공군 군의관으로 근무 후 제대. 그 후 1962년에 미국 이주 Boston Carney Hospital 에서 수련의 과정을 거쳐 University of Connecticut에서 전문의로 재직했다. 이후 Chicago Cook County 검사실 부검의로 32년을 일하다 은퇴했다. 서울대 독서클럽 멤버로 활동하고 있으며, 시카고 한인문화회관을 지원하고 있다.



추재욱(의대 57)

63년 서울의대 졸업후 월남전 참전, 67년 해군군의관 대위로 제대했다. 이후 도미하여 New York University Medica Center 조교수 역임(마취학)했으며 Cabrini Medical Center Attending Physician, Gracie Square Hospital 마취과장, N.Y.U. Medical Center, Attending Physician으로 일했다. 이 외에 NY 한국학교 이사장, NY 한인 의사회, 전미주 한인 의사 회장, 서울대학교 동창회 이사장, NY, NJ 한인회 이사 등 다양한 사회활동을 해왔다.



고애자(음대 57)

61년 서울 음대 졸업후 64년에 Columbia University teachers college 에서 Music Education 으로 입학했으나 학비 관계로 Queens College로 옮겼다. 이후 의대58 졸업생 이운순 동문을 만나 결혼했다. 이후 Our town Elementary school music department의 책임자로 활동했다.

미주동창회 재정자립 3백만불 모금 캠페인 Century Foundation

종신이사 참여 릴레이 전개

“다함께 힘을 모아주십시오”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에서는 재정 자립을 위한 3백만불 모금 캠페인 'Century Foundation'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미주동창회에서는 기금 마련을 위해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기금 관리 위원회'를 발족하고 올해 29차 평의원회의를 통해 손재욱 기금 관리위원장을 추대했습니다. 현재까지 참여해 주신 95명의 종신이사님들께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시고 협조해주신 동문들의 힘으로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는 굳건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짊어질 새로운 인재들이 동참하고 있으며, 이들은 지역과 커뮤니티 그리고 미국과 한국을 통해 큰 영향력을 갖게될 것입니다. 유지 보수를 위한 모금 캠페인을 넘어서 세대와 민족을 잇는 인재들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2만여 서울대 미주동문 여러분, 시대적인 사명을 가진 지성인으로서 이 땅에 뿌리내린 삶의 선배로서 함께 뜻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금년 10월부터 미주동창회 사무실이 소재하는 뉴욕을 중심으로 종신이사 참여 릴레이 운동을 전개합니다. 괄목할 만한 성과를 기대하며 동문여러분의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김동석 전 교수 '한국음악' 강연

남가주 동창회 온라인 세미나

지난 9월 25일 남가주 총동창회(회장: 민일기, 약대 69)에서는 온라인 강연을 개최했다. Zoom을 통한 이 행사는 올 들어 다섯번째 행사이다. 김동석(전 남가주 총동창회장, 전 UCLA 음대 민족음악과 교수) 동문을 모시고 "한국음악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영상을 통해 연주 감상과 함께한 이 강연은 한국음악에 관심 있는 동문들 40여명이 참석했다. 강연이 끝난 후에도 김흥묵(문리대 60, 전 서울대 합창단 단장) 동문 등과 질의 응답이 계속되었다.

김동석 동문은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는 '음악'은 서양음악이 아니고 '국악'이 음악이 되고 서양음악은 그냥 '양악' 이라든지 '서양음악'이라고 해야 주체성 있는 말이 된다"며 "우리 음악에는 '정악'과 '민속악' 둘로 나눌 수 있는데 역사적으로 모든 외래음악은 수입한 후 점차적으로 한국화하여 사용하였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음악은 화성이 없는 대신에 선율의 묘미를 최대한 살리고, 전통음악의 합주는 Unison도 아니고 Homophony나 Polyphony도 아닌 여러 개의 악기가 각각의 음색과 시김새의 특성을 살리며 함께 연주하며, 각 악기 들도 종속적이 아닌 독립적이 있으며 수평관계에 있으며 전통음악의 합주는 합주곡 그 자체로도 연주곡목으로 인정 받으며 동시에 한 악기만 떼어 내도 훌륭한 독주곡이 된다"며 "전통음악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느린 음악을 함께 연주하더라도 "수제천" 음악 같이 "집박"이 한번 박을 침으로 음악이 시작 하고 나면 각자가 알아서 최선의 음악을 알아서 만들어 낸다"고 설명했다. 이것은 고도로 숙련된 음악인에 한해서 가능한 합주 형태이며 다시 집박이 세번의 울림으로 음악은 맺는다고 말했다. 김 전 교수는 "이것은 본질을 중시하는 한국사상에 뿌리를 두고 발달해 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음 강연은 10월 30일 7시 반에 김영주(수의대 88) Western University of Health Sciences 교수를 모시고 "애완동물 케어의 유의사항"을 주제로 열린다. <홍선례 문화국장>



김동석(음대 64)



남가주 말수회 동호회 골프대회 말수회 동호회(회장: 한효동, 공대 58)에서는 지난 10월 7일 Santa Anita Country Club에서 골프모임을 시작했다. 코로나 사태로 올 들어 처음 갖는 모임이었다. <홍선례 문화국장>

ACRO 인문산책 김재범 강사 초청 강연

ACRO 인문산책 (회장 김흥묵 사진 · 문리대 60)에서는 지난 9월29일 김재범 강사를 초청해 넓은 동양고전의 인문학을 현대인에게 맞게 강의 하며, Nnconct(비대면)이 일상이 되었지만, 인간의 관계는 Ontact(online contact)을 통해 계속되는 이러한 시대에 인문학은 왜 필요하고, 인문학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함께 논의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김재범 박사는 경북대학교 사회학박사(문학사), 문학석사(종교사회) 및 문학박사(동



Fellow 로 초대되어 2년간 한국 및 동양학 연구하였으며 현재 South Baylor University 한일연구소 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양사회사상사)를 졸업후 국내의 유수한 여러 대학교 강사를 거쳐 1998년 미국 UCB(Univ. of Calif. at Berkeley) 한국학 센터에 연구학자 Research Fellow 로 초대되어 2년간 한국 및 동양학 연구하였으며 현재 South Baylor University 한일연구소 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원고 모집합니다

주제 독자들의 생각과 식견을 넓혀주는 각 분야의 다양한 글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예술, 문학, 철학, 역사, 과학, 의학, 생명과 환경, 여행, 취미 등]
글의 양 500 단어 (글자 수 2,000자) 내의 글, 레터용지 한장 반 이내
사진 고화질로 찍은 필자의 프로필 사진
보내실 곳 원고와 사진은 news@snuua.org 로 보내주십시오.

내가 내는 구독료, 든든히 세워지는 동창회!
SNU Alumni Association USA
158-14 Northern Blvd. 2nd Floor, Suite UL-2, Flushing, NY 11358



이기풍(수의대 50)

작년에 두장의 크리스마스 카드를 받았다. 한 장은 한국에 있을 때 대학에서 가르쳤던 제자가 보내 온 것이었다. 과거 30년 동안 매년 한결같이 사제지간의 정을 잊지 않고 보내오는데 카에는 몸조심 하고 건강하며 행복한 새해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이었다. 그 카드를 받을 때 마다 삶에 보람을 느꼈다.

다른 한 장은 일본 Otsuka Chemical Co 회사에서 내가 기술고문으로 일할 때 New York 지사장으로 같이 일하던 일본 사람이 보내온 것이었다. 은퇴한 후에도 여전히 20년 동안 매년 보내오는 Christmas Card에는 동봉된 편지가 있었다. 그 편지에는 상세하게 소식이 기록되어 있었다. 금년도 편지에는 은퇴 후 특화를 취급 하는 회사에 취직해 새로운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데 좌골 신경통으로 수술을 받았지만 통증이 없어 지지 않아서 고생한다는 것이었다. 그 카드와 편지를 읽을때 마다 친밀한 우정과 인정을 느낀다.

나는 아들은 없고 딸 셋을 가진 딸부자다. 그런데 그 딸들은 모두 카카오로 전자(digital) Christmas Card를 보내 왔다. 큰 딸이 보내온 카드에는 요란한 동영상도 포함되어 있었다. 나는 그 digital Christmas Card를 몹시 싫어한다. 이유는 성의가 없이 쉽게 크리스마스 카드를 컴퓨터로 보낸 것이었고 digital Christmas Card를 봤을때 인간미(인정)를 느끼지 못한다는 점이다.

위에 언급한 두 장의 크리스마스 카드는 보내는 사람이 많은 시간을 써서 친필로 안부를 묻고 새해에 건강하고 행복한 새해를 맞이 하시라는 인사에는 성의가 있으니 인정을 나눌 수 있다.

젊은 세대는 바쁜 세상인데 비현실적으로 옛날 생활 방식을 찬양 한다고 비난을 하겠지만, 그래도 나는 다정한 옛날 크리스마스 카드가 그립고 좋다.

내가 받는 크리스마스 카드는 3 종류가 있다. 첫번째 카드는 거창하게 새해 인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카드에 발송인의 이름이 있지만 sign이 없다. Sign을 할시간이 없이 보낸 무성의 한 카드다. 마치 정치인이 보내는 카드와 비슷하다. 두번째는 새해 간단한 인사가 기록이 되어 있고 발송인 이 이름을 기록하고 sign을 한 것이다. 셋번째 카드는 카드의 여백을 편지로 사용하여 인사와 상세한 소식이 기록되어 있다.

약 5년전 부터 급격히 매년 받는 크리스마스 카드의 수가 감소하였다. 그러면서 내가 구입하는 크리스마스 카드도 감소 되고 3년 전부터 크리스마스 카드를 구입하지 않고

제고로 남아있는 카드를 사용 하고있다. 어떤 크리스마스 카드는 오래전에 쓰다가 남은 것이 되어 골동품이 되어 받는 사람이 좋을 것이라 생각된다. 현재 내손에는 몇 장 안되는 골동품이 된 크리스마스 카드만 있는데 최후의 한장이 될때 까지는 새 Card를 마련 하지 않고 지내려고 한다.

근래 매년 받는 크리스마스 카드의 숫자가 급격히 감소하는 이유 중 하나는 노년화에 수반이 되는 사망자가 급격히 증가 한 탓인 것 같다. 내 나이가 90세를 넘어가니 친하게 지내던 고등학교와 대학교 동창생들 가운데 사망자가 60대로 부터 시작 하더니 70-80

수 처럼 되어가니 세상만사가 순리대로 흘러 가는것 같다.

내가 인공지능지능(AI)을 사용하여 혜택을 받아서 내 인생에 크게 이바지 하여 성공 한 야기를 하고 싶다. 내가 1968년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DuPont 회사의 Haskell 독성평가 연구소에 취직을 하였다. 그 당시 학술잡지에 발표할 논문 원고를 작성 하는데 타자기 (typewriter)를 사용 하였으며 원고를 완성 하는데 5-6 회 수정 하여 완성 하려면 최소 3-4개월이 소요되었다. 수정할 때마다 원고지에 수정한 부위를 표시하고 수정하여 원고지 쪽지를 붙였다. 수정한 원고지는 마

“ 마지막 한장의 크리스마스 카드는 누가 주고 받을런지 모르겠다. 금년 연말에 카드를 받게되면 회답으로 보내는 나의 크리스마스 카드가

마지막 한장이 될지도 모르겠다. ”

대에 급격히 상승하여 90대가 되니 모두 죽고 나 홀로 살아 있다. 보내오던 크리스마스 카드가 단절되지 5-6년이 지난것 같다. 근래 연말이 되면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내오던 친구들 생각이 나면 우울해지고 "인생일장충용" 이란 청춘가 를 부르게 된다. 마지막 한장의 크리스마스 카드는 누가 주고 받을런지 모르겠다. 금년 연말에 크리스마스 카드를 받게되면 회답으로 보내는 나의크리스마스 카드가 마지막 한장이 될지 모르겠다.

일제강점기에는 연말이 되면 인사로 일본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연가장을 보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 있어서 크리스마스 카드는 6.25 전쟁후 기독교가 급격히 전파되고 기독교 신자가 증가 한 후에 사용하게 되었다. 동경제국대학 교수가 연가장에 대한 수필을 읽어서 느끼는 점이 많았다. 그 교수의 부친도 그 학교 교수로 있다가 은퇴를 하였는데 재직 시절에는 매년 연말이 되면 많은 연가장을 받았다고 한다. 그런데 은퇴 후 세월이 흘러 갈수록 연가장의 수가 감소 되고 세상 떠나기 2-3 년전에 연말에 받은 연가장이 몇 장 밖에 안되니 그 연가장을 몇번 끌어내서 반복하여 읽는 부친의 모습을 보니 안타까웠다고 한다. 나도 그 늙은 교

를 받는데 한 페이지 글을 word processor 에 type 한 다음에 copy, past 등등 editing의 강습이 시작 하게 되었다. 비서들은 삼시간에 한 page 글을 type 하였는데 나 혼자 계속 서서히 type을 하고 있으니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나에게 집중되고 내 type 가 끝날때 까지 초조히 기다리고 있으니 민망스럽기 짝이 없었다. 마치 토기와 거북가 경주하는 것과 같았다. 창피를 무릅쓰고 고생하여 습득한 word processor 는 내가 비서로 부터 완전히 해방이 되어 자주독립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비서가 3-4개월 후 겨우 완성 하는 원고 typing 을 나는 2-3 주내 에 word processor 로 typing 이 끝낼수 있었다. word processor 는 나에게는 구세주이며 치열한 생존경쟁에서 승리를 거두는데 쓸모있는 큰 무기로 변했다.

말들이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디지털 크리스마스 카드를 순식간에 전송으로 보내왔으니 성의가 없다고 섭섭하게 생각 한다면 내 잘못 인가. 말들은 세상이 변하는데 옛날 것을 안준다고 투덜대는 보수적 노인이라고 생각 하겠다. 그들은 어릴때부터 아버지는 이조시대 사람이라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비난을 하였다.

어렸을때 우리집에서는 식사 할때 남녀는 따로 밥상을 차리고 식사를 하였다고 하였더니 말들이 아버지를 위하여 dining room 식탁에 밥상을 차려 놓을 태니 혼자 식사 하 시켰나고 반문하였다. 그런데 나는 컴퓨터스크린에 나타난 말들의 디지털 크리스마스 카드를 볼 때 상품 선전하는 광고카드처럼 느껴지고 심리적으로 진짜 정이 통하는 크리스마스 카드로 받아 드리지 못하니 문제인 것 같다.

내가 처음으로 오래전에 인공지능 (AI) service 를 받은것은 1990년도에 구입한 내 고급 자동차에 설치된 GPS였다. 나는 방향감각이 없으니 자동차를 운전하여 시내로 드라이브 하려 몇번 방향을 바꾸면 동서남북의 방향감각이 머리속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만다. 그러니 새로운 목적지를 찾아서 간다는 것은 큰 모험이며 고역이었다. 고인이 된 처는 대도시를 장시간 운전을 함에도 불구하고 방향감각이 유지되니 운전방향을 지시해 주었다.

내가 선천적으로 방향감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것은 광주 보병학교에서 정교로서 독도법 (지도를 읽는 법) 훈련을 받을 때였다. 그 훈련은 나침반과 산악지대 지도 한장을 받고 그 지도에 표시된 지점을 찾아가서 표시판에 이름을 기록 한 후 또 다른 지점을 찾아가는 것이었다. <다음호에 계속>



김원호(약대 63)

/ 전문 칼럼 /

대.재.앙 The Pandemics②

<지난호에 이어서>

FDA의 COVID-19 Vaccine 개발의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질환 예방 효력이 있을 것, 중증 질환 상태 낮춤의 효과 있을 것, 접종자의 50%이상에 효력이 있을 것 등을 요구한다. 따라서 서둘러 개발함이 나중에 뒷발을 감당치 못하면 난감하다는 뜻이다. 대개 다른 질환의 경우를 보더라도 백신 개발에 십년이상 걸렸다는 것은 SARS나 MERS의 백신 개발이 부진한 경향을 보더라도 짐작할 수 있다. FDA의 최우선 기준은 SAFETY and SAFETY이다. 즉 새로운 약이나 백신을 인체에 투여하였을 때 이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하면 허가를 중지시킨다. 따라서 어떻게 하면 '부작용이 없고 효능이 탁월한 신약/백신을 만들 수 있을까'가 FDA의 양심이고 곧 미국의 양심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치료제에 관하여서는 근자에 신약 한개가 시장에 나오려면 10년 동안 약 25억 달러의 자금이 투자되어야 한다. 기존의 항 바이러스 치료약은 차제하고라도 Hydroxy-chloroquine 항 말라리아 약에 관하여 정치적 논란이 이어지는 것은 아플 수 없는 일이다.

우리는 정치인의 국민 건강에 대한 empathy 와 의료인의 히포크라데스적 양심을 기대하며 살고 있다. 과학의 순수성이 정치의 그늘에 가리워 저서는 안될것이다. 필자 개인적 생각으로는 미국 정부산하의 FDA, CDC, NIH등은 아직은 우리가 믿고 우리의 건강을 맡길 수 있는 기관들이라고 생각된다. 물론 정부의 의학연구기관의 수장이 되려면 지대한 연구 경력도 물론이지만 그들 개인적 취향이 administrative work에 맞아야 된다. 그러나 NIH 각 연구분야의 panel들을 보면 매우 학자적 양심에 어긋남이 없이 정직하며 꾸준히 연구에 종사하여 온 사람들이 될 수 있다. 그들의 판단이나 발표가 가정의사 역할을 하는 어느 한 분야 내과 전문 개업의사 신분이나 경험으로 몇 가지 의학잡지 논문을 인용하여 언론을 호도하며 일반 환자들의 판단을 혼돈 시키는 자세와는 차이가 있다고 본다. 가장 좋은 예가 의사 입장에서 의회 앞 피켓 활동으로 말라리아 약을 코로나 치료약으로 허가하라는 이벤트이다. 그들은 자기 임상 경험의 소신으로 코로나 질환 의심 환자에게 특정 약을 처방하여 치유를 도울 수 있을 것이지

만, 중증으로 발전하는 환자의 경과를 호흡기 내과 전문의가 있는 대형 병원 ICU에서의 질환 follow-up 결과와 조처가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바로미터이기 때문이다. 바이러스 전문 연구자들은 코로나 질환의 확산을 미리 예견하였으며, 과학 괴기 영화로 'Outbreak(1995)와 'Contagion (2011)을 Netflix를 통하여 찾아 볼 수 있다. 물론 확산이지만 인류가 자연 재해로 인한 재앙에 충분히 준비하여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 핵관련 사고로는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원전 폭발을 들어 후세를 위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겠다. 기후변화 관련 파리 협정 탈퇴도 역시 후안무치의 정치적 결정이 아니겠나 싶어 걱정된다.

또 한가지 망각하기 쉬운 것이 미세플라스틱 문제이다. 우리들 삶의 주위를 보면 건축자재, 사무용품등에서 음식 포장지까지 어디에도 플라스틱 성분이 없는 곳이 없다. 전 세계 쓰레기 집하장에 쌓이는 막대한 양의 플라스틱 폐품은 어마어마한 양이다. Bubonic plague가 아니라 plastic plague가 옳고 있다. 사람이 죽어 땅에서 썩어 분해되는

것은 매우 총명한 신의 섭리였다. 시체가 썩지 않고 쌓이는 경우를 생각하면 막막하다. 이와같이 플라스틱 물질들이 썩지 않고 쌓여지기만 하면 우리 후손들에게 또 하나의 재앙을 몰려 줄 것은 틀림없다. 따라서 식품 포장 재료등으로 쓰이는 PVC나 PE 제품들을 생분해성 물질로 대체하고자 함은 매우 바람직한 예방책이다. 캘리포니아에서는 2032년까지 모든 플라스틱 포장재는 75%가 재활용 또는 퇴비로써의 사용이 가능하여야 한다는 법을 입안하고 있다. 자동차 타이어는 대개 육탄 마일을 사용하고 나면 달아서 새 것으로 갈아 끼우게 된다. 사용한 한 타이어는 마모된 만큼의 중량이 덜 나가며 없어진 만큼의 합성 고무 성분은 미세 입자로써 우리 주위의 어디언가로 옮겨지게 된다. 연구자들에 의하면 합성 폴리머의 미세 입자들이 북극/남극이나 알프스 또는 미 서부 옐로스톤 지역에서도 검출이 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생태계 연구자들에 의하면 이러한 microplastics의 정확한 근원을 알기 어렵고 이 분야 지식이 아직 미진하여 더욱 미래에의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서울대 미주동창회 2020 스페셜 이벤트

나의 2020년 / 우리의 2021년

올 한해는 2020이라는 숫자만큼 뭔가 특별한 한해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Covid-19으로 인해 한번도 겪어보지 못한 삶의 변화에 많은 혼란과 어려움의 날들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과 함께한 시간이 늘어남으로서 가진 작은 행복, 그리고 Covid 환자들을 돌보는 의료진들에게 느낀 감사함 등으로 이 상황을 조금이나마 이겨낼수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2020년이 두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021년은 분명 더 나은 해가 되리라는 믿음으로 Covid-19이 사라지고 모두들 거리두기가 아닌 몸도 마음도 가까워진 거리로 만날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그런의미로 미주 동창회에서는 한 해를 정리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2021년을 다짐하는 동문들의 글을 모아 특별으로 신고자 합니다.

글을 보내주신 동문께는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글의 주제	나의 2020년과 우리의 2021년
글의 양	레터용지 한장 반 이내(11 pt.)
보내실 곳	원고와 사진은 news@snuaa.org 로 보내주시시오
제출기간	2020년 11월 1일~12월 13일

***원고 보내실 분은 미리 연락 부탁드립니다**

***15대 임기 2년간 매달 발행한 동창회보를 모아 2021년 6월 기념집을 발간할 예정입니다. 보내주신 원고 또한 기념집에 실릴 예정이니 많은 동문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 동문시 /

여름날 뒤뜰에서

호미든 손

흙물은 옷자락

늦 여름 뒤뜰

채소밭 꽃밭을 둘러본다



아해 김태형(의대 57)

상당한 채소와 예쁜 꽃들 눈부시다

“열심히 일한 결과지!”

대견해 중얼거려 본다

그새 내 맘 읽었는지 식물들이 저마다 토를 단다

“저 혼자 키웠나?”

비바람 햇빛이 키워 주었지

벌 나비들 노고는 어찌고?

해충을 잡아준 무당벌레와

토양을 살찌준 지렁이도 있는데”

이때 광! 소리치며 나타난 빅뱅할아버지

“요것들아, 태초에 터를 잡아준 건 나야!”

먼 하늘 은하수 별들도

먹구름 속 천둥 번개도

시인이 노래한 소쩍새 울음까지도

우주 만물은 한 가족,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 동문시 /

오라, 마돈니여

태양이 지평선에 머리 내밀면

햇빛은 부드럽게 나무잎 타고 흐르고

숲이 온통 초록으로 빛날 때

옷자락을 너울처럼 출렁이며

멀리 참나무 그늘 속으로

사라지는 그대의 뒷 모습을 보았네

새로 차린 마을에 허접한 풍습

차마 견디지 못하고

숲속에 몸을 감추었는가?

이제 여름이 다 가기전

입을 가렸던 굴종과 외식(外飾)

겉에 질린 마스크는 던져 버리고

거짓과 망상(妄想)의 붉은 바이러스 몰아내고

그대는 그 찬란한 새벽에

보석처럼 빛나는

햇살 가득한 오솔길 따라

다시 내게 오리라

마돈니여

자유민주주의여



홍성웅(상대 58)

/ 회고글 /



김옥권(미대 76)

부친을 그리며

생이던 나의 엄마 김정숙과 서둘러 결혼하신 건 언제 일본으로 끌려갈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결혼이었다고 짐작된다. 두 분이 70년 결혼생활을 하며 온순함과 맑은 영혼의 소유자,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는 이 땅에서의 96년의 길고 힘든 여정을 마감하고 천국으로 장막을 옮기셨다. 쓸쓸하고 조촐한 하관예배를 치르면서,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우리 오남매를 길러주신 아버지께 죄송하다는 생각만 들었다. 자식들 도와주려 미국으로 은퇴를 하신 부모님들이 너무 큰 희생을 당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지난 해 서울에 가서 남대문과 서울역 사이에 있는 사변 직후 몇 안되던 고층 건물

물려주셨다.

나는 1980년 응용미술과를 졸업하고 그해 창설한 금속공예전공 대학원에 입학한 것도 다투는 모습 보여주지 않고 오남매를 정서적으로 안정된 환경에서 지극정성으로 키워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게 느껴진다.



▲2017년 원로초청 오찬회에서 아버지와 함께
◀1960년 남문 빌딩 옥상에서

안하고 1980년은 아버지께도 대동아 전쟁과 6.25 전쟁의 트라우마를 떠올리게 하는 해였기 때문이었다.

마음이 여러 아버지는 뉴욕 브록클린에서 유학생생활 하던 나의 학교와 주변 환경을 보시고는 마음이 아파 눈물을 보이시기도 하셨다. 본인은 어려운 시절을 다 겪으셨어도 늘 순수하고 평화로울수 있다가는 아버지의 성품가운데 한가지 경이로운 점으로 남아있다.

마음이 깨끗한 아버지는 누구에게나 착하게 대하시는것은 물론 인간관계에서 완벽에 가까운 모델을 보여 주셨다. 그래서 아버지께엔 미워하거나 관계가 불편한 사람이 없고, 모든 사람을 공물로 대하시니 마음에 섭섭함도 앙금도 없으시다. 말이 없으신 편이었지만 유머감각이 남이 믿어 주시고 존중해주셔서 그런지 그들이 정말 훌륭한 인품의 성공한 사람들이 되었고, 나중 자식들이 있는 미국으로 오실때에는 그중의 한사람에게 약국을

로 지어진 남문빌딩을 보고 왔다. 이승만 대통령이 부친(나의 조부)의 소유였던 역전 땅에 현대식 건물도 올리고 산업을 일으켜 보라는 권고에, 나라에 건물만 지어 주고 빈손으로 나온적이 되었으나 지금껏 굳건히 서 있는 그 빌딩을 안에서 나의 조부모님과 우리 식구들은 맨 위층에서 살림집을 꾸며 살았었고 창문으로 4.19, 5.16 혁명의 역사적인 일들을 목격했다.

그 후 큰형님이 병원을 하고 있는 팽택에서 약국을 40년 넘게 하면서 오남매를 서울에서 학교 다니게 하셨는데 휴일도 없이 헌신적으로 일하시고 보건환경이 낮았던 60년대 그지역의 환자들을 치료해 주셨다. 같이 일하던 종업원들도 가족같이 믿어 주시고 존중해주셔서 그런지 그들이 정말 훌륭한 인품의 성공한 사람들이 되었고, 나중 자식들이 있는 미국으로 오실때에는 그중의 한사람에게 약국을

물려주셨다. 나는 1980년 응용미술과를 졸업하고 그해 창설한 금속공예전공 대학원에 입학한 것도 다투는 모습 보여주지 않고 오남매를 정서적으로 안정된 환경에서 지극정성으로 키워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게 느껴진다. 지난 해 서울에 가서 남대문과 서울역 사이에 있는 사변 직후 몇 안되던 고층 건물 물려주셨다. 나는 1980년 응용미술과를 졸업하고 그해 창설한 금속공예전공 대학원에 입학한 것도 다투는 모습 보여주지 않고 오남매를 정서적으로 안정된 환경에서 지극정성으로 키워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게 느껴진다.

른 사람들의 마음을 경청하고 내 마음의 공간을 내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줄수 있을까 생각해본다.

자식들께겐 아낌없이 모든것을 내어주시고 희생하신 아버지이지만 자식들에게 바라는것도 없고, 알아누우면 주위사람들에게 부담이 되실까하는 염려가 무엇보다 크셨던 것 같다.

일요일마다 방문해서 아버지와 같이 시간을 보내는일이 내겐 행복하고 감사한 시간이었음에도 “빨리 집으로 가서 네 일봐라. 고급인력이 이렇게 쓰이면 되겠느냐”고 안쓰러워 하셨다. 아버지는 끝까지 의연한 모습을 보여주셨다. 흔들림 없는 확고한 신앙이 생활화된 모습, 욕심 없고 온화하고 정돈된 아버지의 성품을 받도 닦지 못한 게 난 너무 속상하다. 늘 주위 사람들을 드러나지 않게 조용히 섬겨주시던 아버지는 어린아이같은 순수한 얼굴과 건장한 체격을 가진 노인으로 돌아가시기까지 큰 질병이 없이 사셨는데 늘 평화롭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셨던 덕인 것 같다.

이번 pandemic에 몇 달 지내면서 몸과 마음이 약해지는 것을 느낀 아버지는 스스로 음식을 끊으셨다. 아버지의 소화기관은 아버지의 결정에 순응하는 듯 완전히 마약버린 듯 물도 못 넘기게 되었다. 건장한 아버지는 두주 넘게 식사를 못하시고 육체가 찾아들었다. 멀리 있는 자식들이 와서 같이 마지막 시간을 보낼 수 있게 기다려 주셨다. 손주들이 찾아오고 증손주 아기들이 오면 애쁘다고 좋아하시고 자녀들에게 축복기도를 해 주셨다.

나의 아버지는 진정 소박한 인생을 사셨지만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쉽게 이해하게 하셨던 것 같다. 아버지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주고 가족들이 다 모여 사랑의 인사를 나눌수 있는 기회를 주고 천국행을 서둘러 가셨다.

며칠 전 꿈에 돌아가신 후 처음으로 엄마와 아버지를 뵈었는데, 두 분이 얼마나 편하고 멋지게 보이시던지 나도 행복했다. “우리 옥권이는 천사야” 하시며 만족해 하시는것을 보고 꿈에서도 격려의 말씀 주시는 부모님, 막내가 환갑이 넘도록 살아주시는 부모님이 너무 고맙고 그림기만 하다.



“사회적 책임 다하는 진정한 지성인을 추구하며”

— 아버지 가르침이 뿌리가 되어 —

/ 사람, 사람들 / **변우진 변호사 (인문 81)**

“우드로(변우진)는 미네소타주 로터리언(로터리클럽 회원)의 자랑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전세계 로터리언의 롤모델입니다.” 미네소타주 로터리클럽 총재 팀 머피(Tim Murphy)는 변우진 변호사를 이렇게 말했다. 변우진 동문은 현재 미네소타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있는 젊은 동문이다. 로터리 클럽 장학생 출신에서 영향력 있는 회원으로 활동하며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네소타 한인회장을 역임하며 입양아 돕기에 나섰다. 장애아 후원, 탈북자 돕기에도 적극 활동했다. 이토록 많은 사회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전역에 자신보다 몇배는 더 훌륭한 동문들이 많이 있는데 감히 지면을 차지하게 되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을 몇 번이고 강조하기도 했다. 본인이 받은 애정과 사랑을 사회 봉사활동을 통해 베푸는 삶을 실천 중인 그를 민주동창회보를 통해 만나보기로 하자.

- 서울대를 입학한 계기는

나는 부산에서 교육자 가정의 4남매 중 둘째로 태어났다. 위에 누나가 있고, 아래 남동생과 여동생이 각 한 명의 단란한 가정이었다. 부친은 항상 “우리가 살 길은 교육에서 찾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다. 나의 여동생과 매제는 프랑스 빠리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바로 아래 남동생만 제외하고는 누나 (변숙경, 교육대학원 졸업), 여동생(변지원, 중어중문학과 학사, 빠리 대학 박사, 현 방송통신대학 교수) 와 매부 (강문원, 법과대학, 박사 수료, 현재 변호사) 매제 옥우석 (경제학과 학사, 빠리 대학 박사, 현 인천대학교 교수) 들 모두가 서울대 동문들이고 사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가장(家長)의 육영지락(育英之樂)의 이상이 실현되었음이 어느정도 증명된것 같다. 나는 언어학을 전공하고 법학을 부전공했는데, 그것은 부친이 제가 어려서부터 세계가 점점 좁아지고 있기 때문에 세계를 무대로 꿈을 펼치라고 항상 말씀하신 것에 영향을 받은 결과인 것 같다. 당시 관악 캠퍼스에는 다섯 동(棟)의 기숙사가 있었는데 나는 기숙사의 동장(棟長)을 하면서 봉사정신도 기르고 또 리더십도 터득했다.

- 미국에 유학을 계기와 변호사를 직업으로 선택한 이유가 있다면?

대학과 대학원을 마치고 군대를 마치고 아주 우연히 홍콩에 있는 미국의 법률사무실이 일자리가 생겼다. 그래서 유학을 가는 대신 일단 실무경험도 좀 하고 학비도 좀 벌 어볼 생각으로 홍콩에서 2년의 직장생활을 했다. 직장생활을 하는 동안 직장에서 ‘빌 먼 데일’이라는 친구를 만났다. 이 친구가 자신의 고향을 강력히 추천을 해서 미네소타 주립대학 법과대학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다. 꼭 변호사나 법조인이 되어야겠다는 생각

보다는 일단은 법률을 공부해서 자격을 따 다음에 공무원, 법조인, 언론인, 사업, 문필가 등등 마음에 드는 일을 나중에 해보려고 생각을 했다.

- 봉사단체 로터리클럽에 많은 활동 하셨는데 참여하게 된 계기와 주로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미국에 유학을 가려고 작정을 했고 금전적인 도움이 좀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때 마침



로터리 국제대회 초청연설.

‘로터리 클럽’ 장학생에서 회원으로

고양시 로터리 국제대회 초청 연설

입양아 · 장애아 후원 · 탈북자 돕기 등

사회활동에 적극... “가장 보람된 일”

로터리 클럽에서 장학생 모집 광고가 나와 지원을 해서 합격했다. 나중에 변호사가 되어 돈을 벌면서 장학금을 갚으려고 했다니 로터리 재단에서 “장학금은 갚는 것이 아니다. 로터리에 회원으로 가입을 해서 미래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면 된다”고 해서 그길로 로터리 클럽에 가입을 해서 매년 장학금을 출연하고 있다. 로터리에 가입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미네소타에 있는 어떤 소년을 도운 일이다. ‘마이클’이라는 이름의 소년인데 마이클은 한국에서 태어나자마자 미네소타로 입양되었다. 양쪽 팔이 아주 짧고 손이 없고 대신 손가락이 하나 밖에 없는 장애를 가지고 있

다. 이 소년을 처음 보았을 때 큰 충격을 받았다. 그때까지만 해도 봉사가 무엇인지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몰랐다. 그러나 이 소년을 보는 순간 무언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소년에게 용기를 주는 방법을 밤낮으로 찾다가 아주 우연히 유튜브에서 피아니스트를 보았는데, 손가락 네개만으로 쇼팽의 즉흥환상곡을 치고 있는 것이었다. 그때 갑자기 ‘이 피아니스

람인 일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이외에도 로터리 활동을 하면서 아프리카 빈민촌에 도움을 주었고 한국의 로터리 클럽과 자매결연을 하여 봉사활동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 한국에서 오는 고환학생을 우리집에서 살면서 미국의 학교에 다닐 수 있게 하기도 했다. 매년 미국 추수감사절에는 불우이웃을 찾아서 칠면조를 배달하고 있고 경제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내가 로터리 클럽의 장학금을 받은 이후로 내 인생에 일어난 변화를 책으로 쓴 것이 2014년에 출간 되었다. ‘My Rotary Journey’ 라는 책인데 지금도 계속 팔리고 있다. 이 책 덕분에 미국 전역에 초청되어 약 40번의 연설을 하였다. 연설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전세계의 회원 약 45,000명이 참가했던, 2016년 한국의 고양에서 열린 세계 로터리 총회에 초청받아서 가서 했던 연설이다.

- 로터리 클럽 외에도 많은 사회활동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네소타 주립대학 총장 자문위원회 의장으로 일하면서 1997년에 아시아 경제위기로 학업을 중단할 뻔했던 한국학생 200명을 구제했으며 미네소타 주립대학 미술관의 이사로 (6년간) 일하는 동안 한국정부를 설득해서 미술관에 한국 고미술품이 상설 전시될 수 있도록 하기도 했다. 미네소타주 한인회장으로(2000-2001) 있으면서 연말 총회에서 펀드레이징을 해서 11,000달러를 건어 탈북자 돕기 운동에 힘을 보탤다. 2001년에 한국에서 열린 ‘세계한인회장대회’에 미네소타를 대표하여 참가했고, 한국정부가 해외의 입양아들과 한국전 참전용사들에게 관심을 가져줄 것을 김대중 대통령과 고건 총리에게 건의하기도 하였다. 첫 유색인종

으로 취임한 이다이나 시 로터리 클럽 회장 (2011-2012)때도 펀드레이징을 해서 장학생을 뽑아서 외국에 보냈다. 이 외에도 단체장에 있을때마다 최선을 다해 사회적 지위와 역할을 다 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 얼마전 아버지와의 대화를 엮은 아버지와의 마지막 기차여행이라는 책을 출간 하셨다. 어떠한 계기로 그런 책을 쓰게 되셨는지?

나는 장남이지만 외국에 살고 있어서 한국에 계신 아버지와 같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서 짧은 시간 만나면서 집중적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가슴에 새겨 두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몇년 전에 아버지께서 자신이 봉직한 학교에 가서 장학금을 전달하고싶다는 의견을 피력하셔서, 처음에는 차마를 잠시 의심했으나, 함께 기차를 타고 서울과 부산을 왕복하면서 주고받은 대화를 통해서 아버지의 평소의 생각과 아직도 남아있는 희망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정말 오랫동안 유익한 대화를 나누었다. 그것을 기록해두었는데, 어느날, 이 기록을 책으로 펴내서 다른 형제들과 아버지의 제자들에게도 나누어주고픈 생각이 문득 들었다. 물론 아버지께 한 부 드리고 싶은 생각도 있었다.

- 책 내용을 보면 아버지의 교육적 철학이 특별한 것 같다. 아버지가 인생에 있어 어떠한 영향력을 끼쳤는지 말씀해주신다면?

가난을 극복한 저희 아버지 세대는 두고두고 후세의 존경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아버지는 나의 일생을 두고 엄청난 영향을 끼친 분이다. 가난한 집안의 장남으로 태어나서 아버지는 자신이 하고싶었던 공부를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 그래서인지 자식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을 평생의 과제로 생각하신 것 같다. 그리고 돈을 벌더라도 절대 가난한 사람을 멸시하거나 부자들 앞에서 자존감을 잃지 말라고 하는 귀중한 가르침을 주셨다. 세상이 점점 좁아질 것이니 우리는 모두 세계의 시민이 되어야 하고, 또 혈육만 챙길 것이 아니고 가까운 이웃과도 친해야 한다는 가르침도 기억에 남아있다. 아버지는 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교양인을 길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하신 것 같다. 교양은 “진선미를 추구하면서 자신의 삶을 가꾸어갈 수 있는 능력”이다. 그런 인간을 만들어내려면 기본적으로 무엇이 진리인지, 아름다움인지, 선한 것인지를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하고, 어느 순간부터는 스스로 학생 개개인이 스스로 자신의 세계



선전맨 왼쪽에서 네번째이 서울대에 기부를 했던 당시 정운찬 총장(기 오른쪽 첫째)과 가족들.

를 가꾸어갈 수 있는 능력을 길여주어야 한다. 아이들의 재능을 개발해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떤 분야든지 가능성을 보이는 제자에게 아낌없이 “칭찬” 을 해주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신 것 같다. 이것을 소위 피그말리온 효과(Pygmalion Effect)라고 부르는데, 교사가 칭찬을 던져주면, 학생은 교사의 칭찬에 의해서 동기부여가 되어 학업에 큰 발전이 오게 되는 효과가 있다. 경쟁 사회에서 모두 1등을 할 수는 없다. 1등만 인

너저 강물로 흘러가도 좋다는 각오로 버틸 필요가 있는 것이다. 교사는 또 “햇불” 의 역할을 해야한다. 교사는 일년동안 아이의 성장을 위임받은 부모나 마찬가지로. 그러나 아이들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모두 보아야 하고, 부지런히 아이들의 어두운 면을 찾아서 그들을 밝은 곳으로 인도해야하는 세심한 배려심과 사명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제대로 된 교육은 머리로만 들어가지 않고 가슴으로 들어가야 한다.

아버지, 자식들 공부를 평생의 과업으로

세계의 시민, 교양인이 되라는 가르침

서울대 동문, 사회적 봉사의 책임 느껴야

후배들은 따뜻한 가슴을 지닌 사람 되길

정말 1등에게만 칭찬을 하던 분위기를 과감히 버리고 1등이나 꼴찌나 모두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자면 교사는 더 부지런해야 하고 학업성적이 꼴찌인 아이에게서도 무언가 재능을 발굴해서 칭찬해주어야 한다.

아버지의 교육 철학은 교사의 역할에서 찾을 수 있다. 아버지가 생각하신 교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다리” 그리고 “햇불” 이다. 교사의 도움으로 학생들은 모두 다음 학년 혹은 상급학교로 진학을 하는데, 모두 다리를 건넜다고 생각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뒤쳐진 학생들이 꼭 있기 마련이다. 이런 학생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교사는 마지막까지 “다리” 로서의 역할을 해야하는 것이다. 교사는 마지막 학생이 건넌고 나서는 기꺼이 무

아버지는 교육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교양인을 길러내는 데 있다고 보신것 같다. 그리고 교양인은 진선미에 대한 통찰이 있고 자신의 삶을 가꿀 줄 아는 능력을 가진 인간이라고 보셨고, 교양인을 많이 길러내면 국가는 정말로 올라가서 나라도 선진국에 진입하게 된다고 보신 것 같다.

- 서울대 동문들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이야기 한다면

사실 한민족의 1% 안에 드는 서울대 출신의 사회적 책무는 엄청나다고 말할 수 있다. 배운 지식을 단지 개인적 성취와 치부에만 쓴다면 서울대를 나온 지성인다운 삶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차라리 직업전선대 나오면 오히려 더 능률적인 직업인이 되어서 개

인적인 성공을 더 빠른 시일에 달성할 수 있지 않겠는가. 서울대 출신의 지성인은 직업인과는 달리 ‘사회적인 봉사의 책임’을 느끼면서 살아야한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내가 말하는 사회적 봉사는 결코 이름을 신문에 대문짝 만하게 내는 그런 거창한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 거의 본능처럼 자리잡은 봉사정신이다.

- 마지막으로 서울대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서울대학교를 나온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말하면 대단히 명석하고, 계산이 빠르고 자기관리를 잘 한다. 그러나 약간 부정적인 면을 이야기하자면, 팀워크나 단체생활에 약하고, 이웃 사람들과 어울리는 일에 다소 느리거나 둔하거나 관심이 없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에 앞장설 줄 모른다. 명석한 두뇌를 가진 서울대 출신 후배들이 따뜻한 가슴으로 주위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선함을 베푸는 일에도 시간을 좀 투자하면 좋겠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은 돈으로 할 수도 있고 머리로 할 수도 있고 손으로 할 수도 있다. 정말 어려운 사람 앞에서 같이 비를 맞아줄 수도 있고 그가 잠시 기댈 수 있는 어깨를 빌려줄 수도 있다. 멀지 않은 장래에 서울대 출신 사람들의 이미지가 바뀌어서, ‘명석한 두뇌와 따뜻한 가슴’을 가진 사람들로 알려지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서울대학교의 교과과정 속에도 ‘공감’의 능력을 키워주고 ‘사회’의 지도자가 되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줄 아는 능력을 배양해주는 훈련이 포함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서울대학교는 저렴한 학비에 수려한 캠퍼스 그리고 훌륭한 자매학교들과 선후배들의 네트워크가 전세계에 널리 있으니 한국 사람들의 입장에서 ‘특권’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특권을 누린 사람들은 자신의 특권에 안주하지 말고 자신이 그동안 누린 특권과 혜택을 주위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주어야 한다. 한국이 혹은 인류가 나아갈 길을 밝혀줄, 명석한 두뇌와 따뜻한 가슴을 가진 후배들이 쏟아 나오기를 기대한다. 이것은 홍익인간의 정신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기도 하다.

변우진 동문은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대학원, 중국 동아시아 대학교, 미네소타 주립대학교를 졸업했으며 미네소타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20대 홍콩 직장생활 체험을 기초로 쓴 ‘나는 지금 몇시에 와 있는가’를 필두로, 1994년 사회과학부 문 베스트셀러에 올랐던 ‘한국인들을 위한 미국법률상식’ 등이 있다. 또한 아마존에 올라 있는 ‘My rotary journey’는 미국을 비롯해 영어권 국가와 로터리클럽이 있는 180개국에서 인기를 누리고 있다. 미네소타주 한인회장, 와이즈만 미술관 이사, 미네소타 로터리클럽 회장 등을 지냈다. ‘올해의 로터리연상’ ‘아시아변호사회회장상’ 등을 수상했으며 2016년에는 서울에서 열린 국제로터리 총회에서 강연한 바 있다.

<woojbyun@gmail.com>



네 손가락의 피아니스트 이희아 양(맨 오른쪽)과 후원 장애아동 마이클과 함께.



지난 2월 미네소타에서 문화계 지도자로 뿔쳐 참석한 봉준호 감독을 만나.



이희백(의대 61)

/ 역사읽기 /

링컨 대통령 사면권 행사 일화

대통령이 취임후 제일 먼저 닦치는 일은 자천, 타천으로 공직에 임명을 바라는 사람들을 다루는 일이다. Charles Guiteau란 자는 불란서 말 한마디 못하는 주제에 자기를 불란서 대사에 임명해주지 않는데 분개해 미국 제 20대 대통령 James Garfield 를 저격해 2개월후 사망케 한 일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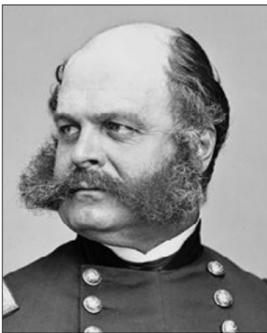
링컨 대통령에게도 취임하자마자 이런 사람들이 밀어닥쳤다. 하도 많은 부탁에 시달리는 대통령에게 “이러다간 대통령께서 지쳐서 큰 일 나겠소” 하고 걱정하는 보좌관에 게 링컨은 “그러나 다들 형편이 절실하고 조그마한 요구들이니.” 하면서 청탁자들을 계속 면접했다.

다음은 사면(pardon)청원이다. 전쟁중이라 더욱 많았다. 한 예를 들면 Vermont 출신 사병 William Scott 에 대한 사면신청건이다. 그는 자기 보초 전날 아픈 동료를 대신해 보초를 자원에서 대리로 서주고 다음날 다시 자기 차례 보초를 섰다가 새벽녘에 졸아 근무태만으로 사형선고를 받은 경우다. 이를 알게된 Mary Lincoln은 남편에게 감형 해 줄것을 애원했다. 아들 Tad도 어머니를 거들었다. “아버지, 생각해 보세요. 만일 그가 바로 아버지 자식이고 전투후 지쳤고 하루종일 행진후 애써 졸지 않으려고 애썼는데도 좋았다면.” 하면서. Mary도 재차 그 젊은 사병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호소했다. 그 사병의 딱한 처지를 이해하지 못할 링컨이 아니지만 자기 간섭이 군사규율을 문란시킬것이라 선척 반대될수가 없었다. 그러나 결국 Mary 의 설득에 지고 처형 전날 군 사령관 George McClellan 장군 사무실을 찾아가 사면장을 발부해줄것을 요청했다. Scott 의 구명을 청원한 Vermont 상원의원 Lucius Chittenden이 “일개 사병문제로 대통령을 괴롭히는 자기를 용서해 달라”고 하자 링컨은 “Scott 의 생명이 그에게 귀중함은 다른 어떤 사람의 생명과 똑 같이 귀중하오. 어느 귀족의 머리가 잘린데 대한 어떤 Scotdman 의 말, 이것은 한갓 조그마한 머리의 문제이지만 그에게는 매우 귀중한 머리오, 불쌍한 친구, 그가 가진 단 하나의 머리지라고 했다는 이야기 있지 않소” 하는 말로 상원의원의 무거운 마음을 덜어주었다. 이와같이 링컨의 사면대상은 대개가 약자였는데 사면권을 너무 남용한다는 비난에 대해 자기로서는 “ 더 많이 해주고 싶지만 못한다”고 대답하곤 했다. 그러던 차에 약자가 아닌 강한자에게 사면권을 행사, 형을 감면해야 줄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해야할 사건이 발생했다.

1863년 1월 1일에 링컨이 공포한 노예해방선언은 그의 예측대로 크나큰 파문을 가져왔다. 노예문제로 연방을 탈퇴한 남부는 말

할 것도 없거나 북쪽에서도 우리가 “negro”를 위해 싸운단 말인가? 당장 싸움을 중지하고 평화를 되 살리자”는 소위 Copperhead, 민주당 반전파의 비난이 쏟아졌다. 상황이 이런판에 링컨이 원하지 않는 사태가 벌어졌다.

오하이오 지방군 사령관인 Ambrose Burnside 장군(hair style, sideburns는 원래 burnside's였었는데 19세기에 들어 general Burnside로 인해 변경된 단어라고 함, 사진 참조)은 포고령 38호를 선포해 적에게 지속적인 포고령 보내는 언동을 이 지방에서 허락하지 않으며 이를 어기는자들은 체포, 군법 재판회부, 구금한다고 엄포를 놓았다. 이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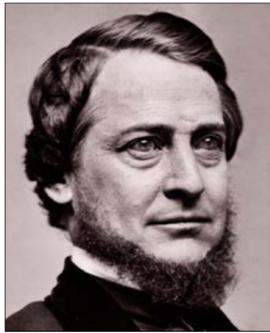
Ambrose Burnside

Copperhead 의 수장격인 오하이오 하원의원 Clement Vallandigham은 이 “실패한 전쟁”을 규탄하면서 이 “분쟁”은 군인들이 집단으로 이탈하고 국민들이 “링컨 임금님”을 “왕좌”에서 끌어내야만 끝날수 있다고 군중을 선동했다. Valladigham 의 성명을 자세히 검토한 Burnside 장군은 밤중에 Valladigham을 침실에서 끌어내 수감하고 전격적으로 군법회의에 회부, 전쟁이 끝날때 까지 수감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Vallandigham이 신청한 habeas corpus(인신보호 영장)는 기각되었다. Chicago Tribune 이 이 사실을 상세히 보도하자 Burnside 는 이 신문을 폐간 시켰다. 이러한 사태가 벌어진것을 조간신문을 읽고서야 알게 된 링컨은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Burnside 장군이 취한 조치에 동조하지는 않았으나 그가 취한 행동을 밀지 않을수 없었다. 이 일이 일으킬 정치적 손실을 그는 누구보다 더 잘 내다 보았다. 이 처사에 대한 비난은 Copperhead나 민주당뿐 아니라 충실한 공화당에서도 일어났다. 상원의원 Trumbull 은 이 검거 자체도 문제라니와 이런 독단적인 체포가 거듭되면 시민 사법

부는 군사법부에 의해 점령되고 정부 전복까지 일어날수 있음을 경고했다. 국무장관인 Seward 의 한 친구는 그에게 “이 검거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원칙인 ‘언론자유’의 침해를가져오고 연방에 충성한 북부내에서조차 내분이 일어날수 있음”을 경고했다. Seward도 이에 동의했다. 어떤 안건에 전원이 찬성하는 일이란 극히 드문 내각회의에서도 Vallandigham 체포에 대해서는 전원이 일치해서 반대했다.

링컨은 타협점을 모색했다. 공식적으로는 Vallandigham의 체포를 지지하나 vallandigham의 감금을 해제하고 대신 반군지역으로 추방하기로 결정했다. NY Times 는 이



Vallandigham-Clement-Laird

결정에 만족을 표했다. “그(Vallandigham)가 순교자가 되는것을 막고 동시에 그의 약역의 힘을 꺾어 버렸으니” 하면서. Vallandigham은 백기업호하에 적 Tennessee 지역으로 추방되었는데 그가 즉시 버뮤다를 거쳐 캐나다로 도망가자 그의 명성은 더욱 손상을 입었다. 후에 캐나다 망명지에서 오하이오 주지사에게 출마 했으니 낙선했다. 한편 전쟁장관 Stanton 은 즉시 Chicago Times 를 복간시켜 언론자유를 수호했다. 이렇게 함으로서 링컨은 Burnside 를 지지함과 동시에 전쟁으로 인해 발생하는 “시민자유”의 제한을 극소화했다. 후에 링컨은 “악명”높은 Chicago Times 폐간건에 대해 질문하는 극단주의자 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시민들의자유 제한이 얼마나 위험한것인지 국민들이 충분히 느끼지 못한다는것을 염려한다. 시민 자유제한은 극단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절대로 정당화 될수없다. 정부는 국민의 보편적인 권리를 침범할 위험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극단적인 관용을 베풀도록 해야한다.”

Vallandigham 사태 처리후 링컨이 당면한 우선문제는 Burnside 장군이 입은 상처를 치

유해주는 일이었다. 자기의 처사에 전각료가 반대했다는 소식에 접하자 Burnside는 즉시 사의를 표명했다. 링컨은 사의를 받아들이지 않았을뿐 아니라 각료들은 이번 구속의 필요성에 대한 유감을 표시했고 일단 지나가자 다들(각료들) 장군을 이해하고 있으니 상심하지 말라고 격려했다.

마지막으로 링컨은 이 문제의 해결은 궁극적으로 국민이 정부의 정책을 평가하는데 달렸다는 판단하에 복잡한 군사 구속문제에 대해 어떻게 처리해야할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던차라 이 Valladigham 구속사건을 계기로 해결하기로 결심했다. 그래서 링컨은 군복무 기피 민간인을 감금하는 군부 처사에 가장 비판적인 뉴욕 민주당 하원의원 Erastus Coming 에게 보낸 편지를 6월12일 New York Tribune 을 통해 공표함으로써 Burnside 를 옹호했다. “이런 구속이 평시에는 위헌이다. 그러나 지금은 전시이고 전시에는 habeas corpus 를 정지할수 있다”고 되어 있음을 상기시킨후 “Vallandigham 의 구속은 정부를 비판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군대모집을 방해하는 언동을 일삼았고 군인 이탈을 조장하고 반란을 진압하는 전쟁 자체를 방해하는 탓으로 구속된것임”을 역설했다. 이어서 그는 군이 이탈병을 막기 위해 “사형”이란 극형에 처함은 오래전 부터 실시된 사실임을 지적한후 링컨은 이런 질문을 던졌다.

“단순한 마음으로 탈영한 사병은 사정없이 사형에 처하는 내가 이 사병이 이탈하겠금 유도한 교활한 선동자들은 머리카락 하나도 건드려선 안된단 말인가? 이것은 아버지, 형제, 또는 친구들이 공격대상에서, ‘그는 잘못된 편을 위해 싸우고 있다, 비열한 국가의 약한 정권을 위해 싸우고 있으니 탈영하라고 교사하는 이들이 일개 사병의 탈영보다 덜 해를 국가에게 끼치고 있다고 말할수 있는가?’ 대통령의 편지는 북부 전지역에서 찬사를 받았다. “이는 전체적으로 솔직하고 극명한 결정”이라고 뉴욕 타임즈는극찬했다. 민주당측도 깊은 인상을 받았다. Edward Everett 는 말하기를 링컨은 “Valladigham 의 구속”을 옹호하지 않고서도 이를 “완전히 방어하는데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Edward Everett 는 몇개월후에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라는 링컨의 너무나 유명한 단2분의 연설, Gettysburg address 를 하기전에 두시간에 걸쳐 연설을 했던 유명한 웅변가다. 링컨의 지지자들은 스펠에 넘쳤다. 이 편지는 전국 방방곡곡에 퍼져 이를 읽은 천만명의 국민들은 그의 논리에 완전히 매혹되었고 그의 천재적 정치수완에 감탄해 마지 않았다.



이건일(의대 62)

/ 맛과 인생 /

시간이 걸려야 좋은 것들

자라는 나무들인 Ausrian Pines, Himalayan Cedars, Oak Tree, Maple Tree, White Pines 들은 시간이 걸려서 자라니 나중에 그 모습이 참 보기에 좋다.

Slow cooking은 우리가 자라던 옛날에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이 하시던 요리 방법이다. 밥은 가마솥에 장작불 때어 지은 것이라 지금 전기 밥솥에 얼른 지은 그 밥맛에 비할 바가 아니다. 찐쌀떡 며칠전 부터 재료 준비 하고 온 식구들이 모여서 지지고 볶고, 끓이고 하여 만든 음식들을 이제 어디가서 맛 볼수 있을까? 우리 집에서는 무슨 큰 일 치를 일이 있으면 할머니 깨서 하시던 제일 첫번째 일이 장을 보러 가서 민어를 구해 오시는 것이었다. 할머니 생각에는 세상



Tafelspitz

에서 제일 좋은 생선은 민어였고 이걸로 부친 생선전은 내게는 아직도 어느 고급 레스토랑에서 먹어본 생선 요리보다 더 맛있었다. 할머니가 부치시는 옆에 앉아서 막 지저낸 전 한 조각을 얻어 먹던 그 맛은 무엇에 비할수가 없었다.

또 하루, 이틀전 부터 큰 무쇠 솥에 설설 끓인 쇠고기 곰국의 그 맛을 나는 잊지 못한다. 음식점에 가서 사 먹을수 있었지만 옛날에 집에서 먹던 것 보다 맛이 없는 것 같다. 이곳에도 설렁탕 집은 있어 가끔 가서 기억에 녹아 있는 맛의 갈증을 풀곤 한다. 그러나 옛날의 그 맛은 아니다.

요즈음 이곳에서도 Slow Cooking이 다시 각광을 받는 것 같다. 신문, 잡지에 요리 방법이 나오는 자주 나오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그런 요리를 그리워 하는 것을 알수 있다. 나는 서양 요리책에서도 천천히 만드는 것들, Stew, Bouillabaisse, Roast Beef, Pork Roast 등을 좋아한다. Stew란 원래 집 한구석에 난방용 취사용으로 쓰이던 Hearth(Fire Place)에 걸린 무쇠솥(Cauldron)에 물을 끓이

면서 거기에 보리, 밀 등 곡식이나 각종 야채 (옛날이니 계절에 따라 달랐겠지만) 들을 넣고 가끔 먹다 남은 고기조각, 기름, 뼈다귀 등을 넣고 하루 종일 끓인 것에서 출발한 것일터이다. 그 전에는 무엇이든 장시간 끓이거나 소금에 절여 저장 하였다 먹거나 하였어만 되었다. 오븐(Oven)을 이용하여 빵 굽는 기술은 아주 옛날부터 있었지만 지금처럼 온도, 시간을 조절해 가면서 다양한 요리를 할수 있게 된 것은 몇 백년 되지 않는다.

프랑스 마르세이유 지역에서 발달한 부이아베스(Bouillabaisse)는 우리 생선 매운탕처럼 각종 잡고기로 국물을 낸후 거기에 좀더 비싼 새우, 바다가재, 조개등을 넣고 올리브 유, 각종 향신료, 각종 Herbes를 더하고



Bouillabaisse

그위에 사프론(Saffron, Saffron crocus 의 꽃술을 말려서 쓴다. 아직도 세상에서 제일 비싼 향신료 중의 하나)을 넣어 그 향과 색깔을 이용하여 만드는 요리이다. 우리식 생선 매운탕에는 먹어 보지못한 유럽 여행 중에서는 아마저도 감지덕지이다. 그런데 한국에서 음식을 맛본 어떤 영국인이 쓴 글을 보면 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생선 국은 한국의 생선 매운탕이라고 한다. 매운 맛과 생선, 해산물의 풍미가 절묘한 조화를 이루는 음식이니가 라고 생각하고 있다.

부이아베스를 먹어 보려고 우연히 들린 그릇 가게에서 반액 세일하는 Staub철제 주물 큰 냄비를 하나샀다. 이 회사는 철제 주물 150여년 이상 만들고 있는 프랑스 회사 이다. 철제 주물그릇은 열 전도가 고루되고 보온이 잘 되는 관계로 시간이 많이 걸리는 하나 음식의 맛이 훨씬 훌륭하다고 한다. 그외 La Creuset라는 회사 제품이 유명하다. 그런데 우리 선조들은 현명하게도 이것을 몇백년전 부터 알고 무쇠솥을 사용 하고 석에 난방용 취사용으로 쓰이던 Hearth(Fire Place)에 걸린 무쇠솥(Cauldron)에 물을 끓이

몇해 전에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교외인 그린징(Grinzing)에 즐비한 우리의 술 도가검 주막집 격인 Heurigen 중의 한 집에서 그 집에서 막 빚은 흰 포도주(Gruener veltliner)에 돼지고기(Pork Roast)를 먹은 일이 있었다. 술은 향기로웠고 돼지고기 요리는 겉에 소금과 각종 향신료를 잔뜩 발라 아주 오랜 시간 오븐에 구워 내었는지 포크나 맨 손가락으로 발라 먹을수 있을 정도로 부드럽고 맛 있었다. 지금도 생각하면 입에 군침이 돈다.

비엔나하면 Wiener Schnitzel (일본인들이 수입해서 약간 변형 시킨 돈카츠의 원형)이 유명하다고 하나 워낙 기름에 깊게 튀긴 낸 음식이라 두번 째 먹으려면 기름 냄새가 역해 구역질이 나오려고 한다. 또 다른 하나의 비엔나의 유명한 요리는, 황제 (Kaiser)가 너무나 사랑하여 거의 매일 먹는 바람에 비엔나에 크게 유행하였다는 타펠스피츠 (Tafelspitz)로서 어린 송 아지의 뒷 다리 부분 16개소 중의 한 부위인 Tafelspitz=table point(고기를 잘라 놓은 모양이 책상 모서리 같이 뾰족하다고 해서 붙은 이름)를 각종 향신료와 함께 장시간 삶아서 그 고기와 국물을 먹는 요리다. 워낙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 보통 음식점에서는 먹어 보기 힘들다고 해서 호텔 concierge에게 부탁 하여 예약을 한 비엔나에서 역사가 제일 오래 되었고 또 잘 한다고 소문난 집에 가서 먹어 보았다. 먼저 큰 냄비에 고기와 국물이 나오고 삶은 고기를 먼저 주어 Horse Radish에 찍어 먹고 나중에 국물에 넣은 파스타(Pasta)를 넣어 먹는 데 마치 우리나라에서 수육을 먼저 먹고 그 국물에 국수 넣어 먹는 것과 맛에 별 차이가 없었다. 입 맛은 양의 동서가 없나 보다. 남부 스페인 안달루시아 지방에 몇번 여행할 기회가 있었고 투우의 시발지 라고 하는 산간 마을 Ronda의 Paradores restaurant menu 에 oxtail 요리라고 올라 있기에 열른 주문 하였다. 맛이 딱 우리나라 소갈비찜과 똑 같았다. 그후 두어번 더 그곳을 방문 할때마다 시켜서 먹어 보곤 하였다.

나중에 어째서 이곳에 소꼬리 요리가 있게 되었나를 알게 되었다. 투우에서 죽은 소의 고기를 사람들이 나누어 먹는데 훨씬 솥소고기니 질겨서 맛이 없고 그저 꼬리를 오랜 시간동안 들여 만든 것이 내가 먹었던 요리였던 것이다. 이 또한 천천히 하는 요리의 대표격이 되었다.

맛있고 훌륭한 요리나 좋은 포도주가 천천히 시간만 들여 만들어 지듯이, 우리 인생도 벽돌 한장 한장 쌓듯이 정성과 시간을 들여 이루어 나가며 살아야 된다는 평범한 사실을 나이를 자꾸 먹어 가는 요즈음 더 자주 느끼며 살고있다.



오세경(약대 61)

/ 삶과 생각 /

어느 여름날의 명상①

올 봄에 갑자기 들어닥친 코로나의 돌풍은 창앞까지 찾아온 봄의 전령도 반갑게 맞아 주기가 조심스러웠다. 이 역풍은 여름조차 통채로 삼켜버리더니 이제는 이 위기가 언제나 멎으려나하는 불안 속에서 벌써 가을에 접어들게 되었다. 이 때문에 나는 내 운동 클럽이 폐쇄되어 단체운동의 길을 잃게 되었다. 혼자서라도 운동은 해야겠다고 생각하여 이웃을 산책하는 것이 어느덧 나의 일과가 되어버렸다.

다행이랄까, 내 이웃에는 잘 손질된 대저택들이 즐비하여 이들을 바라보는 즐거움을 안겨준다. 이 저택들의 소유자의 대다수는 유태인이지만 그중에 상당수는 동양인이거나 아니면 백인과 결혼한 동양인일 경우가 많다. 이런 것을 보면 미국의 본토백인 청색의 혈통(Blue Blood)도 점점 물러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된다. 뉴튼에 있는 여러개의 마을중에도 내가 사는 마을은 각집의 년 평균 수입이 \$100,000을 넘는 부촌이라고한다. 우리집은 아마 그 중에서 가장 작은 집에 속할것이다. 그러나, 지하층에 있는 남편의 서재에 20,000권이 넘는 장서와 2,000여장의 레코드를 소장할 수 있었고 여기서 내 남편과 꿈같은 19년의 결혼생활을 한 곳이니, 내집은 그 크기를 막론하고 정녕 즐거운 집이고 여기서 내 인생을 끝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있다.

세계를 휩쓸은 코로나의 위세는 지난 6개월동안 미국에서만도 195,000명의 사상자를 내었고 이 숫자는 미국이 한국동안 이후에 겪은 모든 사상자보다 훨씬 많은 숫자라고 한다. 그런데 이에 걸친 흑인 인권운동(Black Lives Matter)은 이 전염병의 전파를 더욱 악화시켜서, 의술이 최고도로 발달되어 있다는 미국이 오히려 세계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와 사망자를 속출하고 있으며 그 기세는 아직도 좀처럼 꺾이지 않고있다. 이러한 불운에도 불구하고 백인우월주의를 고집하는 공화당의 60%는 현 대통령의 정책을 지지한다고하니 백인 우월주의가 얼마나 미국인 사회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가를 상기시켜준다. 이들간의 권력다툼에 끼어있는 동양인, 특히 우리 한국인들은 흑인들의 약탈과 방화등으로 인하여 막심한 피해를 받고 있다고 하며, 따라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는 교민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고한다. 강력범이 많아지니 더 이상은 미국에 살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보수주의 백인들의 사수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인구는 다민족의 수가 더 많아져서 보수파의 백인들은 소수로 전락하고 있으며 그 예로 지난 해 하버드 입학생들의 50% 이상이 백인이 아닌 타민족이었다. 흑인 인권 운동의 항쟁은 노예해방을 선언한지 200년이 지난 오늘

날에도 끈임없이 전개되는 사회적 만성질병이며 이 문제는 미국의 흑인들이 지속적으로 목숨을 내걸고 싸워야하는 오랜 투쟁이 될것이다. 말할 나위도 없이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전염병의 결과는 수많은 사상자의 문제인데 오늘은 이런 죽음이 인간 생활에 있어서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생각해 보려한다.

죽음은 생물학 견지에서 보면, 세포가 분열할때마다 우리의 세포가 지니고 있는 생명줄이(telomere) 조금씩 줄어들어 그 이상 줄어들을수 없게 될때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생물, 특히 동물은 일정한 길이의 생명줄을

대문호인 셰익스피어는 "All is well that ends well" 이라하여 끝이 좋으면 모든것이 잘 된 것이라 하였다. 그러나, 잘 죽는것보다 더 중요한것은 우리가 일생을 통하여 무엇을 하다가 죽었는가 하는 것이다. 프랑스에서 독립 운동을 하다가 포로가 되어 화형을 당한 존다크, 그리고 3.1 운동에서 체포되어 옥사한 우리의 유관순여사, 축석루에서 적장을 안고 익사한 황진이는 모두 10대의 소녀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업적은 역사에 길이남아 우리 발걸의 등불이 될것이다. 일제의 생체실험 대상이 되어 죽은 우리의 애국시인 윤동주, 그리고 같은 26세에 그의 시에 대한 신랄한 비평속에 폐병으로 죽음을 맞

어내었다. 이와같이 인생의 종말은 각각각색이다. 그러나 이 모든 천재들의 종말이 어떠한지 또는 그들 수명의 장단을 막론하고 그들의 업적만이 우리의 역사속에 길이 남는다.

미국의 여류시인 에밀리 디킨슨은 "내가 있음으로써 나와 내 주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내 인생은 가치 있는 것이었다" 라고 말했다. 미국의 현대 교육자 호레스 맨 도 "인류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인생을 마감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라" 하였다. 그러면 80을 바라보는 나의 인생은 어떻게 결산할 수 있을가 점검해보려고 한다.

내 인생의 처음 20년은 제2차 세계대전과 한국 동안, 그리고 두 차례의 혁명을 겪으며 한국에서 초등, 중고등, 그리고 대학을 마쳤다. 이후, 미국에 와서 석, 박사사를 마치고 수년의 연수끝에 1979년 보스턴 의대에 미생물학 조교수로 부임하게 되었다. 당시 보스턴 의대에 재직중인 교수진과 직원 2,000명중에 동양인 교수는 오직 나 하나 뿐이었다. 여자교수란 한국에서는 물론 미국에서는 더 더구나 꿈도 꾸지 못할 귀한 기회였다. 이렇게 어렵게 얻은 기회에도 불구하고 재직 16년을 통하여 나는 별로 신동한 연구 결과를 출산하지 못했다. 내가 별 성과를 내지 못한다에 대해서는 여러가지의 변명이 있었다. 우선 내가 하고 있었던 단백질 화학이 어려운 학문인 것이 주된 연유였고 그 외에도 내 개인의 감정적인 상처로 인하여 나의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것 같다. 내가 교수로 임명된지 얼마 안돼서 나의 동생이 말기 유방암에 걸렸을때 "우리 언니가 암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나를 구해 줄거야" 하던 그의 소원을 들으며 내가, 아니 우리 모든 인간이 얼마나 무지력한 존재를 절감하게 했다.

그러나 암 치료에 혁신적인 공헌을 한 사람들도 많이 있다. 내가 캘리포니아에서 연수를 마칠때 내 책상을 물려준 나의 동료 제임스피. 앨리슨 (James P. Allison)박사는 암을 치료하는 항체를 개발하여 2018년에 노벨의 학상을 수여했다. 물론 이런 치료법이 없었을 때에 걸린 나의 동생은 아직 젊은 나이(36세)에 사망했다. 그외에도 내가 아직 대학원에 있을때 나의 첫 사랑을 잃어버린 고독감까지 더하여 나는 많은 상처를 안고 살았다. 더구나 내가 속해있던 미생물 학과는 교수진이 모두 유태인이었으므로 나는 유색인종, 그리고 여성으로서의 성 차별외에도 이방인의 차별까지 감수해야했다. 피눈물나는 아픔이었다. 결과는 내가 드디어 학계를 떠나 기업에 종사하게 된것이였다.

<다음호에 계속>



김유은(음대 07)

/ 젊음과 열정 /

무지카라반

<MusiKaravan>

2020 시월, 코로나 19가 시작된 지 7개월이 지난 지금 - 내 핸드폰 캘린더에는 "피아졸라의 사계 협연" 스케줄이 적혀있지만, 지금 나는 어디인가? 포도밭에서 흐르는 땀을 닦고 있는 농부를 위해 세레나데를 연주하고 있다. 그가 미소 짓는다. 참 화려했고 행복하다.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바이올리니스트로서 연주생활을 하던 나는, 코로나로 인해 내년 3월까지 모든 연주 일정이 취소되었다. 내가 매니징 감독과 수석연주자를 맡고 있는 "델리리움 무지쿰 챔버 오케스트라(Delirium Musicum Chamber Orchestra)"가 막 Walt Disney Concert Hall에서의 데뷔 공연을 앞두고 있을 때였다. 단원들과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 끝에 4월부터 이웃들을 위한 마당 콘서트(Courtyard Concert)를 열기 시작했다. 이웃들은 아파트 발코니에서 공연을 관람했고, 환호했다. 이 공연은 6월까지 12번 진행되었다. 이웃들은 손 편지, 음식, 와인 등을 가져다 주며 감사함을 표현했다. 음악이 이 시기에 얼마나 큰 힘을 줄 수 있는 지 깨닫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는 이 아름다운 경험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방법을 궁리하기 시작했다. "직접 청중들을 찾아가 보자. 바이올린을 들고 농장과 Winery를 돌아다니며 연주하자.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하여 캠핑카로 여행하고, 좋은 먹거리를 우리 식탁에 전해주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 다큐멘터리로 만들자!"



이 무모한 도전에 동참하게 된 동지는 델리리움 무지쿰의 음악감독이자 바이올리니스트인 에티엔 가라(Etienne Gara). 우리는 1971년산 폭스바겐 미니버스를 구입하였고, 몇달 간 고치고 개조하고, 빨간색과 하얀색으로 페인트 칠을 하였다. 이로써 "무지카라반(MusiKaravan)" 프로젝트가 탄생하게 된다.

몇 달 간에 걸친 준비 기간 동안 우리는 철저한 계획을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 캘리포니아의 농장과 Winery 100여 군데에 연락하여 우리의 프로젝트를 설명하고 날짜를 상의하였다. "우리는 3000석 콘서트홀에서 연주하던 음악가인데 당신의 포도밭에 가서 일꾼들이 포도 따고 있으면 그 옆에서 바이올린 연주를 할 게요" 언뜻 들으면 황당할 수 있는 제안이기에 우리의 미션을 잘 전달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어느새 방문 일정이 하나하나 채워지기 시작했다.

하나 웬걸, 일정은 계획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50년 된 차는 가끔씩 멈추기도 하였고, 농장의 염소가 집을 나가는 바람에 우리를 맞이할 수 없게 되기도 하였다. 때로는 좋은 인연들을 만나 한 곳에서의 체재 기간이 길어지기도 하였다.

무지카라반과 길을 떠난 지 오늘로서 40여 일, 계획 없이 흐르는 대로 움직이는 것에 익숙해지기 시작하였다. 지금까지 아보카도 농장, 토마토 농장, 올리브 오일 농장, 와인 농장, 심지어는 타조농장에서도 공연 하



였지만 이 중에 계획된 것은 10%도 되지 않는다.

주요 관객은 1명에서 많으면 10명이었다. 포도, 토마토, 딸기 등을 따고 있는 농부들 옆에다가 훑을 땀으며 브람스, 쇼팽, 혹은 찰리 채플린의 "스마일"을 연주한다.

사람들은 우리의 작은 공연이 그들에게 일어난 마법 같다고 이야기 한다. 음악이 역병으로 인해 움츠러져 있던 마음을 풀어주고, 보이지 않는 선으로 사람들을 이어준다. 우리도 그들의 삶을 보며 배우는 게 많고 또한

따뜻한 인심에 감동받는다.

공연 뿐만 아니라 이 여정을 기록으로 남겨 미니 다큐멘터리를 만들 계획이다. 현재 짠 영상과 사진을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통해 공유하고 있다. 작은 컴퓨터로 길에서의 편집이 쉽지는 않지만 곧 유튜브로 에피소드가 올라갈 예정이다.

이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실행에 옮기는 데 많은 노력, 시간, 용기, 배짱 그리고 비용이 들었다. 현재도 매일 매일이 새로운 도전이다. 우리의 프로젝트가 당신의 마음을 울린다면 관심을 가져 주기 바란다. 아직은 지출이 크기에 후원금을 받는 외에도 페트리온(Patreon, 후원자와 창작자를 연결해주는 플랫폼)을 시작할 계획이다. 우리는 이 프로젝트가 전 세계로 나아가길 수 있기를 바라고 내년에는 한국여행 연주를 계획하고 있다. 음악이 모든 장벽을 부시어 주는 초월적인 힘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피부로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이 작고 귀여운 빨간 버스가 아름다운 한국 시골 곳곳을 다니며 허수아비를 악보대 삼아 연주할 "아리랑"을 생각하니 가슴이 설렌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도 했던가? 지금 우리 모두에게 기회가 주어졌다.

- ▶기부: <http://deliriummusicum.com/support> (비영리단체로 세금공제 가능)
- ▶문의: contact@deliriummusicum.com

실로 오랜만에 남편과 함께 하이킹을 나섰다. 계란과 감자를 삶을까 물어보니 고개를 찌른다. 간단하게 가는데 복잡하게 하지 말자고... 전에 가끔씩 산에 갈 때는 준비해 간 것을 먹는 것이 좋았다. 앉아서 먹는 기쁨과 함께 여유있게 산속에서 애길한다는게 웬지 좋았다. 같은 애길해도 더 분위기가 난다고 느껴서 있을거다. 물과 한두 가지 간식을 백팩에 넣은 게 다다. 남편은 끝을 자른 골프채 하나를 들었다. 산길에서 몸의 균형을 잃을 때 혹은 뜻밖의 동물이 위험을 할때 대비한다고...

20 여년 즈음 전에는 어렵지 않게 돌들을 가볍게 밟고 시냇물을 건너곤 했던 아주 쉬운 코스였다. 동행한 친구들과 재미있게 담소를 즐기며 가는 여유로운 길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그 때는 젊음의 가치를 미처 느끼지 못했고 건강의 귀함을 깨닫지 못한 시절이었다.

남편은 가지고 온 골프채가 물을 건널 때 요긴하게 도움이 된단다. 몇번 쓰라고 골프채를 건네줄 때마다 마다했다. 물을 건널 때 몇 번을 넘어질 뻔해서 그제서야 골프채를 달래서 써보니 정말 나이 든 몸과 힘없는 다리를 말 그대로 요긴하게 받쳐줬다.

그날의 Switzer Fall Trail에는 사람들이 많진 않았다. 폭포까지 갔지만 내려가지 않고 길



오정렬(간호 68)

/ 단상 /

무모한 산행

을 돌아섰다. 마주치는 사람들을 먼저 보내느라 시간이 생각보다 더 길어졌고 우리 둘의 기운이 거의 소진된 있었다. 남편이 땀병이 비치는 오르막길을 과연 제대로 올라 갈 수 있을까 무척 걱정된 탓이다. 난 속으로 왜 이런 걱정을 할까...하며 별로 어렵지 않을 거라고 짐작했다.

그 날의 온도는 100도를 뺀듯했던 것 같다. 한 15분에서 20분 여의 오르막길을 있는 힘을 다해 걸으며 서너번을 쉬어야 했다. 쉬고 있을 때도 쉬는 느낌을 전혀 느낄 수가 없었다. 겨우 대 여섯 발자국을 떼었을 텐데도 곧 쉬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도저히 숨이 가빠지고 숨을 쉴수가 없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었다. 이런 정다면 이번 하이킹은 우리에겐 즐거운 산행이 아니라 가히 고난의 행군이었다고 얘기

하는 게 나올 것 같다. 그것도 사서한 고통! 차에 와 뜨거워서 손을 댈 수 없는 차시트에 앉았을 때, 뒤통의 오르막길을 죽을 힘을 다해 빠져 나온 것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뒤돌아 생각해보니 지나치게 어리석은 짓이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두명의 친구와 딸이 그렇게 더운 날씨에 하이킹을 한 그 용감함에 놀랐다고.... 탈없이 무사하게 집에 온 것을 감사한다고 했다. 그런 무모한 산행을 하고 온 후 우린 사나흘을 앓았다. 겨우 이틀 후에야 정신이 돌아온 것 같다. 그동안 운동부족이라고 운동을 해야지 하고 다짐했지만 겨우 한 주에 한 두번 하거나 아니면 아예 하지도 않고 보낸 주가 더 많았다. 이왕하기로 했으니 남편에게 당장 시작하자고 은근히 압력을 가해 왔었다. 내가 생각을 하면 실천으로 옮기는 걸 알기

때문에 남편은 말 없이 따라 주었던 것 같다.

그날 따라 날씨가 더울 것이라는 애길 가기 며칠 전에 했던 차였다. 그날은 남편에게 하이킹을 하자고 한 게 한 2주가 채 안된 때였다. 운동을 안했던 다리힘을 키우지도 않고 우리의 신체상태를 감안치도 않고 그저 생각 없이 날씨가 더울거라는 애길 무시하고 시행한 무모함! 그날엔 아예 그날의 온도조차 잊어버리고 오직 하이킹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뛰어 올라간 철쭉이 넘은 이의 생각없는 단순한 머리!

그런 무모함을 뒤늦게 알아 차린 후에 그래도 사고없이 무사하게 귀가한 것이 얼마나 다행이었는데 모르겠다. 직장에서 내가 치료해 주는 주의산만증이 있는 아이들과 화를 못 참는 아이들에게 수없이 해준 가르침은 “행동 전에 생각을 먼저하라”는 거였다. 자신의 행동의 결과를 맘 속으로 그려보고 행동으로 옮기라는 애길 얼마나 많이 그들에게 해주었던가? 이제서야 실천 못하는 위선이 내게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젊었을 때 나이가 들면 좀 지혜로워지려나 했던 자신이 어렴풋이 생각이 난다. 나이는 노력을 안 해도 저절로 먹게 되나 지혜나 현명함은 스스로 애쓰는 끈임 없는 자기수련을 통해 얻는다는 것을 또 한번 깨닫게 되었다.

/ 문학과 생각 /

아크로 인문산책

신수현(공대 73)

우리의 지난 날을 뒤돌아보면 분명 화려하고 성공한 인생처럼 보이지만 다시 생각하면 그것은 그저 소란스러움과 무의미한 걱정으로 점철된 어리석은 인생처럼 보인다. 그리고 성취한 것들과 잃어버린 것들 모두에 대한 회오가 밀려든다.

자연과학의 발달로 인류는 굶주림과 추위의 고통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고 생활도 무척 편리해졌다. 하지만 고독과 스트레스 탓에 삶이 더 힘들어졌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사회과학 역시 많은 법과 제도로 우리를 보호하지만 사회적 불안과 법정소송은 오히려 늘어난다. 인류의 출산을 자살률 및 이혼율 등의 객관적인 수치로 보아도 인류의 행복지수는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점점 내려가는 것 같다. 때로는 중대한 선택이 우리를 기다린다. 우리는 선택의 결과를 상상하면 심적부담을 극복하기 어려울 때도 있다. 마치 운명이 어둠 속에서 생사의 갈림길로 우리를 몰고 가는 것 같다. 경험과 지식은 믿을 수 없고, 결정을 내리기는 정말 어려운데, 좀 더 생각해 볼 시간조차 없다.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는 원형경계장의 외로운 검투사일 뿐이

다. 환성을 지르는 관중들이나 응원하는 친구들은 오히려 우리의 외로움을 더해준다. 우리는 이런 절대절명의 순간에 비로소 운명의 가혹함을 느끼고 험릿 왕자의 독백을 이해한다. 험릿은 다름 아닌 우리의 슬픈 자화상이다. 모든 조건을 갖춘 21세기 문명사회에서도 우리의 행복은 이렇게 흔들리고 있다.

15세기, 모든 것이 풍요로운 이탈리아 반도에서도 시민들의 마음 역시 흔들리고 있었다. 그들은 이성을 지배하는 유일신과 감성을 자극하는 올림포스 제신들의 어울리지 않는 공존, 즉 모세와 호머의 불편한 동거를 겪어야 했다. 또한 영원히 아름다운 지상에 머물고 싶지만, 형 집행 정지가 끝나면 결국 지상을 떠나야 하는 사형수의 슬픔도 느껴야 했다. 피렌체의 시민들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고대희랍의 아테네로 달려가 해법을 찾았다. 그리고 인류역사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르네상스의 업적을 이룩한다.

전문가(the expert)는 세부분야를 깊이 분석할 수 있지만,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매스터 플랜을 짜는 일은 지식인(the learned)의 몫이다. 우리는 지식인이 되기

위하여 인문과학을 공부하고 세익스피어를 읽는다. 인문과학은 결코 자연과학을 대신해 우리의 아픔을 완벽하게 치료할 수 없지만 적어도 우리를 위한 한 잔의 포도주나 안락의자는 될 수 있다. 모든 지혜 중에서 시와 아름다움과 예술 등에 대한 갈망이 으뜸이라는 말이 있다. 이러한 갈망들이 삶의 고통을 어느 정도 경감시키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것으로 우리는 이 말을 이해한다.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는 연인의 밀어붙인 만 아니라, 미친듯이 지껄이는 무당의 목소리에 이르러야 한다...... 꿈꾸고 갈망하는 것을 뿐만 아니라, 헛되이 시간과 열정을 쏟는 것들에 이르기까지..... 지식과 예술 정지가 끝나면 결국 지상을 떠나야 하는 사형수의 슬픔도 느껴야 했다. 피렌체의 시민들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고대희랍의 아테네로 달려가 해법을 찾았다. 그리고 인류역사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르네상스의 업적을 이룩한다.

또한 위대한 천재들도 있다. 이들은 작은 천재들의 언덕을 넘어 높은 봉우리를 형성한다. 최고의 봉우리 위에 서면 우리는 플라톤 호머 단테 괴테 다빈치 등의 봉우리를 볼 수 있고 그들의 선명한 흔적까지 확인할 수 있다. 어느 한 봉우리가 빛과 열기를 발하면 그를 닮은 숲한 봉우리를

이 시공을 초월하여 서로 응답한다. 18세기 비엔나의 음악천재들과 19세기 몽마르트 언덕의 미술천재들 그리고 이름없는 도시에서 한 시대를 살았던 이름없는 천재들도 이 위대한 천재들의 빛과 열기를 나누고 있다.

인문과학은 우리 삶의 아름답고 빛나는 순간들, 만남의 기쁨과 이별의 슬픔, 열정적 행위와 고매한 생각 등을 우리에게 숨김없이 이야기 해 줄 것을 공언한다. 그것은 또한 덧없이 짧은 우리 인생의 스펠 속에서 우리가 아무런 사심 없이 사랑할 수 있는 것이다. 고대 아테네를 비추던 잠엄한 태고의 태양은 일년 내내 캘리포니아의 대지를 황금빛으로 수놓고 포도밭을 붉게 태운다. 지중해의 크레타 섬을 닮은 카타리나 섬은 바다의 훈풍을 사계절 우리에게 선사한다. 그리고 15세기의 피렌체 시민들처럼 우리를 역시 순량하고 발달하다. 우리는 또한 고대 아테네 시민들의 슬픔과 갈망 그리고 업적에 한껏 공명한다. 그리하여 관악산 기슭의 아크로폴리스 광장을 동경하며 지금 이 캘리포니아의 아크로 광장에서 우리들만의 작은 르네상스를 구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대장간의 합창으로 유명한 일트로바토레는 박력있고 열정넘치는 작곡으로서 라트라비아타와 리콜레토와 더불어 베르디의 3대 작품 중 하나로 꼽히는 명작이다. 일트로바토레는 한사람의 음유시인이라는 뜻인데, 트로바토레 중에는 무예에 능한 기사들도 있다. 트로바토레인 만리코는 스페인의 아라곤과 비스케이에서 카스틸라와 우르헬 두 가문의 왕위계승 전쟁을 하던 1410년에 용병대장으로 전쟁에 참가한다.

루나백작과 만리코는 레오노라를 사랑한다. 만리코가 전쟁에서 패하여 목숨이 위험해지자 레오노라가 백작에게 애인 만리코를 살려준다면 결혼하겠다고 제안한다. 백작이 만리코의 석방을 명명하자 레오노라는 독약을 마신다. 그녀에게 속았음을 알게 된 백작이 만리코를 처형하자 만리코의 어머니 아주체나는 “당신은 동생을 죽였다!”라고 비명을 지르며 쓰러진다.

이러한 줄거리의 일트로바토레는 전쟁에서 대적하는 두 남자가 한 여인을 놓고 사랑의 맹탕전까지 벌이는 전쟁과 사랑의 이중갈등이 주제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사랑과 전쟁과 상관없는 또 다른 집시현오, 화형, 납치, 살인, 복수가 난무하는 여러 갈등이 얽혀 있는 다면적인 작품이다.

예전에 한 집시 여인이 백작의 아기를 안아 봤는데, 그 후 아기가 병들자 백작은 그녀를 마녀로 몰아 화형시킨다. 화형장에서 불타면서 딸에게 복수를 부탁하는 어머니의 부르짖음을 들은 딸 아주체나는 사건의 원인 이된 아기를 유괴해 불 속에 던져 버리기로 한다. 아기가 없어졌는데 화형장에서 아기 뼈를 발견하고 궁에서는 난리가 난다. 그 후 백작이 세상을 떠나고 그의 큰 아들 루나가 백작이 된다. 실수로 자신의 아기를 불 속으로 던져버린 아주체나는 살아 남은 백작의 아들에게 만리코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키운다. 세월이 흘러 만리코는 성장하여 트로



류정순(가정 69)

/ 문화산책 /

일트로바토레와 마녀사냥

바토레가 되고 전쟁터에서 루나백작과 맞선다. 그러나 둘은 형제간임을 모른다. 이러한 오페라 시작 전 배경은 1막에 높은 장교 페란도의 아리아로 설명된다.

옛날 벨칸토 오페라의 특징 중 하나는 영성한 대본이다. 마지막 벨칸토 오페라로 간주되는 이 작품은 극 구성이 복잡하기도 하지만 대본구성이 조악하기 때문에 이해를 더 어렵게 만드는 측면이 있고, 여러가지 해석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오페라 해설가 박종호는 아주체나를 미친 여자라고 하고, 대부분의 다른 해설가들도 황설수설하는 제

정신이 아닌 여인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화형 당한 어머니의 복수를 해야한다는 강박증과 모성에 사이에서 갈등하는 가운데 극심한 트라우마를 앓고 있는 특수상황에 처하면 보통 사람도 정신상태가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사람들은 자기 아기를 불 속에 처 넣는 말도 안되는 실수와 죽이려던 원수 아들을 키우는 모성심리를 이해 못하고 아주체나를 미쳤다고 한다. 화형 당하고 있는 어머니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복수해 달라고 울부짖는 부분의 다른 해설가들도 황설수설하는 제



아주체나와 만리코

/ 화제의 책 /

코로나19 때문에 '집콕'하는 요즘, 여행의 '목마름'을 풀어줄 신간이 나왔다. 유홍준(미학67-80) 명지대 미술사학과 석좌교수의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중국편3 실�크로드의 오아시스 도시가 그전. 중국편 1, 2 권에서 허서주랑과 돈황을 둘러본 유홍준 동문은 이번 3권에서 신장위구르 자치구의 오아시스 도시들과 티클라마칸 사막을탐방한다.

동서양을 이어준 길로 익히 알려진 실�크로드는 파미르고원을 비롯해 텐산쿤룬 등 험준한 산맥과 고비타클라마칸 등 광활한 사막을 뚫고 개척된 고대의 교역로다. 신장위구르 자치구는 실�크로드의 중부 구간에 해당되는데, 실�크로드란 개념이 사실상 타클라마칸 사막을 관통하는 구간에서 유래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

‘국가대표 답사가’ 유홍준 교수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중국편3’

크로드 중의 실�크로드'라고 할 수 있다. '서유기의 삼장법사와 손오공이 불경을 찾아 지나간 길이자, 고대 동서 문명 교역의 중심지로 탐스러운 과일과 고고학적 보물이 넘쳐나는 이곳에 대한 답사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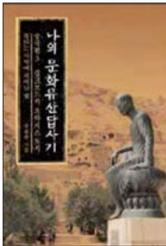
유 동문은 "내 인생에서 가장 감동적인 여행"으로 꼽았다. 신장위구르 지역 실�크로드 답사의 핵심은 '투르판과 '쿠차다. 투르판은 실�크로드 북로와 중로가 갈라지는 길목에 위치해 고대부터 실�크로드 대표 오아시스 도시로 꼽힌다. 이곳엔 대형 고대도시와 무덤, 길게 펼쳐진 포도밭과 인공수도 카라트, 베제클리크석굴 등 불

인을 제공한 아기도 같이 죽어 복수하고 싶어지지 않을까? 보통 사람이라도 유괴사실을 숨기려 하면 자기 아기의 유모차에 두명의 아기를 태우고 화형장에 도착한 후에 자옥한 연기, 울부짖는 소음, 삼엄한 경비의 화형장에서 열린 일 처리를 하고 무사히 도망쳐야 한다는 강박적 상황 아래에서 잠시 햇갈려 자기 아기를 불속으로 던져버리는 실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아홉새 안고 있는 아기가 바로 그 원수의 아기가 아닌가? 그럼 내 아기를 할머니와 함께 죽인 것인가? 비록 죽이려고 했던 아기가지만 아주체나는 아기에게 만리코란 이름을 지어주고 키운다. 수유부는 아기가 젖을 빨지 않으면 유방에 흉증을 느낀다. 유방통을 앓는 수유부가 곁에 우는 아기가 있으면 통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젖을 물리게 된다.

젖을 빠는 아기에게서 모성애를 느끼게 되고, 자신의 아기를 죽인 죄책감을 다른 아기를 살려 줌으로써 치유받고, 상실감을 위로 받고 싶어지는 모성심리 또한 정신이 나가지 않은 사람에게서도 있을 수 있다.

이 오페라의 마지막은 아주체나가 백작에게 "저 사람이 바로 당신의 동생이다. 어머니, 드디어 복수를 했습니다"로 끝난다. 이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 오페라를 아주체나가 꾸민 복수극이라고 해설한다. 그러나 힘없는 집시 노파 아주체나에게 삼각관계의 청춘남녀 주인공 세명과 아주체나 자신의 운명전체를 설계할 능력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이 오페라는 마녀사냥이 초래한 처절한 숙명적 비극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다.

베르디는 힘없는 늙은 여자, 그 중에서도 사회적 소외계층인 집시에게 가해된 마녀사냥으로 비롯된 백작가문의 형제살인과 어머니에 이어 남은 아들과 기린 아들을 다 잃는 아주체나를 통하여 마녀사냥 문화를 비판하는 심리극을 만든 것이다.



불경을 한문으로 최초 번역한 쿠마라지바와 조선훈화가 한락연의 이야기가 답사객을 매료시키는 곳이다.

유 동문은 한족 중심의 중국사 에 밀려 소외돼 있던 신장위구르 자치구를 중국편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이곳이 수천 킬로미터에 달하는 실�크로드의 진수이자 요충지였기 때문. 또한 그는 "중국편을 시안이나 뤼양부터 썼다면 중국사 전체를 한족의 관점에 치우쳐서 보게 됐을 것"이라며 "중국 통치 바깥에 있던 지역의 역사를 먼저 끌어안음으로써 한족 역시 55개 민족 중 하나라는 것을 전하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 동문 시 /

낙엽을 모으면서



서윤석(의대62)

말라서 떨어져 쌓인 주그러진 누런 잎사귀를 보면서
 한여름 땀방울 가리고 그늘을 주던 고마움을 기억하노라
 새봄에 짝이 돌아나고 무성한 가지가 바람에 흔들리던 때를
 그 플라타너스 나무 속에 새들이 등지를 틀던 때를 기억하노라
 무더기로 길가에 떨어져 밟히는 불쌍한 낙엽을 모으면서
 뿔뿔이 떨어져 버어있는 허리 굽은 나무를 올려다 보면서
 예외 없이 종말終末을 맞이아하는 우리의 숙명宿命을 느끼노라
 만남의 기쁨도 헤어져야 하는 우리의 슬픔도 생각하노라
 밤새 이슬에 젖으며 울다가 떨어진 축축한 낙엽을 모으면서
 예고도 없이 우리에게 들려올 조종종소리들을 두려워 하노라
 비록 지나간 시간의 소중한 추억과 즐거움도 있지만
 그 기억마저 점점 희미해지는 것을 두려워 하노라
 그래도 낙엽을 볼 수 있는 시력視力이 남아 있음에 감사하고
 부족했던 이웃사랑이 차츰 자라고 있음에 행복을 느끼노라



최의필(의대 59)

/ 조의문 /

먼 여행을 떠난 벗을 기리며



이거 어렵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다. 그의 생명은 변했지만, 그의 영혼은 변하지 않았다. 그는 먼 여행을 떠났다.

Dr. YONG KEUN BAHN, 반용균은 1959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13회 출신이다. 우리는 으레히 만나고, 공부하고, 실험하고, 살 것으로 알고 있었다. 이제는 성공적인 개업도, 직업적인 취직도 끝내고, 은퇴한지도 세월이 많이 지났다. 그러면서도 옛 벗을 생각하면 어제일과도 같다. 어떤 일은 더 뚜렷하게 기억된다.

시카고의 최대한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반용균의 별세 비보였다. 그날 밤에 날이 밝아오자, 동창들의 놀라서 걱정하는 소리가 인터넷을 통해 올라왔다. 뉴욕의 김병석, 김수근, 최종진, 델라웨어의 김교안, 버지니아의 김진택, 펜실베이니아의 한달수다.

아직은 여름햇살이 있는 아침이다. 몸을 의자에 묻히고,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아보았다. 반용균의 살아있는 웃음의 얼굴이 떠오른다. 접근처에 있는 라이프타임에서 트레드밀을 일과로 하고있다는 얘기도 들었었다. 그의 응접실에는 한 벽이 전직으로 되어있는 책으로 차있는

데, 못본 책 읽기가 재미라고 들려준 적도 있었다.

그는 화를 내는 일이 없었다. 이것은 그의 야량과 인내심에서 오는 것이다. 이것은 미대륙에 사는 사람들의 미덕이다. 우리는 이 미덕에서 살아남았다.

그는 웃음의 남자다. 환하고 인자하게 웃으며 담소하는 그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다. 웃음의 매력은 그의 많은 산부인과 환자들에게 힘을 주었을 것이다. 환자들의 의지도를 높여 주고 신임을 받았을 것이다. 어느 학회 모임에서 그의 동력평가를 들어본 적이 있다. 이런 일은 흔한일이 아니다. 심한 경쟁속에서의 생존은 존경에서 나온다. 이것은 원활한 조직 움직임을 요소가 된다. 이것은 흡사 영양가 있는 토양과도 같다.

Dr. 반용균은 우리와 같이 있지 않다. 우리 면전에 있지 않다. 그는 우리 가슴을 공허하게 만들었다. 하느님만이 그 시간을 아신다. 떠나는 그 시간을 아신다. 이것은 받아들

미주 동창회보 발송수 / 회비납부수 7204 / 927(13.19%)

지역	성함/단대	회보 발송수	회비납부 동문수	지역	성함/단대	회보 발송수	회비납부 동문수
남가주	민일기(약대68)	2243	244(10.8%)	워싱턴주	이명자(간호74)	209	20(9.5%)
북가주	임준원(공대77)	505	62(12.2%)	유타	김한섭(공대93)	14	2(14.2%)
뉴욕	조상근(법대69)	1167	178(15.2%)	조지아	이영진(공대76)	256	31(12.0%)
뉴잉글랜드	김정선(수의81)	248	24(9.6%)	중부텍사스	-	25	
북텍사스	강성호(수의81)	123	11(8.9%)	플로리다	최희덕(사대68)	109	17((15.5%)
룩키아운틴	최용운(공대77)	43	4(9.3%)	테네시	김상호(공대86)	31	3(9.6%)
미네소타	송세진(치대78)	104	16(15.3%)	하와이	성낙길(문리77)	52	8(15.3%)
샌디에고	유재호(공대90)	116	3(2.5%)	하트랜드	이치현(약대77)	102	7(6.8%)
시카고	장윤일(공대60)	564	99(17.5%)	휴스턴	구자동(상대70)	102	9(8.8%)
애리조나	오윤환(문리56)	30	2(6.6%)	케네티컷	유시영(문리68)	57	7(12.2%)
엘라스카	윤제중(농대55)	3	2(66.6%)	필라델피아	지홍민(수의61)	185	62(33.5%)
오레곤	전병택(상대65)	80	10(12.5%)	캐롤라이나	지원식(공대85)	43	8(18.6%)
오하이오	이성우(상대72)	80	16(20.0%)	합계		7,204	927(13.19%)
워싱턴DC	박상근(법대75)	714	82(11.4%)				(Updated: 08/20/20)

시간을 거슬러 되돌아 갈 수 있다면? 자신의 살아온 과거를 생생히 볼 수 있다면 얼마나 흥미로울까? 아니면 역으로 시간을 앞질러 미래로 갈 수 있다면? 자신의 미래를 이렇게 미리 알 수 있다면 그 얼마나 경이로울까? 나아가, 시간을 앞지르거나 뒤로 가서, 자신의 인생과 주변 사람의 인생과 역사 자체를 송두리째 바꿀 수 있다면? 영상과 아울러 시간 여행이라는 주제는 항상 인간들에게 흥미와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박준창 (인문 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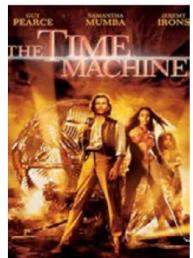


The Time Machine

그런 만치 시간 여행을 소재로 한 많은 영화와 소설들이 있는데, 아마도 최초의 시간 여행을 다룬 영화는 1960년에 나온 H. G. Wells의 소설에 바탕을 둔 동명의 영화 The Time Machine일 것이다. 1899년 12월 31일 런던. 세기가 바뀌는 날을 하루 앞두고 주인공의 집에 모인 3명의 친구들에게 주인공은 시간 여행이 가능함을 설파한다. 타임 머신의 모형을 보여 주며 그 모형 기계를 시간여행을 함으로써 사라지는 것을 보여주지만 친구들은 믿을 수가 없다. 급기야 주인공 본인이 자신이 만든 타임 머신을 타고 미래를 향해 날아 간다. 1917년으로 간 주인공은 친구가 세계 대전 중에 사망함을 알게 되고, 1940년에는 또 한번의 세계 대전이 있음을 알게 된다. 1966년에는 우주에서 날아 온 물체로 인

하여 사람들이 지하 대피소로 대비하는 것을 목격한다. 아마도 핵 물질 같은데 이로 말미암아 지진이 일어 나며 용암이 분출한다. 주인공은 간신히 타임 머신을 다시 타고 용암으로부터 탈출하는데. 이번에는 머나먼 미래 무려 서기 802,701년으로 온다. 이 먼 미래는 식물만 먹는 지극히 수동적이고 아무 것도 알지 못하는 정말 식물 같은 인간들인 Eloi 들을 만난다. 그리고 그들은 지하에서 사는 Marlock 이라는 변형된 인간 종족에게 음식으로 먹히운다. The Time Machine이 최초로 시간 여행을 다뤘다면, 24년 후인 1984년에 나온 The Terminator는 시간 여행이라는 주제를 액션 중에 사망함을 알게 되고, 1940년에는 또 한번의 세계 대전이 있음을 알게 된다. 1966년에는 우주에서 날아 온 물체로 인

엄마를 임신하기도 전에 죽어 버리겠다는 놀라운 발상. 이 발상에 맞서는 또 하나의 발상. 인간 역시 군인을 미래로부터 현재로 시간 여행을 시켜 미래의 엄마를 보호하러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 엄마와의 단 한번 사람으로 미래의 지도자가 후일 태어 나게 되고. 아놀드 슈왈츠네거는 이 사이보그 역을 위해 태어난 사람 같다. 강건한 신체, 투박한 굵은 음성, 감정이 전혀 없는 듯한 얼굴 표정. 앞의 두 영화가 다 인류의 암울한 미래를 보여 주었다면, Back to the Future는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시간 여행의 순기능(?)을 보여 주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처음 이 Back to the Future라는 제목을 접했을 때는 고개를 갸웃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back이라면 과거(past)를 당면



히 얘기해야 하는 것 같은데 미래(future)라니... 뭔가 모순 되는 것 같은데 영화를 보면 완벽한 제목임을 알게 된다.

아주 경쾌한 터치로 재미미 팩스를 출세하게 해 준 영화. 이 영화는 The Terminator가 나온 그 다음 해 인 1985년에 나왔다. 조지 오웰의 암울한 미래를 그린 소설 1984도 1984년이 배경이나, 1984, 1985년은 시간 여행의 해인가? The Terminator와 Back to the Future는 워낙 히트한 영화라 안 본 사람 없으리라고 믿지만, 1960년 판 The Time Machine은 혹시 아직도 안 보신 분이 있으면 한번 보라고 권해 드리고 싶다. 그리 대단하다고 느껴지지는 않지만, 최초의 시간 여행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기념비적인 작품이다. 2002년에 re-make 되었는데 감독이 H. G. Wells의 증손자인 Simon Wells 이었다는 것이, 첫 편을 뛰어 넘을만한, 인상을 주지는 못했다.

www.snuaa.org

서울대 미주동창회 CENTURY FOUNDATION

미주동창회 재정자립 3백만불 모금 캠페인

후원해 주신 동문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변함없는 사랑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영원히 새겨질 나의 이름”
서울대 미주동창회 종신이사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는 미국내에서 최초의 면세혜택을 승인받은, 26개 지부 및 미주지역 2만여 동문을 대표하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총 모금액 \$496,143

TOTAL

<모교발전기금 포함>

종신이사 (\$3,000) 명단

골드이사 \$10,000 이상 실버이사 \$6,000 이상

남가주 강신용(사대 73) 광운길(문리59)김경숙(간호 68) 김동훈(의대 71) 김보연(간호 63) 김재영(농대 62) 노명호(공대 61) 노재성(법대 58) 박영근(상대 63) 박윤수(문리 48) 박종수(수의 58) 박원준(공대 53) 방명진(공대 73) 서동영(사대 60) 서영석(의대 55) 서치원(공대 69) 심상은(상대 54) 심화섭(약대 61) 오재인(치대 33) 오홍조(치대 56) 이병준(상대 55) 이세열(사대 57) 이종도(공대 66) 이창광(상대 61) 이홍표(의대 58) 임낙균(약대 64) 임용오(의대 57) 전희택(의대 60) 정동구(공대 57) 정임현(간호 72) 정재훈(공대 64) 제명혜(가정 71) 조용원(문리 66) 차민영(의대 70) 차중환(사대 54) 하기환(공대 66) 한귀희(미대 68) 한홍택(공대 60) 한효동(공대 58) 복가주 김정희(의대 56) 손석보(공대 68) 민병곤(공대 65) 전혜경(문리 67) 뉴욕 김광호(문리 62) 신응남(농대 70) 오인석(법대 58) 윤정옥(약대 50) 이기영(농대 70) 정임현(간호 72) 정재훈(공대 64) 제명혜(가정 71) 조용원(문리 66) 차민영(의대 70) 민흥기(문리 61) 방은호(약대 43) 오인환(문리 63) 워싱턴 DC 강연식(사대 58) 권기현(사대 53) 류재풍(법대 60) 김원철(농대 64) 오세경(약대 61) 윤상래(수의 62) 윤선홍(치대 64) 정선주(간호 68) 정정옥(의대 60) 정태영(문리 71) 홍지복(간호 70) 워싱턴 DC 강연식(사대 58) 권기현(사대 53) 류재풍(법대 60) 민흥기(문리 61) 방은호(약대 43) 오인환(문리 63) 워싱턴주 이희백(의대 55) 시카고 남상용(공대 52) 심상구(상대 63) 이용락(공대 48) 정 태(의대 57) 최의필(의대 53) 한재은(의대 59) 루이지애나 강영민(문리 58) 메릴랜드 최지원(의대 61) 미네소타 김권식(공대 61) 남세현(공대 67) 변우진(인문 81) 조형준(문리 62) 플로리다 김중권(의대 63) 네바다 정상진(상대 59) 하트랜드 김경숙(가정 70) 김명자(문리 62) 이교락(의대 53) 이상강(의대 70) 휴스턴 박태우(공대 64) 조시호(문리 59) 카네기음악회순수익 [카네기 음악회 순수익금] (6/22/19) \$6,637.55

일반 후원금 용도

장학금은 뛰어난 동문들의 학업을 돕는데 사용됩니다. Charity Fund는 동창회 자선 사업을 위해 쓰입니다. 모교발전기금은 모교와 미주 동창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쓰입니다. Brain Network 후원금은 석학 초빙 강연회 등 동문들간의 네트워킹 증진을 위해 쓰입니다. 종신 이사회비는 SNUAA-USA Century Foundation 동창회의 재정자립을 위해 적립됩니다. 동창회 후원금과 동창회비는 회보 발간 및 미주동창회 행사와 제반 운영을 위해 사용됩니다.

세제 혜택 및 기부안내

- 1) 서울대 미주동창회는 1994년 12 델라웨어주에 비영리 법인 (IRC 501(c)(3))으로 등록되었으며
- 2) 미 연방국세청(IRS)로부터 미주 각지역 동창회를 대표하는 단체 면세승인 (Group Tax Exempt) 번호 3784를 취득하여 여러분의 후원금은 면세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3) 또한 연방국세청법(IRC 2055, 2016 and 2522)에 따른 각종자산에 대한 유산 (Bequests, Legacies) 유증(Divises), 양도(Trensfers) 및 기증(Gifts)를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 4) 미주 동창회 재정자립을 위한 3백만불 모금운동에 참여하실 분은 동창회로 문의해주시고 세금공제 혜택을 위한 법적인 상담을 제공합니다.



SNUAA-USA /E. Peter Shin, ESQ.
158-14 Northern Blvd. 2nd Floor, UL-2, Flushing, NY 11358
T 718-463-3131 E-mail: news@snuaa.org

www.snuaa.org

종신 이사비 (\$3,000 이상 / 99명)

(6) 골드 이사 오인석(법대 58) 윤상래(수의 62)	오재인(치대 33) 오홍조(치대 56) 이병준(상대 55) 이세열(사대 57) 이종도(공대 66) 이창광(상대 61) 이홍표(의대 58) (5) 임낙균(약대 64) 임용오(의대 57) 전희택(의대 60) 정동구(공대 57) 정임현(간호 72) 정재훈(공대 64) (5) 제명혜(가정 71) 조용원(문리 66) 차민영(의대 70) 정태영(문리 71) 홍지복(간호 70)	민병곤(공대 65) 손석보(공대 68) 전혜경(문리 67)	박경민(의대 53) 박영철(농대 64) 오세경(약대 61) 윤상래(수의 62) (G) 윤선홍(치대 64) 정선주(간호 68) 정정옥(의대 60) 정태영(문리 71) 홍지복(간호 70)	심상구(상대 63) 이용락(공대 48) (5) 정 태(의대 57) 최의필(의대 53) 한재은(의대 59)	중부텍사스 이광연(공대 60)	조지아 주중광(약대 60) 허지영(문리 66)	필라델피아 서중민(공대 64) 손재욱(가정 77) 이만택(의대 52) 주기목(수의 68)	플로리다 김중권(의대 63)	하트랜드	김경숙(가정 70) 김명자(문리 62) 이교락(의대 53) 이상강(의대 70)	휴스턴 박태우(공대 64) 조시호(문리 59)	[종신 이사 구분] (D) 다이아몬드 이사 \$100,000 이상 (P) 플래티넘 이사 \$50,000 이상 (G) 골드 이사 \$10,000 이상 (S) 실버 이사 \$5,000 이상 [카네기 음악회 순수익금] (6/22/19) \$6,637.55
---------------------------------------	--	--	--	--	---------------------	---------------------------------	---	--------------------	------	--	---------------------------------	--

10월 후원자 감사합니다	*종신이사	최의필(의대 53)	추재욱(의대 57)	고애자(음대 57)	정상진(상대 59)
김권식(공대 61)	차민영(의대 76)	하기환(공대 66)	윤우용(공대 63)	최의필(의대 53)	정신(보건 92)
이명선(상대 58)	노상문(인문 82)	장준(인문 85)	박양제(약대 48)	이영섭(수의대 56)	정평희(공대 71)
김성열(치대 61)	김태일(공대 68)	채무원(의대 59)	진병학(의대 57)	최선희(문리 69)	김영자(간호 53)
					*\$500이상 후원자

업소록 광고비, 특별 후원금, 후원금 (1,2차 회기: 2019. 7. 1 ~ 2021. 6. 30)

전회장단 이월금 (6/23) 30,000 (10/31) 27,365.02	최무식(약대 66) 240 C THOMAS PARK PEDIATRICS 240	나눔 자수만(약대 71) 300 이소희(의대 61) 250 임창희(공대 73) 200 김순자(치대 57) 100 김정화(음대 56) 25 박수영(농대 53) 25	모교발전기금 남세현(공대 67) 2,000 윤우용(공대 63) 1,000 박원준(공대 53) 500 오인환(문리 63) 300 박원준(공대 53) 300 최재귀(미대 63) 300 심상은(상대 54) 200 김영자(간호 53) 100 권철수(의대 70) 100 오석일(의대 64) 100 윤인숙(간호 63) 50	오인환(문리 63) 200 임필순(의대 54) 400 최중권(문리 59) 200 최선희(문리 69) 125 김현주(문리 61) 100 서준교(공대 74) 100 이원섭(농대 77) 100 유기정(간호 72) 100 형현상(의대 55) 100 문성인(공대 88) 100 한성수(의대 54) 50 이규만(문리 61) 25	하트랜드(5/12/20) 600 북텍사스(5/12/20) 550 샌디에고(6/2/20) 550 조지아(3/25/20) 400 하와이(3/4/20) 300 오레곤(5/5/20) 300 오하이오(5/12/20) 300 조지아(5/29/20) 200 테네시(5/5/20) 200 커네티컷(5/6/20) 200 알래스카(5/12/20) 200 플로리다(5/12/20) 200	박종수(수의대 58) 1,000 신응남(농대 70) 1,000 노명호(공대 61) 500 유상래(농대 62) 500 박광필(농대 69) 500 박성래(수의대 62) 500 지흥민(수의대 61) 500 곽선섭(공대 61) 300 김중용(사범 51) 300 연봉원(문리 61) 300 오인환(문리 63) 300 박상원(음대 69) 220 오인환(문리 63) 200 민병갑(문리 63) 200 백순(법대 58) 200 백옥자(음대 71) 200 손재욱(가정 77) 200 이강원(공대 66) 200 정태영(문리 71) 200 서울 총동창회 3,000 김동희(공대 66) 100 박평일(농대 69) 200 송용길(신문 69) 150 유성은(의대 88) 1,300 유시영(문리 68) 300 윤봉수(간호 68) 100 한태진(의대 58) 500	특별후원금 28차 평의회의 후원금 서울 총동창회 3,000 주기목(수의대 68) 200 조정현(수의대 58) 125 지흥민(수의대 61) 100 곽상희(문리 52) 100 박재은(미대 63) 100 오성(법대 76) 100 우규환(사대 60) 100 이성숙(공대 56) 100 장수영(미대 70) 100 조화연(음대 64) 100 최형무(법대 68) 100 서울 총동창회 5,000	지부 분담금 (2019/7/1~2020/6/30) 뉴욕(6/30/2020) 3,000 남가주(2/21/20) 3,000 시카고(3/19/20) 2,400 워싱턴 D.C.(1/17/20) 2,000 필라델피아(3/25/20) 1,500 북가주(6/2/20) 1,200 뉴잉글랜드(4/16/20) 1,000 미네소타(3/13/20) 600 워싱턴주(3/25/20) 600
--	--	--	---	--	--	---	---	--

카네기음악회 후원금	최한용 (농대 58) 1,000 최형무 (법대 69) 200 주재욱 (의대 57) 1,000 한경수 (문리 57) 300 서울 총동창회 3,000 뉴욕지역 동창회 2,000 뉴욕지역 골든클럽 2,000 이만택 (미주재단) 4,500 김예드 (사대 60) 500 곽선섭 (공대 61) 300 권문용 (미대 61) 200 김광호 (문리 62) 1,000 김승호 (공대 72) 2,000 김중용 (사대 53) 300 김해암 (의대 52) 1,000 노명호 (공대 61) 1,000 노용민 (미대 48) 100 민준기 (공대 59) 300 박영철 (농대 64) 2,000 정선주 (간호 68) 박윤수 (문리 48) 1,200 박중수 (수의 58) 1,000 박희범 (지대 53) 200 백승원 (의대 73) 1,500 석창호 (의대 66) 400 선충철 (의대 57) 200 성기로 (사대 57) 200 손재욱 (가정 77) 500 송웅길 (대원 69) 500 송학린 (법대 59) 650 신응남 (농대 70) 2,000 연봉원 (문리 61) 300 윤상래 (수의 62) 1,000 윤은상 (상대 66) 80 이병준 (상대 55) 1,000 이상무 (의대 62) 100 이수호 (보건 69) 200 이용락 (공대 48) 650 이준형 (공대 48) 1,000 이중무 (의대 69) 500 정정욱 (의대 60) 200 조남천 (사대 59) 60 조달훈 (사대 66) 500 조상근 (법대 69) 1,000 최경석 (사대 80) 650 최수용 (상대 55) 500 최철용 (농대 57) 500	양승문 (공대 65) 200 신동국 (수의대 76) 150 김상찬(문리 65) 100 고김용삼 (음대) 100 이승희 (간호 47) 100 이수영 (약대 92) 100 박서규 (법대 56) 100 변승지 100 송명국 (인문 81) 100 위중민 (공대 64) 100	뉴잉글랜드 박영철/정선주 2,000 (농대 64)(간호 68) 윤상래 (수의대 62) 500 김광수 (문리 77) 200 김정환 (공대 52) 200	시카고 이용락 (공대 48) 500 강영국 (수의 67) 200 김연화 (음대 68) 200 이성길 (의대 71) 200 최수용 (간호 84) 50 오동환 (의대 65) 200 김일훈 (의대 51) 200 한재은 (의대 59) 200	미시간 김정화 (음대 56) 50	버몬트 최선희(문리 69) 100	아리조나 박양환 (약대 48) 200	오레곤 김상순 (상대 67) 500 박희진 (농대 78) 200 한영준 (사대 60) 100	오올라호마 김경숙(가정 70) 200 이상강(의대 70) 200	오하이오 정흥환 (수의대 75) 300	일리노이 최의필 (의대 53) 525 조형원 (약대 50) 500	권철수 (의대 68) 400 이선구 (문리 65) 400 권기현 (사범 53) 200 오인환 (문리 63) 200 임중식 (의대 51) 200 김중호 (약대 68) 200 강길중 (약대 69) 200 박은희 (미대 68) 200 정평희 (공대 71) 200 강창욱 (의대 55) 100	홍청일 (약대 57) 200 김연화 (음대 68) 200 소진문 (치대 58) 200 이영섭 (수의대 56) 200 이영우/김동희 200 (문리 66)/(공대 66) 김성범 (상대 50) 200 최희수 (문리 67) 100	송영우 (사대 64) 송철성 (화공 48) 신두식 (의대 58) 신정자 (간호 62) 신응남 (농대 70) 신정자 (간호 62) 안태홍 (상대 65) 양거영 (의대 48) 오용호 (의대 66) 오용환 (약대 68) 우관혜 (음대 63) 우대식 (문리 57) 이상정 (간호 59) 이영국 (공대 59) 이서규 (문리 61) 200	강상진 (의대 55) 강석권 (법대 61) 강에드워드 (사대 60) 고순정 (간호 69) 계동휘 (치대 69) 곽노섭 (문리 49) 권문용 (미대 61) 곽선섭 (공대 61) 권정익 (의대 58) 권영국 (상대 60) 김광철 (농대 57) 김명철 (공대 60) 김문경 (의대 57) 김민철 (공대 60) 김문경 (약대 61) 김 이국진 (사대 51) 이국진 (수의대 61) 700 주기욱 (수의대 68) 200 조정현 (수의 58) 200 정태광 (공대 74) 200 진병학 (의대 57) 225	윤성현 (의대 70) 200 서울석 (의대 62) 200 이영국 (공대 59) 200 이서규 (문리 61) 200	워싱턴 DC 권철수 (의대 70) 200 서울석 (의대 62) 200 이영국 (공대 59) 200 이서규 (문리 61) 200	필라델피아 손재욱 (가정 77) 500 조정현 (수의 58) 200 김광철 (농대 57) 200 이만택 (의대 52) 200 전우식 (수의 61) 200 지홍민 (수의대 61) 700 병권 (문리 63) 김 병숙 (보건 65) 김석자(음대 61) 이문봉 (미대 76) 이상근 (경영 84)	플로리다 김중권 (의대 63) 200 김성열 (치대 61) 200	버지니아 민준기 (문리 61) 500 이내원 (사대 58) 500 노상문 (인문 82) 450 서윤석 (의대 62) 300 박용길 (약대 56) 200 유영준 (의대 70) 200 채우원 (의대 59) 200 김진수 (의대 60) 100	텍사스 김정희 (간호 69) 김중원 (사범 58) 김수일 (약대 61) 장태환 (의대 61) 전병삼 (약대 54) 전성진 (사대 54) 정동성 (상대 58) 조남천 (사범 59) 조대영 (공대 61) 조중수 (공대 64) 조득환 (의대 61) 조명애 (간호 47) 조상혁 (공대) 조태환(상대 56) 주의돈 (의대 58)* 진봉일 (공대 50) 차국만 (상대 56) 김승자 (사대 59) 남세현 (공대 67) 문성인 (공대 88) 최수봉 (간호 66) 최수용 (상대 55) 최영태 (문리 67) 최정용 (사범 63) 최한용 (농대 58) 최형무 (법대 69) 한태진 (의대 58) 함중근 (간호 66) 허병렬(사범 40)* 허선형 (의대 58)* 허영자 (약대 63)* 허용홍(상대 63) 현영수 (음대 61)* 홍선경 (의대 58)	김영애 (사범 56) 이재진 (의대 59) 김욱현 (의대 59) 김용연 (문리 63) 김우영 (상대 60) 김유순 (간호 64) 김완주 (의대 54)* 김정희 (간호 69) 김중원(사범 58) 김수일 (의대 61) 장태환 (의대 61) 전병삼 (약대 54) 전성진 (사대 54) 정동성 (상대 58) 조남천 (사범 59) 조대영 (공대 61) 조중수 (공대 64) 조득환 (의대 61) 조명애 (간호 47) 조상혁 (공대) 조태환(상대 56) 주의돈 (의대 58)* 진봉일 (공대 50) 차국만 (상대 56) 김승자 (사대 59) 남세현 (공대 67) 문성인 (공대 88) 최수봉 (간호 66) 최수용 (상대 55) 최영태 (문리 67) 최정용 (사범 63) 최한용 (농대 58) 최형무 (법대 69) 한태진 (의대 58) 함중근 (간호 66) 허병렬(사범 40)* 허선형 (의대 58)* 허영자 (약대 63)* 허용홍(상대 63) 현영수 (음대 61)* 홍선경 (의대 58)	고중석 (사대 75) 김광수 (자연 73) 김만옥 (약대 56)* 김영자 (미대 60) 김은한 (의대 60) 김선혁 (의대 59) 김정선 (문리 66)* 김진우 (의대 58) 김정환 (공대 52) 김재호 (상대 56) 김형범(문리 57) 박중건 (의대 56) 박중순 (의대 56)* 윤철(문리 54) 이강홍 (상대 60) 이경필 (상대 64) 이경태 (공대 63) 이준우 (의대 51) 이국진 (사대 51) 이명중 (공대 72) 이문봉 (미대 76) 이상근 (경영 84)	이상원 (62)* 이영일 (의과 60) 이재진 (의대 59) 이진자 (간호 60) 이정자 (간호 59) 이중환 (법대 51) 이준우 (음대 65) 이태상 이태안 (의대 61) 임도혁 (공대 59) 윤신원 (의대 50) 장태환 (의대 61) 전병삼 (약대 54) 전성진 (사대 54) 정동성 (상대 58) 조남천 (사범 59) 조대영 (공대 61) 조중수 (공대 64) 조득환 (의대 61) 조명애 (간호 47) 조상혁 (공대) 조태환(상대 56) 주의돈 (의대 58)* 진봉일 (공대 50) 차국만 (상대 56) 김승자 (사대 59) 남세현 (공대 67) 문성인 (공대 88) 최수봉 (간호 66) 최수용 (상대 55) 최영태 (문리 67) 최정용 (사범 63) 최한용 (농대 58) 최형무 (법대 69) 한태진 (의대 58) 함중근 (간호 66) 허병렬(사범 40)* 허선형 (의대 58)* 허영자 (약대 63)* 허용홍(상대 63) 현영수 (음대 61)* 홍선경 (의대 58)	김중석 (사대 75) 김광수 (자연 73) 김만옥 (약대 56)* 김영자 (미대 60) 김은한 (의대 60) 김선혁 (의대 59) 김정선 (문리 66)* 김진우 (의대 58) 김정환 (공대 52) 김재호 (상대 56) 김형범(문리 57) 박중건 (의대 56) 박중순 (의대 56)* 윤철(문리 54) 이강홍 (상대 60) 이경필 (상대 64) 이경태 (공대 63) 이준우 (의대 51) 이국진 (사대 51) 이명중 (공대 72) 이문봉 (미대 76) 이상근 (경영 84)	이상원 (62)* 이영일 (의과 60) 이재진 (의대 59) 이진자 (간호 60) 이정자 (간호 59) 이중환 (법대 51) 이준우 (음대 65) 이태상 이태안 (의대 61) 임도혁 (공대 59) 윤신원 (의대 50) 장태환 (의대 61) 전병삼 (약대 54) 전성진 (사대 54) 정동성 (상대 58) 조남천 (사범 59) 조대영 (공대 61) 조중수 (공대 64) 조득환 (의대 61) 조명애 (간호 47) 조상혁 (공대) 조태환(상대 56) 주의돈 (의대 58)* 진봉일 (공대 50) 차국만 (상대 56) 김승자 (사대 59) 남세현 (공대 67) 문성인 (공대 88) 최수봉 (간호 66) 최수용 (상대 55) 최영태 (문리 67) 최정용 (사범 63) 최한용 (농대 58) 최형무 (법대 69) 한태진 (의대 58) 함중근 (간호 66) 허병렬(사범 40)* 허선형 (의대 58)* 허영자 (약대 63)* 허용홍(상대 63) 현영수 (음대 61)* 홍선경 (의대 58)	김중석 (사대 75) 김광수 (자연 73) 김만옥 (약대 56)* 김영자 (미대 60) 김은한 (의대 60) 김선혁 (의대 59) 김정선 (문리 66)* 김진우 (의대 58) 김정환 (공대 52) 김재호 (상대 56) 김형범(문리 57) 박중건 (의대 56) 박중순 (의대 56)* 윤철(문리 54) 이강홍 (상대 60) 이경필 (상대 64) 이경태 (공대 63) 이준우 (의대 51) 이국진 (사대 51) 이명중 (공대 72) 이문봉 (미대 76) 이상근 (경영 84)	이상원 (62)* 이영일 (의과 60) 이재진 (의대 59) 이진자 (간호 60) 이정자 (간호 59) 이중환 (법대 51) 이준우 (음대 65) 이태상 이태안 (의대 61) 임도혁 (공대 59) 윤신원 (의대 50) 장태환 (의대 61) 전병삼 (약대 54) 전성진 (사대 54) 정동성 (상대 58) 조남천 (사범 59) 조대영 (공대 61) 조중수 (공대 64) 조득환 (의대 61) 조명애 (간호 47) 조상혁 (공대) 조태환(상대 56) 주의돈 (의대 58)* 진봉일 (공대 50) 차국만 (상대 56) 김승자 (사대 59) 남세현 (공대 67) 문성인 (공대 88) 최수봉 (간호 66) 최수용 (상대 55) 최영태 (문리 67) 최정용 (사범 63) 최한용 (농대 58) 최형무 (법대 69) 한태진 (의대 58) 함중근 (간호 66) 허병렬(사범 40)* 허선형 (의대 58)* 허영자 (약대 63)* 허용홍(상대 63) 현영수 (음대 61)* 홍선경 (의대 58)	김중석 (사대 75) 김광수 (자연 73) 김만옥 (약대 56)* 김영자 (미대 60) 김은한 (의대 60) 김선혁 (의대 59) 김정선 (문리 66)* 김진우 (의대 58) 김정환 (공대 52) 김재호 (상대 56) 김형범(문리 57) 박중건 (의대 56) 박중순 (의대 56)* 윤철(문리 54) 이강홍 (상대 60) 이경필 (상대 64) 이경태 (공대 63) 이준우 (의대 51) 이국진 (사대 51) 이명중 (공대 72) 이문봉 (미대 76) 이상근 (경영 84)	이상원 (62)* 이영일 (의과 60) 이재진 (의대 59) 이진자 (간호 60) 이정자 (간호 59) 이중환 (법대 51) 이준우 (음대 65) 이태상 이태안 (의대 61) 임도혁 (공대 59) 윤신원 (의대 50) 장태환 (의대 61) 전병삼 (약대 54) 전성진 (사대 54) 정동성 (상대 58) 조남천 (사범 59) 조대영 (공대 61) 조중수 (공대 64) 조득환 (의대 61) 조명애 (간호 47) 조상혁 (공대) 조태환(상대 56) 주의돈 (의대 58)* 진봉일 (공대 50) 차국만 (상대 56) 김승자 (사대 59) 남세현 (공대 67) 문성인 (공대 88) 최수봉 (간호 66) 최수용 (상대 55) 최영태 (문리 67) 최정용 (사범 63) 최한용 (농대 58) 최형무 (법대 69) 한태진 (의대 58) 함중근 (간호 66) 허병렬(사범 40)* 허선형 (의대 58)* 허영자 (약대 63)* 허용홍(상대 63) 현영수 (음대 61)* 홍선경 (의대 58)	김중석 (사대 75) 김광수 (자연 73) 김만옥 (약대 56)* 김영자 (미대 60) 김은한 (의대 60) 김선혁 (의대 59) 김정선 (문리 66)* 김진우 (의대 58) 김정환 (공대 52) 김재호 (상대 56) 김형범(문리 57) 박중건 (의대 56) 박중순 (의대 56)* 윤철(문리 54) 이강홍 (상대 60) 이경필 (상대 64) 이경태 (공대 63) 이준우 (의대 51) 이국진 (사대 51) 이명중 (공대 72) 이문봉 (미대 76) 이상근 (경영 84)	이상원 (62)* 이영일 (의과 60) 이재진 (의대 59) 이진자 (간호 60) 이정자 (간호 59) 이중환 (법대 51) 이준우 (음대 65) 이태상 이태안 (의대 61) 임도혁 (공대 59) 윤신원 (의대 50) 장태환 (의대 61) 전병삼 (약대 54) 전성진 (사대 54) 정동성 (상대 58) 조남천 (사범 59) 조대영 (공대 61) 조중수 (공대 64) 조득환 (의대 61) 조명애 (간호 47) 조상혁 (공대) 조태환(상대 56) 주의돈 (의대 58)* 진봉일 (공대 50) 차국만 (상대 56) 김승자 (사대 59) 남세현 (공대 67) 문성인 (공대 88) 최수봉 (간호 66) 최수용 (상대 55) 최영태 (문리 67) 최정용 (사범 63) 최한용 (농대 58) 최형무 (법대 69) 한태진 (의대 58) 함중근 (간호 66) 허병렬(사범 40)* 허선형 (의대 58)* 허영자 (약대 63)* 허용홍(상대 63) 현영수 (음대 61)* 홍선경 (의대 58)	김중석 (사대 75) 김광수 (자연 73) 김만옥 (약대 56)* 김영자 (미대 60) 김은한 (의대 60) 김선혁 (의대 59) 김정선 (문리 66)* 김진우 (의대 58) 김정환 (공대 52) 김재호 (상대 56) 김형범(문리 57) 박중건 (의대 56) 박중순 (의대 56)* 윤철(문리 54) 이강홍 (상대 60) 이경필 (상대 64) 이경태 (공대 63) 이준우 (의대 51) 이국진 (사대 51) 이명중 (공대 72) 이문봉 (미대 76) 이상근 (경영 84)	이상원 (62)* 이영일 (의과 60) 이재진 (의대 59) 이진자 (간호 60) 이정자 (간호 59) 이중환 (법대 51) 이준우 (음대 65) 이태상 이태안 (의대 61) 임도혁 (공대 59) 윤신원 (의대 50) 장태환 (의대 61) 전병삼 (약대 54) 전성진 (사대 54) 정동성 (상대 58) 조남천 (사범 59) 조대영 (공대 61) 조중수 (공대 64) 조득환 (의대 61) 조명애 (간호 47) 조상혁 (공대) 조태환(상대 56) 주의돈 (의대 58)* 진봉일 (공대 50) 차국만 (상대 56) 김승자 (사대 59) 남세현 (공대 67) 문성인 (공대 88) 최수봉 (간호 66) 최수용 (상대 55) 최영태 (문리 67) 최정용 (사범 63) 최한용 (농대 58) 최형무 (법대 69) 한태진 (의대 58) 함중근 (간호 66) 허병렬(사범 40)* 허선형 (의대 58)* 허영자 (약대 63)* 허용홍(상대 63) 현영수 (음대 61)* 홍선경 (의대 58)	김중석 (사대 75) 김광수 (자연 73) 김만옥 (약대 56)* 김영자 (미대 60) 김은한 (의대 60) 김선혁 (의대 59) 김정선 (문리 66)* 김진우 (의대 58) 김정환 (공대 52) 김재호 (상대 56) 김형범(문리 57) 박중건 (의대 56) 박중순 (의대 56)* 윤철(문리 54) 이강홍 (상대 60) 이경필 (상대 64) 이경태 (공대 63) 이준우 (의대 51) 이국진 (사대 51) 이명중 (공대 72) 이문봉 (미대 76) 이상근 (경영 84)	이상원 (62)* 이영일 (의과 60) 이재진 (의대 59) 이진자 (간호 60) 이정자 (간호 59) 이중환 (법대 51) 이준우 (음대 65) 이태상 이태안 (의대 61) 임도혁 (공대 59) 윤신원 (의대 50) 장태환 (의대 61) 전병삼 (약대 54) 전성진 (사대 54) 정동성 (상대 58) 조남천 (사범 59) 조대영 (공대 61) 조중수 (공대 64) 조득환 (의대 61) 조명애 (간호 47) 조상혁 (공대) 조태환(상대 56) 주의돈 (의대 58)* 진봉일 (공대 50) 차국만 (상대 56) 김승자 (사대 59) 남세현 (공대 67) 문성인 (공대 88) 최수봉 (간호 66) 최수용 (상대 55) 최영태 (문리 67) 최정용 (사범 63) 최한용 (농대 58) 최형무 (법대 69) 한태진 (의대 58) 함중근 (간호 66) 허병렬(사범 40)* 허선형 (의대 58)* 허영자 (약대 63)* 허용홍(상대 63) 현영수 (음대 61)* 홍선경 (의대 58)	김중석 (사대 75) 김광수 (자연 73) 김만옥 (약대 56)* 김영자 (미대 60) 김은한 (의대 60) 김선혁 (의대 59) 김정선 (문리 66)* 김진우 (의대 58) 김정환 (공대 52) 김재호 (상대 56) 김형범(문리 57) 박중건 (의대 56) 박중순 (의대 56)* 윤철(문리 54) 이강홍 (상대 60) 이경필 (상대 64) 이경태 (공대 63) 이준우 (의대 51) 이국진 (사대 51) 이명중 (공대 72) 이문봉 (미대 76) 이상근 (경영 84)	이상원 (62)* 이영일 (의과 60) 이재진 (의대 59) 이진자 (간호 60) 이정자 (간호 59) 이중환 (법대 51) 이준우 (음대 65) 이태상 이태안 (의대 61) 임도혁 (공대 59) 윤신원 (의대 50) 장태환 (의대 61) 전병삼 (약대 54) 전성진 (사대 54) 정동성 (상대 58) 조남천 (사범 59) 조대영 (공대 61) 조중수 (공대 64) 조득환 (의대 61) 조명애 (간호 47) 조상혁 (공대) 조태환(상대 56) 주의돈 (의대 58)* 진봉일 (공대 50) 차국만 (상대 56) 김승자 (사대 59) 남세현 (공대 67) 문성인 (공대 88) 최수봉 (간호 66) 최수용 (상대 55) 최영태 (문리 67) 최정용 (사범 63) 최한용 (농대 58) 최형무 (법대 69) 한태진 (의대 58) 함중근 (간호 66) 허병렬(사범 40)* 허선형 (의대 58)* 허영자 (약대 63)* 허용홍(상대 63) 현영수 (음대 61)* 홍선경 (의대 58)	김중석 (사대 75) 김광수 (자연 73) 김만옥 (약대 56)* 김영자 (미대 60) 김은한 (의대 60) 김선혁 (의대 59) 김정선 (문리 66)* 김진우 (의대 58) 김정환 (공대 52) 김재호 (상대 56) 김형범(문리 57) 박중건 (의대 56) 박중순 (의대 56)* 윤철(문리 54) 이강홍 (상대 60) 이경필 (상대 64) 이경태 (공대 63) 이준우 (의대 51) 이국진 (사대 51) 이명중 (공대 72) 이문봉 (미대 76) 이상근 (경영 84)	이상원 (62)* 이영일 (의과 60) 이재진 (의대 59) 이진자 (간호 60) 이정자 (간호 59) 이중환 (법대 51) 이준우 (음대 65) 이태상 이태안 (의대 61) 임도혁 (공대 59) 윤신원 (의대 50) 장태환 (의대 61) 전병삼 (약대 54) 전성진 (사대 54) 정동성 (상대 58) 조남천 (사범 59) 조대영 (공대 61) 조중수 (공대 64) 조득환 (의대 61) 조명애 (간호 47) 조상혁 (공대) 조태환(상대 56) 주의돈 (의대 58)* 진봉일 (공대 50) 차국만 (상대 56) 김승자 (사대 59) 남세현 (공대 67) 문성인 (공대 88) 최수봉 (간호 66) 최수용 (상대 55) 최영태 (문리 67) 최정용 (사범 63) 최한용 (농대 58) 최형무 (법대 69) 한태진 (의대 58) 함중근 (간호 66) 허병렬(사범 40)* 허선형 (의대 58)* 허영자 (약대 63)* 허용홍(상대 63) 현영수 (음대 61)* 홍선경 (의대 58)	김중석 (사대 75) 김광수 (자연 73) 김만옥 (약대 56)* 김영자 (미대 60) 김은한 (의대 60) 김선혁 (의대 59) 김정선 (문리 66)* 김진우 (의대 58) 김정환 (공대 52) 김재호 (상대 56) 김형범(문리 57) 박중건 (의대 56) 박중순 (의대 56)* 윤철(문리 54) 이강홍 (상대 60) 이경필 (상대 64) 이경태 (공대 63) 이준우 (의대 51) 이국진 (사대 51) 이명중 (공대 72) 이문봉 (미대 76) 이상근 (경영 84)	이상원 (62)* 이영일 (의과 60) 이재진 (의대 59) 이진자 (간호 60) 이정자 (간호 59) 이중환 (법대 51) 이준우 (음대 65) 이태상 이태안 (의대 61) 임도혁 (공대 59) 윤신원 (의대 50) 장태환 (의대 61) 전병삼 (약대 54) 전성진 (사대 54) 정동성 (상대 58) 조남천 (사범 59) 조대영 (공대 61) 조중수 (공대 64) 조득환 (의대 61) 조명애 (간호 47) 조상혁 (공대) 조태환(상대 56) 주의돈 (의대 58)* 진봉일 (공대 50) 차국만 (상대 56) 김승자 (사대 59) 남세현 (공대 67) 문성인 (공대 88) 최수봉 (간호 66) 최수용 (상대 55) 최영태 (문리 67) 최정용 (사범 63) 최한용 (농대 58) 최형무 (법대 69) 한태진 (의대 58) 함중근 (간호 66) 허병렬(사범 40)* 허선형 (의대 58)* 허영자 (약대 63)* 허용홍(상대 63) 현영수 (음대 61)* 홍선경 (의대 58)	김중석 (사대 75) 김광수 (자연 73) 김만옥 (약대 56)* 김영자 (미대 60) 김은한 (의대 60) 김선혁 (의대 59) 김정선 (문리 66)* 김진우 (의대 58) 김정환 (공대 52) 김재호 (상대 56) 김형범(문리 57) 박중건 (의대 56) 박중순 (의대 56)* 윤철(문리 54) 이강홍 (상대 60) 이경필 (상대 64) 이경태 (공대 63) 이준우 (의대 51) 이국진 (사대 51) 이명중 (공대 72) 이문봉 (미대 76) 이상근 (경영 84)	이상원 (62)* 이영일 (의과 60) 이재진 (의대 59) 이진자 (간호 60) 이정자 (간호 59) 이중환 (법대 51) 이준우 (음대 65) 이태상 이태안 (의대 61) 임도혁 (공대 59) 윤신원 (의대 50) 장태환 (의대 61) 전병삼 (약대 54) 전성진 (사대 54) 정동성 (상대 58) 조남천 (사범 59) 조대영 (공대 61) 조중수 (공대 64) 조득환 (의대 61) 조명애 (간호 47) 조상혁 (공대) 조태환(상대 56) 주의돈 (의대 58)* 진봉일 (공대 50) 차국만 (상대 56) 김승자 (사대 59) 남세현 (공대 67) 문성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남가주 CA
공인회계사
Kyung Moo Kim CPA & Accounting Corp.
김경무 (공대 69)
T: 213-616-1390
3435 Wilshire Blvd., #115, LA, CA 90010

AAMKO Consulting Co.
강신용 (사대 73) 공인회계사
T: 213-380-3801
3850 Wilshire Blvd., #201, LA, CA 90010

이강원 공인회계사
이강원 (인문대 76)
T: 213-387-1234
3530 Wilshire Blvd., #141, LA, CA 90010

GSK LLP Certified Public Acct. & Business Consultants
강호석(상대 81)
T: 213-380-5060 (LA, CA)
T: 714-530-3630 (Garden Grove, CA)

JUN CHANG CPA & Accounting Corp.
장 준 (인문 85)
T: 818-722-2811
11145 Tampa Ave. Suite 26A Northridge, CA 91326

STANLEY Cha, CPA
차기민 (공대 85)
T: 818-772-2811, 213-272-2460 / jun@junchangcpa.com
19520 Nordhoff St., Suite 16, Northridge, CA 91324
229 N. Euclid St., Fullerton, CA 92832

임춘택 공인회계사
임춘택 (상대 68)
T: 213-380-4646
3700 Wilshire Blvd., #750, LA, CA 90010

김원철 & 황기주 공인회계사
김원철 (농대)
T: 213-380-4646
3700 Wilshire Blvd., #750, LA, CA 90010

권국원 공인회계사
권국원 (공대)
T: 213-480-0070 / kwuncpa@yahoo.com
869 Irolo St., LA, CA 90005

기계 / 기술 / 전자
Link TV Media
김원탁 (공대 65)
O: 818-514-6780 / M: 818-720-2373
24208 Park Athena Calabasas, CA 90302
linkboxusa@gmail.com / www.linkboxusa.com

Turbo Air, Inc.
서치원 (공대 69)
T: 310-719-5422
3421 Oakridge Terrace, Calabasas, CA 91302

Tayco Engineering, Inc.
정재훈 (공대 64)
T: 714-952-2240 / jchung@taycoeng.com
10874 Hope St. PO Box 6034, Cyoress, CA 90630

www.taycoeng.com
마켓
Han Nam Chain Market
하기환 (공대 66)
T: 213-381-3610
2740 W. Olympic Blvd., LA, CA 90006

변호사
한태호 변호사 법률그룹
한태호 (인문대 75)
T: 213-639-2900 / F: 213-639-2909
3699 Wilshire Blvd., Suite 860, LA, CA 90010
www.haanlaw.com

신혜원 변호사
신혜원 (사대 81)
T: 213-385-3773
3435 Wilshire Blvd., #2230, LA, CA 90010

Law Offices of KYUNG HEE LEE, PC
이경희 (인문대 83)
T: 213-385-IMIN (4646)
3435 Wilshire Blvd., Suite 1110, LA, CA 90010

부동산
Team Spirit Realty
이종묘 (간호대 69), Jennie Lee
T: 714-396-0624 / jenniecee@gmail.com
30 Corporate Park, Suite 207, Irvine, CA 92606

식품 / 음식점
자연나라 (Jayone Foods, Inc.)
이승훈 (상대 74)
T: 562-633-7400
7212 Alondra Blvd., Paramount, CA 90723

해태 USA (Haitai Inc.)
정정우 (수외대 74)
T: 323-890-0101
7227 Telegraph Rd., Montebello, CA 90640

복창동 순두부
이태로 (법대 50)
B) (213) 382-6677
357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의료 / 병원
Seoul Medical Group
차민영 (의대 76)
T: 213-480-7770
520 S. Virgil Ave., #507, LA, CA 90006

VIP 성형외과
최광휘 (의대 70)
T: 323-965-1717 / F: 323-965-1855
4160 Wilshire Blvd., 2nd floor, LA, CA 90010
akchoi52@gmail.com

실로암 병원 (Siloam Medical Clinic)
신경정신과 정균희 (의대 64)
Christopher K.Chung MD
T: 213-386-5002 / drcchung@yahoo.com

2528 W.Olympic Blvd., #103, LA, CA 90006
Beverly Cardiology Group
Il Young Kim MD (의대 65)
Diana Kim MD
T: 323-662-1175 / www.beverlycardiology.com
3919 Beverly Blvd., #100, LA, CA 90004

정수만 안내과, 혈액내과
정수만 (의대 66)
T: 714-539-6414
12555 Garden Grove Blvd., #309, Garden Grove, CA 92843

의료 / 약국
나성 약국
임낙균 (약대 64)
T: 213-387-3030
3030 W. Olympic Blvd., #118, LA, CA 90006

의료 / 치과
황준오 DDS
황준오 (치대 73)
T: 408-732-0493
877 W. Fremont Ave. #H3, Sunnyvale, CA 94087

Seonho Ha Prosthodontics
하선호 (치대 81)
T: 213-365-1008 / ddsstp@yahoo.com
3240 Wilshire Blvd., #510, LA, CA 90010

의료 / 동물병원
Animal Medical Clinic
신동국 (수외대 76)
T: 714-990-1411
3257 Associated Rd., Fullerton, CA 92835

Francis Animal Hospital
최재현 (수외대 66)
T: 909-627-0951 / 909-627-0715
5284 Francis Ave., Chino Hills, CA 91710

Richmond Veterinary Hospital
한상봉 (수외대 67)
T: 510-232-3465
4704 MacDonald Ave., Richmond, CA 94805

Van Buren Animal Hospital
오영문 (수외대 64)
T: 951-687-2630
5535 Van Buren Blvd., Riverside, CA 92503

유통 / 운송 / 원자재
SeAH Steel America, Inc.
이병준 (상대 55)
T: 949-655-8000
2100 Main Street #100, Irvine, CA 92614

자동차 / 서비스
A.P.W. 자동차 부품
서동영 (사대 60)
T: 310-753-9636

1073 E. Artesia Blvd., Carson, CA 90746
Mirae Asset Wealth Mgmt. (USA) Inc.
최경석 (사대 80)
D: 213-262-3805 / M: 213-952-9911
3701 Wilshire Blvd., Suite 101, LA, CA 90010
kyungsuk.choi@miraeassetusa.com

기타
ACCU Construction, Inc.
염동해 (농대 74)
T: 714-641-4730
2098 S. Grand Ave., Suite A, Santa Ana, CA 92705

라 캐나다 한인교회
독곡원 (공대 65)
T: 818-790-7320
1700 Foothill Blvd., La Canada, CA 91011

San Bernardo Foot Clinic Inc.
이상대 (농대 80)
B: 909-882-3800 / C: 714-323-8612
2095 N. Waterman Ave., San Bernadino, CA 92404

뉴욕 NY-NJ
공인회계사
KL CPA & Associates LLC
이경림 (상대 64)
T: 212-768-9144
1430 Broadway, Suite 306, New York, NY 10018
http://klcpagroup.com/klcpa/

리테일
New York Golf Center
이전구 (농대 60)
T: 212-564-2255
131 W. 35th St., New York, NY 10001
www.nygolfcenter.com

변호사
신응남 변호사
신응남 (농대 70)
T: 718-463-3131 / petershinesq@gmail.com
158-14 Northern Blvd., 2Fl, # UL-2, Flushing, NY 11358

의료 / 병원
백승원 위장내과
백승원 (의대 73)
T: 201-302-9774 / 732-744-9090
1608 Lemoine Ave., #200, Fort Lee, NJ 07024
1921 Oak Tree Rd., Edison, NJ 08820

석창호 위장내과
석창호 (의대 66)
T: 718-461-6212
41-61 Kissena Blvd., #27, Flushing, NY 11355

이창석 내과
이창석 (의대 72)
T: 718-762-4400
40-5 Bowne St., Flushing, NY 11354

박범렬 소아과
박범렬 (의대 75)
T: 718-229-1188 / 718-899-4600
211-50 45th Dr., Bayside, NY 11361
40-10 70th St., Woodside, NY 11377

박중호 소아과
박중호 (의대 79)
T: 201-242-1002
44 Sylvan Ave., Englewood Cliffs, NJ 07632

윤세웅 비뇨기과
윤세웅
T: 718-335-3333
75-21 Broadway, Flushing, NY 11373
100-25 Queens Blvd., #16C, Forest Hills, NY 11375

김승관 통증 및 재활의학 병원
김승관 (의대 70)
T: 718-321-2870
35-20 147th St., #1D, Flushing, NY 11354

의료 / 치과
김성래 치과 (Closter Dental)
김성래 (치대 76)
T: 201-750-0011
570 Piermont Rd. Closter Plaza, Closter, NJ 07624

의료 / 동물병원
Ridgefield Park Animal Hospital
김기택 (수외대 81)
T: 201-814-0095
199 Main St., Ridgefield Park, NJ 07660

유통 / 네일제품
Kiss Products, Inc
김광호 (문리 62)
(516)625-9292/ (516)625-5599/1962
57 Seaview Blvd. Port Washington, NY 11050
www.Kissusa.com / cfo@kissusa.com

워싱턴 DC MD-VA-MN
기계 / 기술 / 전자
Drivetech, Inc.
엄달용 (공대 69)
T: 703-489-2474
25492 Carrington Dr., South Riding, VA 20152

김치갑 통증병원
김치갑 (의대 73)
T: 201-541-1111
475 Grand Ave., Englewood, NJ 07631

김치갑 통증병원
김치갑 (의대 73)
T: 201-541-1111
475 Grand Ave., Englewood, NJ 07631

김승호 (공대 71)
T: 718-463-0001
44-04 21st Street. Queens NY 11101
jeewha@hotmail.com

김치갑 통증병원
김치갑 (의대 73)
T: 201-541-1111
475 Grand Ave., Englewood, NJ 07631

김승호 (공대 71)
T: 718-463-0001
44-04 21st Street. Queens NY 11101
jeewha@hotmail.com

김승호 (공대 71)
T: 718-463-0001
44-04 21st Street. Queens NY 11101
jeewha@hotmail.com

김승호 (공대 71)
T: 718-463-0001
44-04 21st Street. Queens NY 11101
jeewha@hotmail.com

김승호 (공대 71)
T: 718-463-0001
44-04 21st Street. Queens NY 11101
jeewha@hotmail.com

의료 / 치과
김성래 치과 (Closter Dental)
김성래 (치대 76)
T: 201-750-0011
570 Piermont Rd. Closter Plaza, Closter, NJ 07624

의료 / 동물병원
Ridgefield Park Animal Hospital
김기택 (수외대 81)
T: 201-814-0095
199 Main St., Ridgefield Park, NJ 07660

유통 / 네일제품
Kiss Products, Inc
김광호 (문리 62)
(516)625-9292/ (516)625-5599/1962
57 Seaview Blvd. Port Washington, NY 11050
www.Kissusa.com / cfo@kissusa.com

워싱턴 DC MD-VA-MN
기계 / 기술 / 전자
Drivetech, Inc.
엄달용 (공대 69)
T: 703-489-2474
25492 Carrington Dr., South Riding, VA 20152

김치갑 통증병원
김치갑 (의대 73)
T: 201-541-1111
475 Grand Ave., Englewood, NJ 07631

김치갑 통증병원
김치갑 (의대 73)
T: 201-541-1111
475 Grand Ave., Englewood, NJ 07631

김치갑 통증병원
김치갑 (의대 73)
T: 201-541-1111
475 Grand Ave., Englewood, NJ 07631

김치갑 통증병원
김치갑 (의대 73)
T: 201-541-1111
475 Grand Ave., Englewood, NJ 07631

김치갑 통증병원
김치갑 (의대 73)
T: 201-541-1111
475 Grand Ave., Englewood, NJ 07631

김치갑 통증병원
김치갑 (의대 73)
T: 201-541-1111
475 Grand Ave., Englewood, NJ 07631

김치갑 통증병원
김치갑 (의대 73)
T: 201-541-1111
475 Grand Ave., Englewood, NJ 07631

김치갑 통증병원
김치갑 (의대 73)
T: 201-541-1111
475 Grand Ave., Englewood, NJ 07631

김치갑 통증병원
김치갑 (의대 73)
T: 201-541-1111
475 Grand Ave., Englewood, NJ 07631

www.drivetechinc.com
김권식 (공대 61)
T: 612-961-6878
10025 Valley View Rd Ste 140, Eden Prairie, MN 55344
www.EVS-ENG.com

식품 / 음식점
우래옥
백행남 (문리 60)
T: 703-827-7300
8240 Leesburg Pike., Vienna, VA 22182
www.woolaeoak.com

재정 / 보험 / 컨설턴트
C & N 종합보험 / 뉴욕 라이프
정세근 (자연대 82)
O: 703-663-8400 / C: 703-785-8467
7023 Little River Tpke., #403, Annandale, VA 22003

Fairway Asset Corporation
남욱현 (경영대 84)
T: 301-279-6969
15400 Calhoun Drive, Suite 120 Rockville, MD 20855
www.facloan.com

미주 동창회보는 미주 동문의 역사 기록입니다.

제15대 미주동창회

역대회장
박윤수 (문) · 강수상 (의) · 이병준 (상) · 오인석 (법) · 이용락 (공)
오홍조 (차) · 이영목 (공) · 이진구 (농) · 송순영 (문) · 김은중 (상)
오인환 (문) · 손재욱 (가정)
명예회장: 윤상래 (수)

제15대 회장: 신응남 (농)
고문: 박중수 (수), 주중광 (약)

차기회장: 노명호 (공)
Brain Network 공동 위원장: 하용출 (문), 이강원 (공)
Brain Network 공동 부위원장: 조달훈 (사), 박영철 (농)
Corporate Counselor: 최형무 (법)

집행부
사무총장: 연영재 (공)
총무 국장: 문현호 (음), 간사: 이지희
재무 국장: 한경진 (음)
IT 국장:
업무 국장: 연영재 (공)
섭외 / 홍보 국장: 유시영 (문)
조직 및 광고국장: 백옥자 (음)
문화 국장: 홍선례 (음)

회보 발행인: 신응남 (농), 편집인: 오치주 (농)
편집 고문: 광상희 (문), 이희만 (간)
편집장: 박정원
편집 위원: 추재욱 (의), 최철용 (농), 최한용 (농), 연봉원 (문)
송용길 (신문), 조달훈 (사), 최형무 (법), 이수호 (보)
백옥자 (음), 홍선례 (음), 문현호 (음), 한경진 (음)

지역 기자단: 홍선례 (LA), 백옥자 (LA)

논설 위원장: 이항렬 (법)
논설 위원: 김 영 (수), 김해암 (의), 정태영 (문), 박평일 (농), 고병철 (법), 백 순 (법), 장동만 (문), 김창수 (약), 민경훈 (법), 유재종 (법), 연봉원 (문), 이채진 (문), 장석정 (법), 정홍택 (상), 조동준 (의), 차민영 (의), 최용완 (공), 하용출 (문), 김홍목 (문), 김재훈 (공), 김지영 (사), 최형무 (법), 이종호 (인)

회칙 위원회: 위원장 김병연 (공)
회칙위원: 김병연 (공), 김용현 (상), 서종민 (공), 이강원 (공), 조정현 (수), 이민연 (법), 한재은 (의), 함은선 (음)

미주동창회 후원위원회: 위원장
회관 건립 연구 위원회:
회보 개선 위원회: 위원장 주기목 (수)
나눔 위원회: 위원장 황선희 (공)

동창회 운영기금 century foundation 관리 위원회: 위원장 손재욱(전회장)

장학 위원회: 위원장 신응남 (농), 부위원장: 김승호 (공)
장학위원: 오인환 (전회장), 손재욱 (전회장), 윤상래 (직전회장)
이상강 (의), 이원섭 (농), 강창석 (의), 강에드워드 (사)

포상 위원회: 위원장 신응남 (회장)
위원: 각 지부 회장

모교 발전기금 위원회: 위원장 신응남 (회장)
장학위원: 오인환 (전회장), 손재욱 (전회장), 윤상래 (직전회장)
감사: 김명승 (상), 강호석(상)

미주 지역동창회 회장단

지역	이름	전화	Email	회계연도
남가주 S.CA/NV	회장	민일기 (약대 69)	562-547-2110 davidmin920@gmail.com	Feb-Jan
	차기회장	최용준 (수의대)	818-450-7868 yongjunchoi@yahoo.com	
북가주 SAN FRANCISCO	회장	임준원 (공대 77)	408-220-4260 joonwlim@gmail.com	Jan-Dec
	차기회장	최승희 (사회 81)	408-313-4239 shechoi01@gmail.com	
뉴욕 NY/NJ	회장	조상근 (법대 69)	201-913-0565 amcainc@msn.com	July-Jun
	차기회장			
뉴잉글랜드 MA/RI/NH/ME/VT	회장	김정선 (문리 66)	617-780-7205 jkim@systemic.com	Jul-Jun
	차기회장	김유경 (음대 72)	781-223-4411 YkimLC@yahoo.com	
북텍사스 LA/DALLAS	회장	강성호 (수의 81)	214-215-4447 oah9999@yahoo.com	Jan-Dec
	차기회장			
록키마운틴스 MT/CO/WY/NM	회장	최용문 (공대 77)	ymcgreencorp@gmail.com	Jan-Dec
	차기회장			
미네소타 MINNESOTA	회장	송세진 (치대 78)	612-930-7360 sejinsong@gmail.com	Jan-Dec
	차기회장			
샌디에고 SAN DIEGO	회장	유재호 (공대 90)	469-387-7922 blue9071@gmail.com	Nov-Oct
	차기회장			
시카고 IL/IN/WI/MI	회장	장윤일 (공대 60)	630-305-8792 ychang@anl.gov	Jan-Dec
	차기회장	김윤하 (공대 66)	847-726-0528 yunhakim@comcast.net	
애리조나 ARIZONA	회장	오윤환 (공대 56)	520-271-2601 youn.oh@gmail.com	Jan-Dec
	차기회장			
앨라스카 ALASKA	회장	윤재중 (농대 55)	907-223-0887 jaejyoon@hotmail.com	Jan-Dec
	차기회장			
오레곤 OR/ID	회장	전병택 (상대 65)	bryanchon@gmail.com	Jan-Dec
	차기회장			
오하이오 OHIO	회장	이성우 (상대 72)	614-370-5761 rimshake@ameritech.net	Jan-Dec
	차기회장			
워싱턴 DC DC/MD/VA/WV	회장	박상근 (법대 75)	703-425-9390 sangkeunpark@gmail.com	Jul-Jun
	차기회장			
워싱턴 주 WASHINGTON	회장	이명자 (간호 74)	drmalee@gmail.com	Jan-Dec
	총무	임현민 (공대 84)	425-444-3899 heonmin.lim@microsoft.com	
유타 UTAH	회장	김한섭 (공대 93)	734-904-9672 hanseup@ece.utah.edu	Jan-Dec
	차기회장			
조지아 GA/AL/MS	회장	이영진 (공대 76)	404-579-8282 youngjinlee9999@gmail.com	Jan-Dec
	차기회장	김재호 (공대 80)	404-372-2621 jhros@gmail.com	
중부텍사스 MID-TEXAS	회장			Jan-Dec
	차기회장			
필라델피아 PA/DE/S.NJ	회장	지홍민 (수의대 61)	215-512-9510 hmchi8760@gmail.com	Jul-Jun
	차기회장	이성숙 (가정 74)	610-417-4789 ssh1120@gmail.com	
플로리다 FLORIDA	회장	최희덕 (사대 68)	973-610-5857 lee07073@hotmail.com	Jan-Dec
	차기회장			
캐롤라이나 SC/NC/KY	회장	지원식 (공대 85)	919-913-5570 wschee@gmail.com	Jan-Dec
	차기회장			
커네티컷 CT	회장	유시영 (문리 68)	203-305-3910 t60syu@gmail.com	Jan-Dec
	차기회장			
테네시 TENNESSEE	회장	김상호 (공대 86)	856-386-1094 kimsh@ornl.gov	Jan-Dec
	부회장			
하와이 HAWAII	회장	성낙길 (문리 77)	808-956-2611 nsung@hawaii.edu	Jul-Jun
	총무	전수진 (석공 89)	808-956-8283 soojin@hawaii.edu	
하들랜드 IA/MO/KS/NE/AR/OK	회장	이지현 (약대 77)	913-814-9452 leeche@umkc.edu	Sep-Aug
	차기회장			
휴스턴 HOUSTON	회장	구자동 (상대 70)	713-206-1041 jykey2003@yahoo.com	Jan-Dec
	부회장			
캐나다 밴쿠버	회장	조석기 (상대 71)	skeycho@gmail.com	Jan-Dec
	부회장		skeycho@gmail.com	
캐나다 앨버타	회장	정종기 (공대 70)	403-617-7585 movics@shaw.ca	Mar-Feb
	부회장			

www.taycoeng.com

Tayco Engineering, Inc

Our product lines
Flexible Heaters/ Flexible Cable
High Temperature Metallic Heaters
Temperature Sensors/ Spacecraft Subsystems

정재훈 (공대 64)

T: 714-952-2240 / jchung@taycoeng.com/ 10874 Hope St. PO Box 6034, Cyress, CA 90630

jayone.com

한인대표 식품기업 자연나라로 성장하겠습니다!

www.jayone.com

Since our founding in 2000, Jayone Foods, Inc. has always maintained the sole mission of sharing our passion for Asian Food - especially Korean food. With so many bold flavors, vivid colors, and countless health benefits, it would be a shame not to spread the word far and wide! As the first company to introduce the idea of enjoying seaweed as a snack, we take pride in our innovation and are always thinking of new and unique ways to bring delicious foods to your table.

In the 18 years since our humble beginnings, Jayone has developed over 700 different food items ranging from fresh produce to frozen goods and you may already be familiar with some of our other brands such as Sea's Gift and Jayone! In addition to our own brands, we've also partnered up with many other brands in our journey to spread the goodness of Asian foods because, at the end of the day, we believe that good food is a universal language that everyone can relate to and enjoy no matter who you are.

Tel: 562-633-7400 대표: 이승훈 (상대 74)

Fairway Asset

INNOVATION CONTINUES

업계 최고수준을 반영하는 정직과 전문성을 갖춘 최고의 융자전문회사입니다.
Fairway Asset은 모기지, 그 이상의 전문업체입니다.

남옥현 (경영대 84)

Fairway Asset Corporation
15400 Calhoun Drive, Suite 120
Rockville, MD 20855

(301) 279-6969 (Office)
(301) 279-6968 (Fax)

info@facloan.com

www.facloan.com

MAKE THE WORLD BEAUTIFUL.



SeAH

SeAH STEEL AMERICA, INC.

회장 이병준(상대 55)

2100 Main St. Suite 100
Irvine, CA 92614
(949) 655-8000

